



## 상제관

태을핵랑군

# 소개글

상제님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 목차

---

1	상제관(01)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5
2	상제관(02-1)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21
3	상제관(02-2)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31
4	상제관(03) - 불교의 결론 - 미륵부처 지상강세	42
5	상제관(04) - 유교의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乎艮	58
6	상제관(05) - 도교의 결론 -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71
7	상제관(06) - 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과 목적	93
8	상제관(07) - 증산도 甞山道 란 무엇인가?	110
9	상제관(08)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122
10	상제관(09)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 상제님	128
11	상제관(10) - 하나님의 공식호칭 : 옥황상제 玉皇上帝	142
12	상제관(11)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149
13	상제관(12)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157
14	상제관(13)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 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164
15	상제관(14) - 증산 상제님은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175
16	상제관(15) - 상제님의 중통인의 도통경계와 권능	187
17	상제관(16)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199

---

18	상제관(17) - 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211
19	상제관(18) - 증산 상제님의 친필	221
20	상제관(19)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225
21	상제관(20)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232
22	상제관(21)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238
23	상제관(22) - 상제님 강세를 간절히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249
24	상제관(23)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남사고	257
25	상제관(24)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270
26	상제관(25) - 상제님 강세를 약속받은 진표 대성사	275
27	상제관(26) - 정감록이 전하는 미륵존불 강림과 인류의 심판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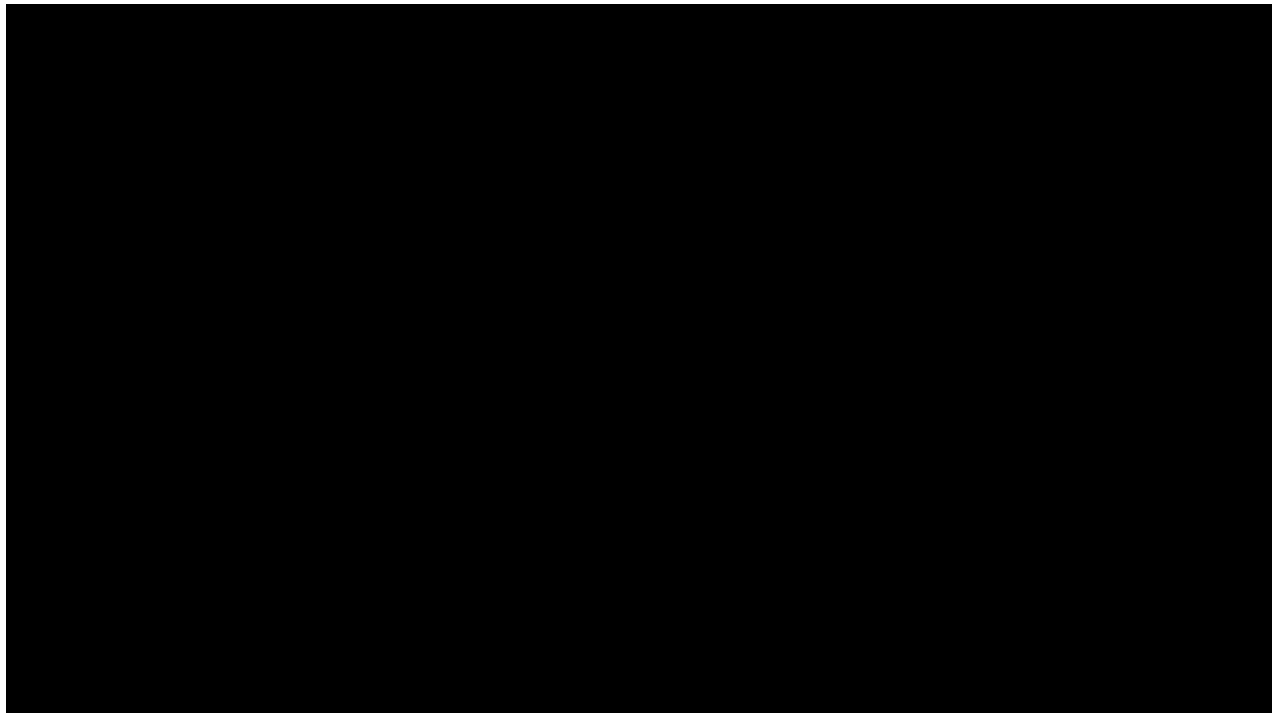


# 01

상제관(01)-동방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

##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상제님을 섬겨온 한민족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천손민족이라 불리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며 살아 왔다.

이는 하늘의 뜻이 사람에게 통하는 하늘과 땅의 삼신일체 사상이다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앙으로 스스로 하늘 땅으로 조화롭게 살고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마니산에 제천단을 쌓고 이러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전해 진다  
하늘의 뜻을 살피 백성을 살피는 것은 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사상이다.

##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 증산도 道典 1:1

- 1 태시(太始)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 2 홀연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三神)은 곧 일신(一神)이요  
우주의 조화성신(造化聖神)이니라.
- 3 삼신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
- 4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궐(昊天金闕)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三神上帝),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렀다.
- 5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 6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神敎)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신교문화**

한국-배달-고조선 이래 한민족은 상제님을 섬기고 상제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

왔습니다.

나아가 신교는 우리 조상인 환족의 이동을 따라 세계로 퍼져 나가 인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신교에서 말하는 신神은 곧 삼신상제님입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이 한 분(一者)으로부터 하늘, 땅, 인간(과 만물)이 벌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도 신이요 땅도 신이요 인간도 신입니다.

천지인天地人이 모두 살아 있는 삼신입니다.

때문에 하늘 · 땅 · 인간 속에는 삼신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 있다.

『환단고기』는 이러한 천지인의 관계를 수리數理로써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이라 표현합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 하나의 근원자리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환단고기의 이 신교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단고기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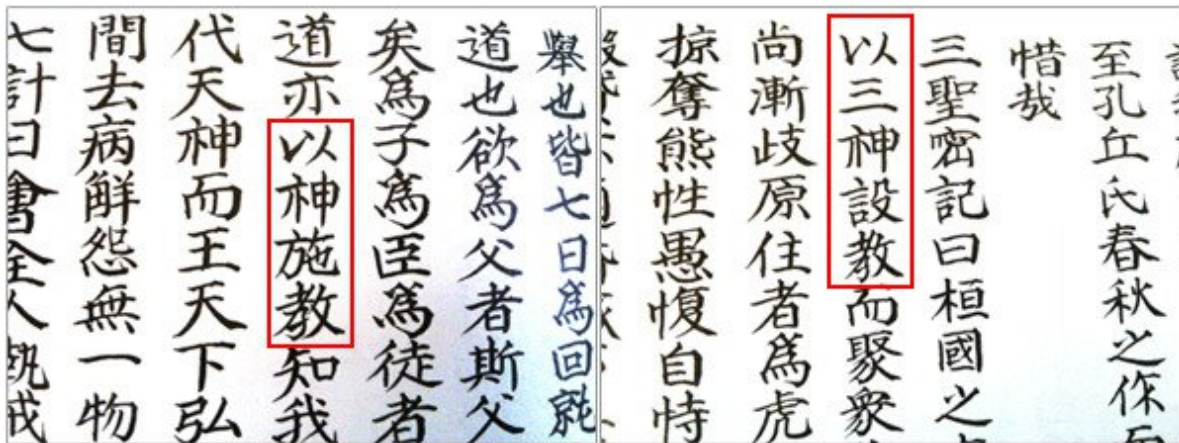


## 신교 神敎란 ?

신교란, 신의 가르침.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 때부터 신교를 신앙하면서 이분을 삼신상제, 삼신하나님으로 불러왔다.

신교(神敎)는 인류의 시원문화이며 유.불.선 모체(뿌리) 종교이다.



"그러므로 환웅천황의 신시 개천의 도는 신도(삼신의 도)로써 가르침을 베풀어 ..." 《단군세기》

"환국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 이를 근심하던 차에 환웅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삼신의 도로써 가르침을 베풀고," 《태백일사 신시본기》

단군 고조선 이전의 상고시대인 환국시대 때부터 70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이 국교로 받들어 온 생활문화이며 유교' 불교' 도교(동양仙)' 기독교(서양仙) 등 기성 종교의 근원이자 인류사의 뿌리 문화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은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며 천지부모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받들고

천지신명과 민족의 뿌리인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를 함께 모셔왔던 천손 天孫 민족이다.

그리고 민중은 각기 자기 조상신을 섬기며 신교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규범과 가치를 정하여 살아왔다.

한민족 상고역사 시대인 환국시절의 신교(神敎)의 핵심은 제사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천의식입니다.



- ▲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초대 단군께서 재위 51( BCE 2283)년에 축조하고  
 역대의 단군 성조들께서 직접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우리민족의 성지이다.

삼신상제(三神上帝)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삼신상제**라 불리우던 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신교는 우주의 주재자를 삼신상제님 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민족인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약 1만년 동안 섬겨온  
신앙의 핵심 대상은 **삼신상제(三神上帝)**님 이십니다.

이 삼신(三神)을 지금은 얼핏 국조삼신(환인, 환웅, 단군)으로 잘못 알고 있고,  
자손줄을 내려 준다는 삼신할머니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삼신사상이 뻗어나가서 지구촌의 여러 종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신사상에서 뻗어나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삼신상제... 얼핏 들으면 "상제가 셋?"으로 이해하실수도 있습니다.

삼신(三神)으로 불리어온 의미는 하나이면서 셋으로 작용하는,  
즉, 천지인 셋을 주재하는 우주의 유일상제(一上帝)를 말합니다.

三神상제님이란 말은 우주의 주재자인 상제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주조화의 본체가 3수의 창조원리로 변화 작용한다는 심오한 이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삼일심법(三一心法)의 민족정신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3이라는 숫자와 깊은 인연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주의 근본을 꿰뚫어 본 삼신사상으로 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성조는 이 우주의 3신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그 정신을 대행 하신 분들이며,  
한민족의 자손과 역사를 주재하시어 민족의 수호 3신이 되신 각각의 인격신(人格神)입니다.

환단고기 삼성기 상편에 환인께서 최초로 삼신상제의 진리를 득도하여 하늘을 대행하여  
신교의 진리를 편 분이라 적고 있습니다.

7대 환인천제, 18대 환웅천황, 47대 단군성조시대, 즉, 한민족 상고시대 7000년여 세월 동안  
모두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구도의 길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민족사 말살정책과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상제문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고려시대 선인仙人 이었던 자하선사는 신교는 모든 선천 종교의 모체가 된다고 했으며  
신라시대 대학자이며 도인이었던 고운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지은 화랑도의 뿌리를 밝힌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 을 살펴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고운 최치원



최치원(崔致遠) 선생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 중에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國有玄妙之道 日風流 국유현묘지도 알풍류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말하기를 풍류라 한다.

說敎之源 備祥仙史 實乃包含 三敎 接化群生 설교지원 비상선사 실내포함 삼교 접화군생

이 종교를 일으킨 연원은 선사[仙家史書]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 불 선 삼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간 즉 나라에 충성하니, 그것은 노사구(공자)의 교지(敎旨)와 같다.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주주사(노자)의 교지와 같다.

諸惡莫作 衆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축건태자(석가)의 교화(敎化)와 같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환국시대 이래로 본래부터 신라시대때 풍류도로 불린  
신교가 그 전에 부터 있어서 유불선 종교적 차원의 이념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보편적이며 종합된 사상(신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천제 문화의 뿌리

환국-배달-고조선 이래 우리 조상들은 삼신상제님께 천제天祭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삼신상제님을 중심으로, 천지안의 모든 신들의 은혜와 덕을 칭송하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한 제천행사는 한민족을 넘어 인류의 원형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환족이 중동으로 이주하여 개척한 수메르, 그리고 베링해협을 건너간 환족이 개척한 중남미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등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신교의 제천문화, 그 공통된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피라미드는 태고의 환국의 신교문화의 유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하량 원형제단 추정도



우하량 제2지점의 3단 원형 제단



우하량 제2지점의 방형 적성총



수메르도시국가 우르의 지구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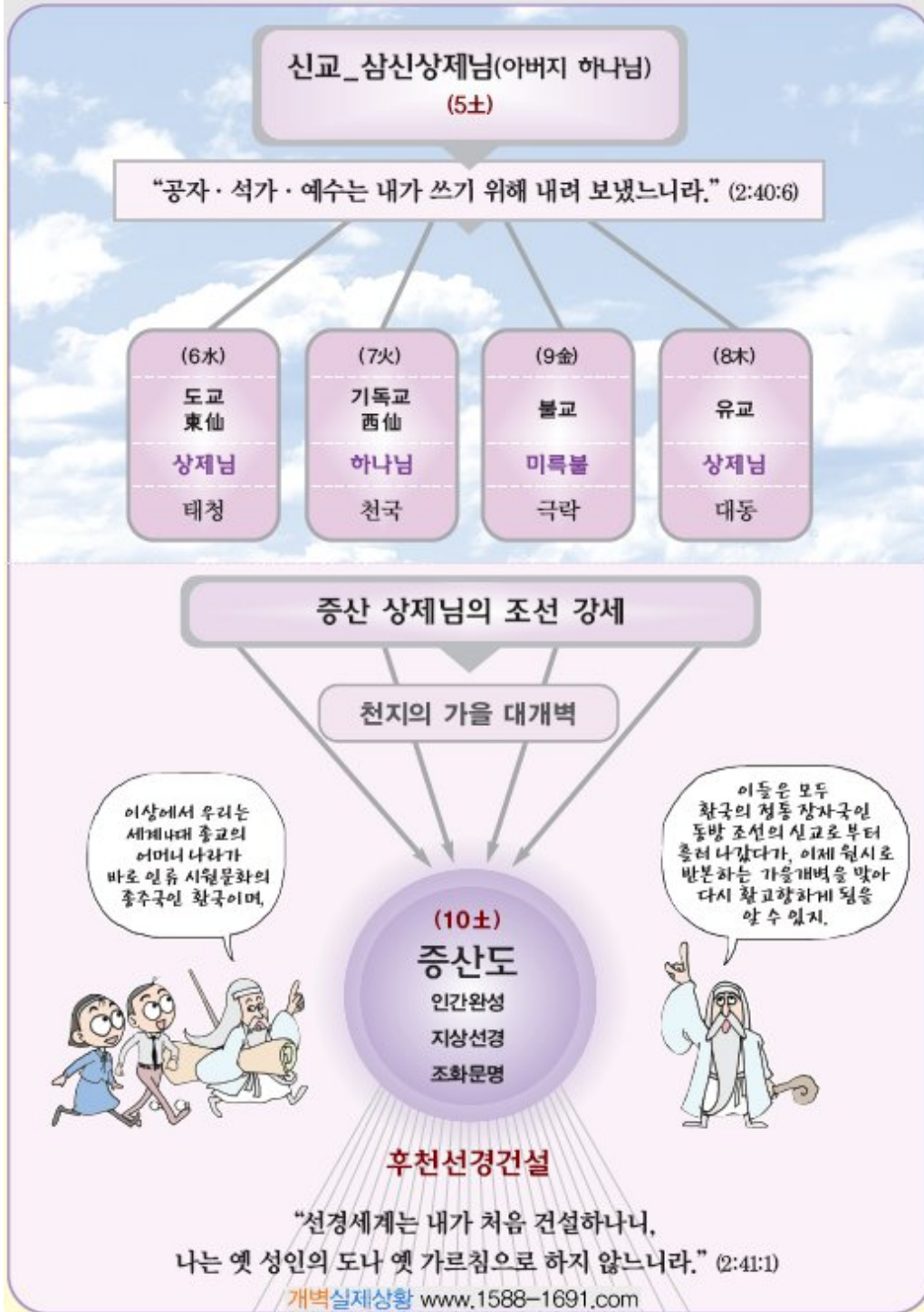
이집트 스네프루 왕의 단형 피라미드



카오키아 유적의 몽크스마운트



# 신교의 열매, 증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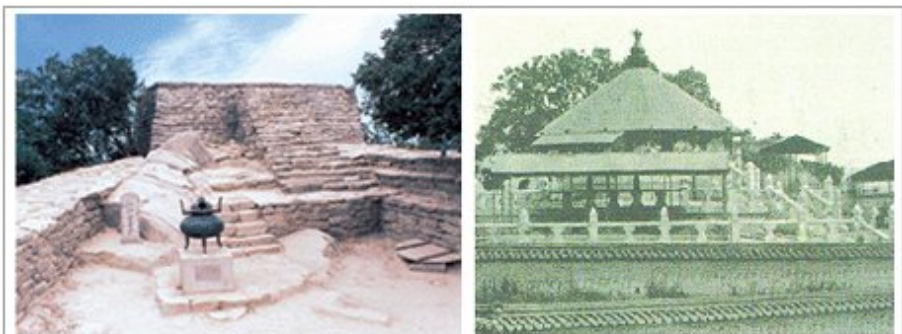
## 신교와 선천종교의 삼위관 三位觀

종교	신교	유교	불교	도교	7
삼위관	조화/교화/치화	무극/태극/황극	법신/보신/화신	옥청/상청/태청	성부/·

신교 제천문화의 대상은 바로 **상제님!**

**상제문화**의 유산을 살펴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의 생활 속에는 상제님을 받드는 문화가 수천 년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왼쪽의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BC 2288 년, 초대 단군왕검 때에 쌓은 제천단이며 단군왕검이 직접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역사적인 곳이다.  
오른쪽 사진의 원구단(현재 서울 조선폰텔 뒤에 팔각정만 남은 상태)은 1897년 대한제국 당시 고종 황제가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며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이다.

바로 이런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도 전국체전 개최를 알리는 성화(聖火)가 이곳 참성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팔관재’ 등

사실은 모두 하늘의 최고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제천의식의 일종입니다.

1913년에는 고종황제가 옥황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마저 헐어버렸죠.

또 8·15해방 이후에는 물밀듯이 밀려온 기독교의 영향으로 ‘상제님’이라는 호칭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심청전을 보면 옥황상제님이 용왕에게 명을 내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을 구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옥황상제님**은 **‘상제님’**과 같은 분입니다.



상제' (上帝)를 '제' (帝)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또 '옥황상제님' 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 상제님이 바로  
심청전에 나오는 옥황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증산 상제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나는 옥황상제(玉皇上帝)니라.” (道典 6:8:3) 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지상에 오신 당신님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 주  
셨습니다.

원래 옥황상제는 제帝라는 한 글자로 쓰였다.

그 문자적 의미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다.

또 **애국가** 가사를 보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하느님’ 도 바로로 ‘상제님’ 과 같은 분입니다.

본래의 애국가 가사는 “상제는 우리 황상(皇上)을 도우소서” 라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 사람 모두가 애창하는 애국가가 사실은 상제님(하느님)께 바치는 발원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제문화의 전통을 듬뿍 담고 있는 이 애국가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는 ‘상제님’ 이 ‘하느님’ 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산도에서 신앙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상제님이 바로 애국가에 나오는 바로 그 ‘하느님’ 이며, 심청전에 등장하는 ‘옥황상제님’ 이라는 것입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 02

상제관(02-1)-기독교의 결론-아버지하나님이오신다

---

## 기독교의 결론 -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사명과 결론 - 예수성자의 진실된 가르침, 나는 **인자(人子)**다.

예수성자는 자신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명을 받고 성자로서(아들) 이 지상에 왔음을 이렇게 분명히 절규하며 말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온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28~2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되었다 하느냐" -요한복음 19:23-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28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가 다가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울려옵니다. (마태복음 3:13~17)

1906년에 출판된 <국한문 신약전서>를 보면 예수에 대하여 ‘上帝의 子 예수그리스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확히 봤냐 하면

예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마태복음 16:15~16)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베드로가 종통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석가모니가 연꽃 한 송이를 말없이 들어 보이자 빙그레 웃음으로 대답한 가섭에게 종통을 전수한 것과 같습니다.



1906년판 국한문본 신약전서



우리나라에서 신약 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 보면 '상제의 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 '상제'를 '천주'라 했다. 상제관은 다신 문화의 신관이며 상제는 우주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주신이란 뜻이다.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결론은 자신을 내려 보내신 아버지가 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 지상천국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3:2)註1) 고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이 한 말씀에 압축되어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 기독교의 삼위일체관을 조명해 본다

### 삼위 일체관

【하나님 = 예수 = 성령】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아들인 예수성자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격이다.  
이는 신성한 성부하나님의 위격과 존엄성이 무너지고 천지의 위계질서를 바꾸는 것이다.

구약 (舊約)- 성신시대 여호아	신약 (新約)- 성자시대 예수	성약 (成約)- 성부시대 아버지 하나님
----------------------	---------------------	--------------------------

### 삼위일체관의 왜곡의 뿌리

2세기 중엽 무렵에 삼위일체 인정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심각했던 당시에 두 파로 갈리어  
아리우스파(250~336)는 -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일 뿐이다」와  
아타나시우스파(297~373)는 -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가 육화된 하나님이다」  
라고 두 주장이 강력히 대립하였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파괴되고  
로마제국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판단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종교회의(325년)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삼위일체를 인정하는(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논리)  
왜곡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실제 신약성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 성자 자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쓴곳이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인자人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제1차 종교회의 (니케아) : 하느님이 되어 버린 예수

제2차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 삼위일체를 결의

제3차 종교회의 (에페소스): 마리아를 하나님(신)의 어머니로 숭배할 것을 결의

## 삼위일체의 참된의미

아버지 (성부)는 우주창조의 질서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아들 (성자)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인간으로 와서 진리를 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성령 (성신)은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진리선포와 전도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성자는 “나는 아버지가 내려 보냈다” 고 말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명으로  
천국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서양으로 내려보낸 위대한 성자인 것이다.



만일 기독교와 불교와 기타 종교의 주인이 각각 이라면 이 우주는 조각 조각 나뉘져야 하지 않겠는가....

## 증산도와 선천종교의 삼위관 三位觀

종교	증산도(열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삼위관	조화/교화/치화	무극/태극/황극	법신/보신/화신	옥청/상청/태청	성부/성자/성령

기독교에서는, 성부聖父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법신法身적인 우주의 주권자로서 천상 궁전의 옥좌에 앉아 실제로 인간과 신들에게 명을 내리며 통치하시는 인격신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유 생명체의 ‘존재의 근원’ 으로 계시는 초월자, 절대자, 형이상학의 신과 창조주 신으로 받들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는 영원히 올 수 없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가 구름타고 재림할뿐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관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 를 영원히 못 찾게 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영지주의靈知主義의식으로 쓰여진 또 다른 한 권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an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 1:1~3)



가톨릭의 교황이 됐든, 신부가 됐든, 개신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도 누구를 불러다놓고 물어봐도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근원으로 본래부터 완전자로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바로 이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 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지난 2천년 동안,예수를 내려 보낸 대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강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족은, 예수가 탄압을 받고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간다.” 고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 상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2천년 동안 깊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찾으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를 전부 유대족의 신 여호와로  
알고 있으니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상제님께 전혀 상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빼기 박기 위해서 2천 년 전에 상제님은 천상 백보좌에서 밧모스 섬으로 귀양가서  
처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  
새 하늘 새 땅, 신질서를 창조하시는 가을 천지개벽의 실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그 가을개벽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시에 충청도 금산의 예배당에 가시어 기독교의 잘못된  
아버지 신관을 **직접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때 목사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맘 변치 말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서로 손잡고 함께 믿읍시다.” 하고 열 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상제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 단상으로 나가시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느니라!  
천지만사의 이치란 천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거늘 네 어찌 중생을 속이느냐!  
중생들을 그릇 인도 하면 천지의 원 주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하시며  
환부역조換父易祖의 큰 죄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벼락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 을 치라!” 하고 건물이 흔들리도록 큰 음성으로  
천상의 벼락 신장한테 벼락 을 때리게 하십니다. (道典5:17~18)

천지의 원 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조화주 상제님이 친히 기독교 교당에,  
그릇된 아버지 신관에 의해 아들인 예수성자에 매달린 맹목적 구원 신앙에  
개벽을 때리신 것입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 03

상제관(02-2)-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론의 실체

예수성자는 자신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명을 받고

성자로서(아들) 이 지상에 왔음을 이렇게 분명히 절규하며 말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온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28~2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 유일신 하나님관

독선적인 유일신 하나님관으로 천지안의 수많은 성신들을 배척하고 다른 신들을 믿는것을 모조리 우상숭배로 여기고

사탄으로 몰아세우며 인간은 죽으면 누구라도 신명계에서 엄연히 의식을 갖고있는 신명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우상숭배라 하여 죄악시하고 절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있다.

어떤 신앙을 떠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천륜을 거부하고, 나를 있게하신 가장 소중한 부모.조상님에게

경배를 올리는, 수천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의 위대한 전통과 천리에 근거한 인륜 도덕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성자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죄사함받고 예수성자가 재림시에는 믿는자들만 들림받아 구름타고

천국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상식과 지성이 있는 기독교인 이라면 정말 다시한번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지금 이시대는 선천 성자들이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여 한쪽 부분만을 말아 가르침을 설파한

가르침과 사상만으로는 우주와 인생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자연의 섭리에의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가을개벽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은 커녕 한 개인의 깊은 고뇌와 한, 생사마저도 끌려낼 수가 없습니다.

터엉빈 가슴으로 일체의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냉철한 이성과 판단,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완전히 새롭게 틈워야 합니다.

## 여호아 하나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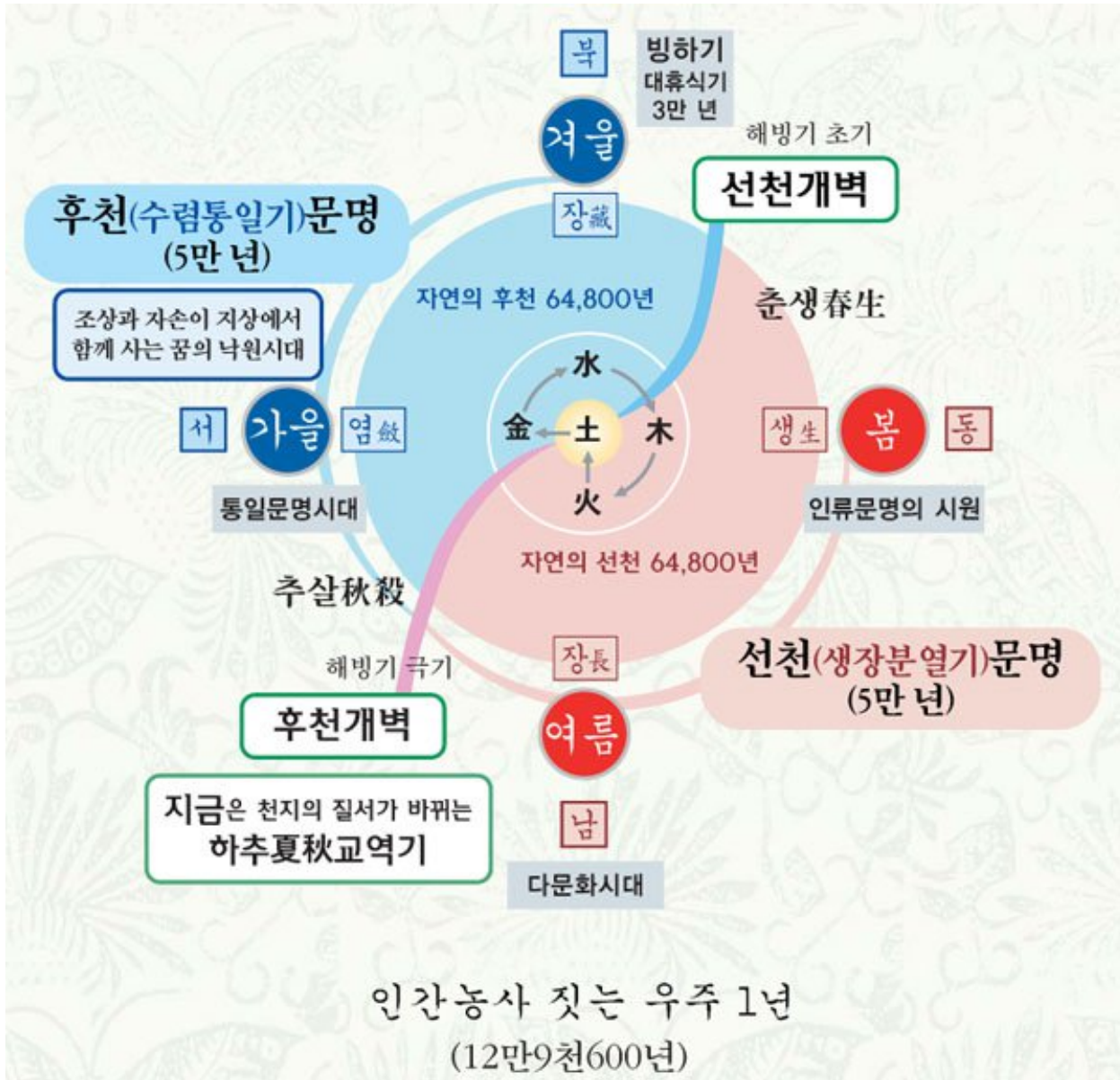
구약의 여호아는 유대민족의 민족신일 뿐 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조이신 단군성조께서 한민족의 뿌리가 되시는 분(민족신)이기 때문에 후손된 도리로써 공경과 경배의 대상은 되지만 모든 인간과 만유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여호아는 유대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신인 것이다.

## 구원관

새하늘 새땅이 열리는 말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자만이 구원받아서 공중들려(휴거)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산다는 환상적인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상에서 오만년 후천선경 낙원세계가 열리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빙하기(카오스개벽)가 도래하여 이 지구상은 얼어붙고 만다(약3만년).



그 어떤 종교를 믿건 안믿건 천시天時를 알고 깨우쳐서 예수성자가 그토록 설파했던 가을개벽기에 원하나님(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않고, 자기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선령신을 우선 잘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람이란 천지조화로 생겨나는 것이거늘 어찌 아담 이브가 온 세상의 한 어버이리요.  
이는 환부역조의 대죄를 짓게 하는 그릇된 말이니라.

사람이란 제 조상이 있고 족속마다 제 뿌리가 있나니  
조선사람의 조상은 단군이요 여호아는 유대사람의 지방신 이니라.

일찍이 ‘어린양’ 으로 불리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신 상제님께서  
예수를 해원시켜 이 땅 위에 천국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신미생 양띠로 오시니라.

[道典 4:142](#)





## 가을개벽(지축정립)의 충격적인 상황

- 요한계시록의 증언과 증산도 도전 말씀 -

### 새하늘 새땅이 열린다

\*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않고 다 무너 뜨리우리라.

\*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동서남북이 바뀔때는 천동지동 일어나고 송장이 거꾸로 서며 불도 켜지지 않으리니 놀라지 말고 마음을 키  
우라 ! 道典 7:24

## 백보좌 하나님심판

\*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행위를 따라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선경의 무량대운을 열려하노  
라. 道典 2:43

## 흰옷 입은 인류구원의 무리

\*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동방으로 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 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 ,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 ,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 물으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海印)을 전하여 주리라. 道典 7:30

세상 모든 나라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멸의 지경이 되었다가 너희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나라. 道典 7:51

## 하나님의 진리군사 – 증산도 육임도군 六任道軍

곧 들이닥칠 가을 개벽으로 천지가 개벽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환란에서 상제님 대행자이신 지도자의 지휘  
아래

상제님의 도를 받은 여섯 명과 여섯명을 지휘하는 지휘자 한 사람인 포감, 즉 일곱 명이 한조가 되어 인류를  
구원한다.

이땅, 동방의 한반도에 143년전 이땅에 강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해인 의통과 태을주를 바탕으로 천상에서 내려온 병겁신장들이 사람들의 혼만을 잡아 빼가는 3년 대병겁  
심판상황에서

인간 씨종자를 추리기 위하여 멸망당하는 천하창생을 이마에 해인海印을 치면서 현장에서 건져낸다.

이 구원의 조직이 의통구호대이며 증산도의 육임군 조직이다.

의통구호대야 말로 천하만민을 건지는 구원의 천사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군사다.

## 제142주 증산상제님 성탄치성 봉행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이 영상은 도기 141년(2011) 6월 19일에 열린  
〈의통성업 총의핵랑 출범식 및 대천제〉 행사의 하이라이트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댓글 [3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 04

상제관(03)-불교의 결론-미륵부처 지상강세

---

## 불교의 결론 - 미륵부처 지상강세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 불교의 사명과 결론 - 미륵님을 믿으라한 석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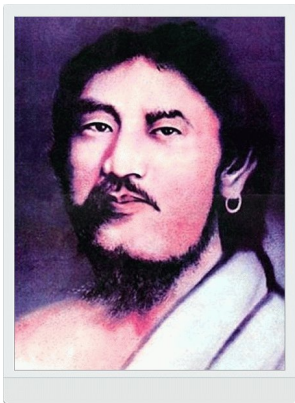
본명 : Siddhartha Gautama 싯타르타 고타마

석가모니란 샤카 출신의 현자란 뜻이다 .

석가모니 부처는 5백 년 마디로 자신의 불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후 1,500년이 지나면 법란(法亂)을 겪게 되고 파계 승가(僧伽)가 많이 출현하여,

정법이 음몰(陰沒)되는 말법(末法)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석가부처 탄생을 기원전 1027년 탄생으로 추정해볼때 기존의 정설을 따르면 갑인(甲寅, 1974)년이 불기 3000년이었으므로 올해(2013년)는 3040년이 되는 셈이니, 석가 입멸 후 1,500년 후부터 시작되는 말법시대도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불교의 도통 맥이 끊어지고 말법시대입니다.

석가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아들인 라훌라와 수석제자인 가섭과 군도발탄, 빈두타 등 4대성문에게 천상의 도술천을 손으로 가리 키며 중대한 선언을 했다.

"너희들은 내 법(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뒤 말법시대가 오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님의 도(道)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했다. - 미륵 상생경 -

말법의 이때에 그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케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것에서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케 하려는 것이니라. - 화엄경



미륵불은 석가불이 펼친 진리로서는 더이상 세상을 제도할 수 없는 말법시대에 오셔서  
중생들을 건져 이 지상에 융화낙원을 건설한다는 미래에 오시는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다.

아래에 인용하는 『월장경』은 6세기에 인도 사람인 나랜드 라야사(那 連提耶舍)」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말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설법한 것입니다.

나의 수명은 이제 얼마 길지 않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나의 제자들도 그리고 내가 설파하는 진리를 들어 준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나의 교리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멸망하고 만다.

우선 나의 사후 5백 년간(正法시대)은 올바르게 전도될 것이다.

그 후 1천 년간(像法시대) 동안만은 조금 시들어지나 그래도 교리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말법(末法)시대에는 크게 무너져서 열토당토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말법시대가 들어서게 되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해와 별의 운행이 일정치않아 온땅은 자주 진동하고 고약한 병(전염병, 괴질병)들이 잇달아 번지리라.

- 월장경 -

"그 때에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리니 이름을 '미륵' 이라 하리라." - 장하암전륜성왕경 -

말법(末法)시대에 들어서면... 큰 기근겁, 큰 질병겁, 큰 도병겁의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 시피하는데 이때에 **저 동방의 해중의 나라에서 미륵불이 강세(降世)하리라 !** -

장하암전륜성왕경 -

"이곳의 이름은 도솔천이다.

이 하늘 도솔천의 천주님은 ‘미륵’ 이라 부르니 네가 마땅히 귀의할지니라." - 미륵 상.하생경 -

\***미륵**(彌勒)의 뜻 : 가득할 미, 굴레 륵, 테두리 륵.

미륵불은 무궁한 조화도법으로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시고 말법시대(가을개벽기)에  
지상에 강세하시어 중생들을 성숙시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화엄경』과 『미륵경』 등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미륵 부처님의 강림목적과 구원의  
스케일은

이제까지의 기성종교와 같이 분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성숙케 하여 보편적인 세계구원에  
최종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야. 너는 수음(樹陰)속에 깊이 앉아 남의 자질(子姪)를 유인하여  
부모의 윤기와 음양을 끊게하니 너의 도가 천하에 퍼진다면 사람의 종자나 남겠느냐.  
종자 없애는 성인이나? 네가 국가를 아느냐, 선령을 아느냐 중생을 아느냐.

道典 10:40

사람이란 살아서 옳은 일을 하고 복을 누려야 옳거늘, 죽어서 극락세계로 간다는  
불가佛家の 그릇된 가르침을 믿고 일생을 홀로 사는 것은 천리를 거스리는 일이니라.

道典 2:8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나를 보고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원효대사가[미륵상생경]을 주석하여 상제님의 강세소식을 알렸다면  
그의 아들 설총은 용화세존이 오시는 모습과 시기를 다음과 같이 뚜렷히 전해주고있다.

## 설총이 전한 미륵불 강세소식 (설총결)



설총은 신라 경덕왕 때의 대학자다. 원효대사의 아들.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다.

신라 10현(十賢)의 한 사람이며 강수, 최치원과 함께 신라의 삼문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불교사상에 정통하여 미륵불 강세소식에 대하여 놀라울만큼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 미륵불은 조선말기에 출세하신다

한양의 운수가 끝날 무렵(조선말) 용화세존이 말대에 오시리라.

금강산에 새 기운이 서려 있으니,

상서로운 청룡 백호가 굽이굽이 응해 있도다.

일만 이천 도통 군자를 출현시킬 새 문명의 꽃이여!

서기 넘치는 영봉에 그 운기 새롭구나.

漢陽之運 過去際에 熔化世尊 末代來라.

金剛山上大石立하니 一龍萬處次第應이라.

一萬二千文明化에 瑞氣靈峰運氣新이라.

### ■ 미륵존불은 여자 성씨로 오신다

인류 姓氏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느니라. 이는 천도의 섭리가 본래 그런 까닭이니라.

根於女姓成女 天道固然萬古心이라.

\*여자 성씨: 姜氏. 安氏

## ■ 미륵불은 100년 전에 오시어 천지공사를 집행하신다

백년 전에 오시어 백년 후의 일을 집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이  
소울음소리는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百年後事百年前하니 先耳牛聲道不通이라.

## ■ 후천낙원문명 세계의 중심은 간방의 태전이다

良方(한반도)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라.  
세계만국이(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하리라.

良地太田龍華園이라 三十六宮皆朝恩이라.

## ■ 뒤에 믿는 자들의 신앙자세는 극히 게으르다

먼저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급했건만 늦게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이그리 더딘고. 남은 개벽시간 방촌에 불과한데 게으른 신앙의 발걸음은 어찌할 것인가.

前步至急後步緩하니 時劃方寸緩步何리요.

## ■ 인도(人道)는 끊어지고 창생들은 제 죄로 다 죽는다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음이여 군사부의 도는 다 어디갔는고

예절도 의리도 없이 인류의 도가 다 끊어졌도다.

아, 가련토다 창생들이여 ! 모두 제 죄로 멸망당하는구나 !

背恩亡德無義兮여 君師之道何處歸오 無禮無義人道絶하니 可憐蒼生自盡滅이라.



그러나 말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다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진리의 핵심이 가리워지고 왜곡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전해주고 있는 인류의 미래모습도 기존의 여러 예언과 마찬가지로

천지일월의 대변국, 질병, 환경파괴, 인간의 도덕적 타락 등 대환난의 온갖 양상이 말법시대에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 전하는 구원의 소식과 석가모니 부처가 제시한 인류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불이요, 구원의 부처요, 희망의 부처인 미륵부처님의 출세 소식이다.



말법시대가 극에 달하면, 미륵부처님이 지상에 내려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불교 구원관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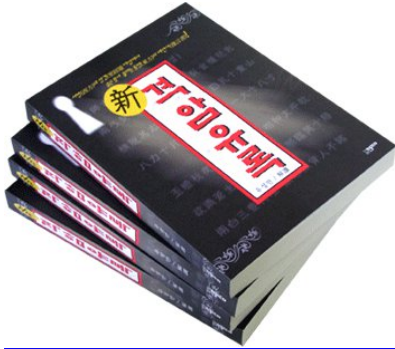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소승(小乘)이나 대승(大乘), 남전(南傳)이나 북전(北傳) 할 것 없이  
모든 종파의 구별을 초월해서 전하는 불교 구원관의 최종 결론이다.

확실한 것은 불가의 생명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는 말법시대에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 격암 남사고 선생이 전하는 **미륵불** 강세소식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 격암 남사고(1509~1571년, 격암유록 저자)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으로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는데 그역시 말하기를..

석가 입멸 후 약 3천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강세하시는데 그는 미륵이 출세하더라도 기성종교의 맹신적 묵은 관념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깨치는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 ■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修道)하는 승려들이여! 미륵세존(彌勒世尊)을 고대하라.

석가(釋迦)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삼천년의 운수로 자신의 도(道)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하였도다...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入山修道念佛님네 彌勒世尊苦待치만 釋迦之運去不來로 한번가고 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豫言 當末下生彌勒佛을 ...

彌勒佛이 出現컨만 儒佛仙이 腐敗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 ■ 사는길과 죽는길이 이것이다

나를 살리는건 수도(修道)이고 죽이는건 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길을 걷는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萬物之靈 失倫獸從者必死

만물지영 실륜수종자필사

## ■ 세계를 구원할 생명의 도(道)는 어디에

어떻게 깨치지 못하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何不覺而亂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冤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천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소리**가 있는곳을 찾아드소.

千鷄之中有一鳳에 어느聖이 眞聖인고 眞聖一人알라거든 牛聲入中차자들소

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알라거든 우성입중차자들소

영웅호걸 현인군자 대관대작 부귀자는 도매금에 넘어가리니 아래에서 위로 구원이 미치는 이치로서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英雄豪傑賢人君子 大官大爵富貴者야 都賣金에 넘어가리

영웅호걸현인군자 대관대작부귀자 도매금

自下達上理致로써 牛鳴者가 先來로다

## ■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작은 동북 간방(艮方)의 한반도에서

천하의 문명이 간방(艮方)에서 시작하니 조선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무극(無極)의 도라.

天下文明始於艮 禮義東方湖南 人王四維全羅道 道通天地無形外

천하문명시어간 예의동방호남 인왕사유전라도 도통천지무형외

## ■ 사람살리는 인류구원의 극비는 해인(海印)이다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비참한 운수로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위이화로 늙은자가 소년되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도 살려내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 이로다.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用之往來하며 無爲理化自然으로

도산이래해인용사 임의용지왕래 무위이화자연

白髮老軀無用者가 仙風道骨更少年에 不老不衰永春化

백발노구무용자 선평도골갱소년 불노불쇠영춘화

病人骨髓不具者 死者回春更生하니 不可思議海印일세

병인골수불구자 사자회춘갱생 불가사의해인

불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륵부처님을 석가부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다만 과거에 불제자들이 석가부처의 가르침에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교화의 방편일 뿐이다.

남사고는 미륵부처님을 종불(宗佛), 즉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처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륵불의 정체를 제대로 밝힌 것이다.

## 조선말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새 문명을 여시는 구원의 부처, **미륵**

미륵부처는 서있는 입상의 부처가 많다.

아래 사진은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상



미륵불은 석가모니의 제자가 아니다

많은 불교 신자들이 기존의 그릇된 상식에 사로잡혀,  
바바리의 제자였던 수행승미륵은 석가여래의 제자로서 56억 7천  
만년 뒤에  
미륵불로 출세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최고(最古)의 경전인 『숫타니파타』 마지막 장인  
「피안도품(彼岸道品)」

에도 바바리의 16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행승 미륵이 미래불이 된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팔리어 연구의 권위자인 리스 데이비스(Rys Davis)는 미  
래불인 미륵불은

수행승 미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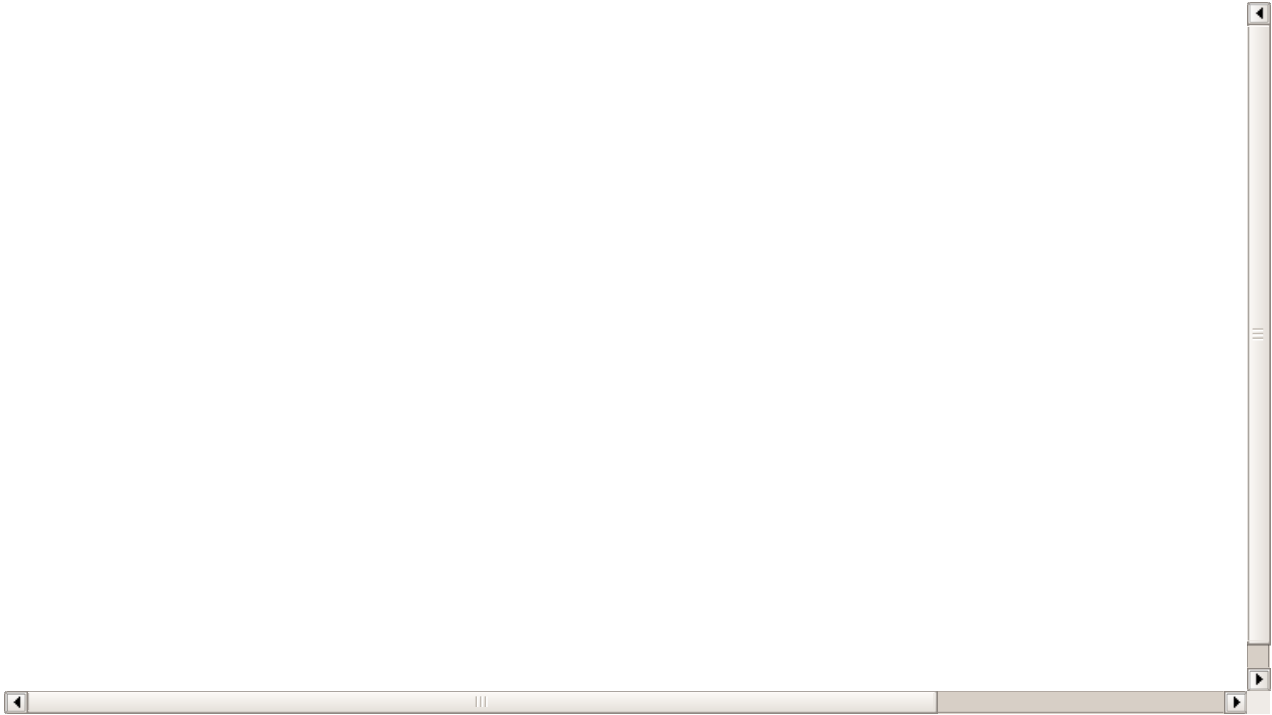
미륵은 도솔천의 천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석가를 내려보낸 분이다.

우리나라에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은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이다.

진표율사는 미륵신앙의 중심도장으로 모악산 금산사, 금강산 발연사, 속리산 법주사를 확장 창건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곳곳에 미륵불 신앙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불교의 구원관의 결론 -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을 따르라. 입니다.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나를 보고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무료 서적 기증 안내](#)  클릭

[댓글](#) [307](#) [카카오톡](#) [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05

상제관(04) - 유교의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乎艮

---



## 유교의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 乎艮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 유교의 사명과 결론 - 제출호진 齊出乎震 / 성언호간 成言乎艮

---

공자 [孔子 BC 552~BC 479]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유교(儒敎)의 개조(開祖).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

공자(孔子)라고 할 때의 <자(子)>는 존칭이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주역에서 개벽기에 인간구원의 최종적인 해답이 나오는 곳은  
간방(지구의 동북방)의 나라에서 우주의 절대자의 말씀이 이루어 진다고 했다.

成言乎艮 = 하나님의 말씀(言) 이 열매 맺는곳.

간방 땅이 어딴니까 ? 바로 이 지구의 동북방, 대한민국 땅입니다.

-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以 所成始也일세曰 成言乎艮 이라! - 주역 설괘전 -

역(易)에서 간방 艮方은 동북방인 한반도를 말한다. 艮은 작지만 모든 이치를 담고있는 핵, 씨, 열매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구원을 위해 동북 간방인 한반도로 강세 하신것이다.

- 제출호진(帝出乎震) - 상제님께서 진방(동방)에서 출세 하시느니라. - 주역 계사전 一

진震은 동방을 상징하는 괘로써 제출호진에는 개벽을 주재하시는 참하나님이신 상제님은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뜻이다.

- 당기지일(當基之日.360日): 장차 1년의 날(日) 수는 360일이 된다. - 주역 계사전 -

공자는 가을개벽 후에는 지구의 공전주기가 **현재의** 365일(1년)에서 360일로 바뀐다고 까지 밝혔다.

이는 공자께서 주역을 통달하여 우주의 가을개벽 시간대가 도래한다는것을 밝혀낸 것이다.



##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

### 유교의 상제문화를 찾아서

원시 유교에서 섬긴 하늘은 자연의 하늘개념(天)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에게 직접 천명을 내리는  
인격적인 하늘(上帝天)로서 상제(上帝)님을 섬긴 것이다.

처음 중국의 상제문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신교문화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계신 하늘의 최고신 하느님 개념을 갖고 하늘에 제사 드리는 국가 제례사가 정립된다.

그리고 중국의 당송대로 내려오면서, 옥황과 상제가 통합되어, 옥황상제는 천상 신명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최상위에 있는 유일한 지존의 존재를 일컫는 말로 굳어진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조선후기 대실학자로 천리와 인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대 유교문화에서 섬겨온 유교의 본질인 상제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주자학, 양명학, 서학 등 다양한 사조(思潮)를 집대성하여 방대한 사상체계를 구축한 시대의 대학자였다.

다산이 주장한 학설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대목은 ‘상제문화(上帝文化)’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점이다.

다산은 성리학의 관념적인 천(天)개념을 비판하며 인격적 존재로서 상제님을 얘기하였다.

다산 철학의 출발점이며,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근거로서 비인격적인 이(理)와 기(氣) 대신에 인격적인 천(天), 즉 하느님(상제)을 세우는 일이었다.

**상제님**이란 누구신가?

상제上帝를 하늘(天)이라 이르는 것은 마치 국왕을 나라 라고 하는것과 같다. -여유당전서-

"하늘의 주재자가 하느님(상제)이다." 하느님(상제)을 하늘(천)이라고 하는 점은  
마치 나랏님(왕)을 나라(國)라고 호칭하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이다.

단순히 저푸르른 허공 하늘을 가리켜 상제라 하는것은 아니다. -춘추고징-

"군자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여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께서 조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君子 處暗室之中 戰戰慄慄 不敢爲惡 知其有上帝臨女也. 『중용자잠中庸自箴』

다산은 한때 서학 서적을 읽고 천주교에 심취하여 전도까지 한 일이 있었으나 조상을 우상이라 여기고  
신주를 불태우는 서교의 행위에 분노하여 신앙을 바로 버려 버렸다.

## 환단고기에 나오는 상제

"도지대원(道之大原)이 출어삼신야(出於三神也)"

도의 큰 근원이 무형의 하늘이 아닌 하늘의 주재자 상제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 주자가 말하는 상제

"주재로써 제(帝)를 말하는데 누가 주재를 하시냐는 물음에 스스로 맡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  
능히 언어로 다말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자어류 권68]

"지금 사람들은 다만 주재 라는 말로써 천제(天帝)를 설명하려 하면서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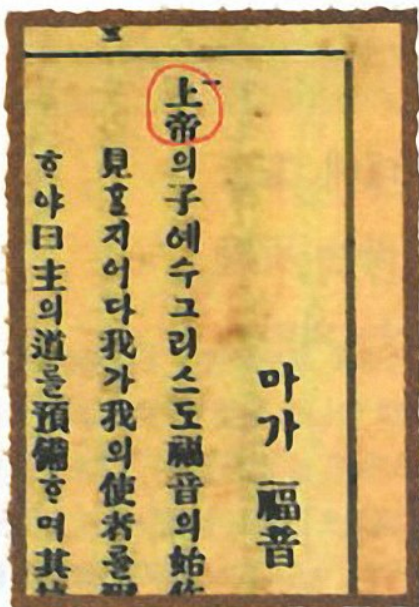
하늘의 주재자(天帝)가 세간에서 이르는 옥황대제(玉皇大帝)와 같다...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다." [주자어류: 권79]

여기서 우리는 "하늘(천)의 주재자가 하느님(상제)이다"라는 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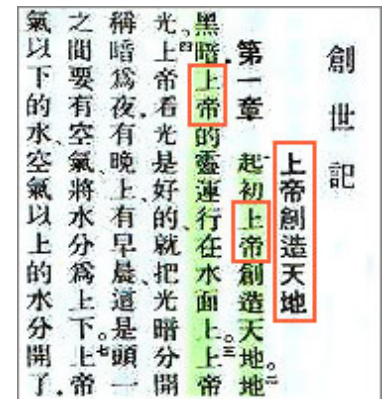
중국에 천주교를 전파하고, 서양에는 동양의 유교,도교를 전하여 **천주가 곧 상제라고 말한** 마테오 리치 신부는

〈**천주실의**〉 서문에서 "나라에도주가 있는데 천지에 홀로 계신 주가 없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 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 보면 '상제의 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 '상제'를 '천주'라 했다. 상제관은 다신 문화의 신관이며 상제는 우주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주신이란 뜻이다.

하느님(상제)은 세계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지위에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황제가 상제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중국성경 창세기 부분  
의 한 대목

중국인들은 하늘에는 상띠(上帝),  
땅에는 황띠(皇帝)가 계신다 하였다.

이마두 신부는 성경번역시 서양의 God를  
**上帝**라 번역했다



이상에서 살피본바와 같이 상제는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써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재자를 말한다.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는 존재요, 덕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천명天命이 나오는 근원처임을 알 수 있다.



# 유교경전에서 찾아본 상제문화

## 1. 시경(詩經)

시경은 상나라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다.

維此文王이 小心翼翼하사 昭事上帝하사 聿懷多福하시니라.(大雅, 大明)

문왕께서 삼가고 조심하여 **상제님**을 밝게 섬기고 많은 복을 누리시네.

皇矣上帝 臨下有赫하사 監觀 四方하사 救民之莫 하시니라(大雅.皇矣)

위대하신 **상제님**께서 위엄있게 땅위에 임하시어 세상을 살펴 보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 보시네.

## 2. 서경(書經)

서경의 요전(堯典)에 '순이 왕위에 오른뒤 제일 먼저 상제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경의 상제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추려서 살펴 보기로 하자.

惟聞汝衆言이나 夏氏有罪어늘 畏上帝라 不敢不正이니라(서경, 湯書)

나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으나 하나라의 임금의 죄가 있거늘

나는 **상제**를 두려워 하는지라. 감히 바로잡지 아니치 못하노라.

## 3. 예기 (禮記)

예기에서 언급되는 상제에 관한 내용은 책의 특성상 주로 제사와 관계 되어 있다.

天子將出할새 類于上帝하며 宣乎社라.(王制)

천자가 장차 순수의 길을 떠나려할 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땅에게 제사를 지낸다.

是月也에 天子乃以元日로 祈穀于上帝라.(月令)

이달에 천자는 원일에 상제께 오곡의 풍양을 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유교에서 상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공경이 있었으며  
특히 상제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상제님 강세의 땅, 동북 간방

공자(孔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간방(艮方)에서 모든 말씀의 꿈을  
이루실 것을 전하였나니

“동북 간방은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니라.

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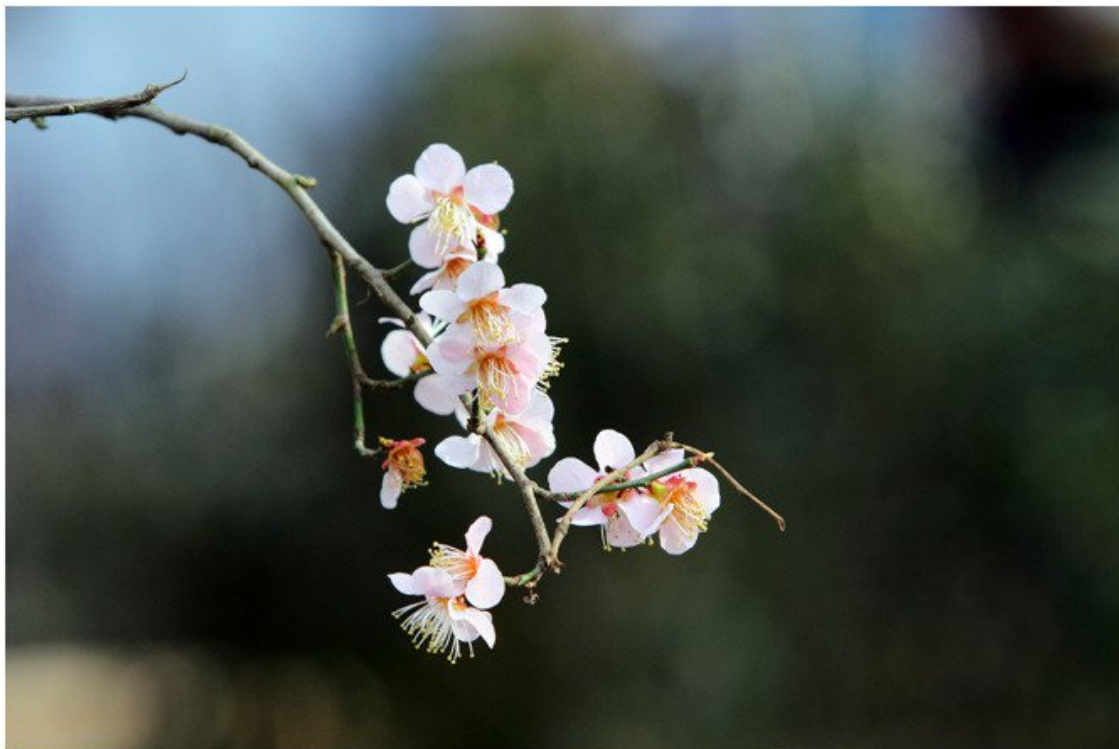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세계를 바라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一心) 경계에 머물면 상제님을 뵈올 수 있느니라.”

“통치자 하느님 제(帝)는 우주의 창조원리인 리(理)를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주재 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玉皇大帝)와 같나니 ...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도다.” 하니라.

증산도 道典 1:5

👉 유교의 구원관의 결론 - 성언호간(成言乎艮)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곳은 간방(동북방)땅 한반도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클릭**



# 06

상제관(05)-도교의 결론-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

## 도교의 결론 - 대라천에 계시는 옥황상제님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 도교의 대라천 천상세계와 상제님 소식



## 도(道)의 주재자 상제님

동방에서는 우주 삼계(天·地·人)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道)라 하고, 이 도의 ‘주재자 하느님’을 제(帝) 또는 상제(上帝)라 불러 오니라.

옛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위대하신 상제(上帝)님이 아래 세상을 환히 비추어 보시사  
천하사방(天下四方)을 두루 살피시어 만백성이 안정하기를 구하시도다.” 하니라.

일찍이 노자(老子)가 말하기를 “도는 텅 빔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노라.

상제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도다!” 하여 상제님이 실재하심을 전하였고

또한 장자(莊子)는

“진짜로 우주의 주재자(真宰)는 계신 모양 같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기는 워낙 어렵구나!  
그분의 행하심을 내가 예전부터 믿어 온 바이지만 상제님의 형모는 뵈 수 없더라.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상을 감추시는 것일까?” 하니라.

도교에서는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고 기도하였나니,  
우리 한민족은 고래(古來)로 상제님께 제사를 드려 오니라.

증산도 道典 1:4

도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나면, 공자처럼 이치를 통하고 석가처럼 좌선을 하여 심법이 밝혀져서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천지의 신도神道를 크게 통해 몸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 신도 세계를 보고 내려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면, 도교에서는 천상의 최상층에 상제님이 계시는 대라천을 말합니다.

이 우주는 동서남북에 8천씩 32천의 복합적인 다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최상천이 있는데, 동서남북의 여러 하늘을 벌려 봤다 해서 큰 대 자, 벌릴 라 자를 써서 대라천이라고 합니다.

이 대라천에 대해 선가의 8대 신선 가운데 하나인 당나라 때의 여동빈은

“옥황상제께서 사시는 곳은 삼천대천세계의 천종天宗(하늘의 종주)이니 영원히 물러서는 법이 없고 견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다. 그러므로 대라라고 한다.”

(呂純陽曰: 玉帝所居, 爲三千大千世界天宗, 永無退轉, 至高無比, 故云大羅.)

다시 말해서 대라천은 삼계의 모든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 즉 하늘에서 가장 높은 최상의 하늘을 말합니다.

이 대라천의 수도[현도玄都]가 바로 옥경玉京이며 그 아래에 삼십이천이 있고 각 하늘에는 천주들이 있습니다,

즉, 하늘은 총 33천이 있는데 그 최상층(33天) 하늘에 상제님이 임어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옥황상제님이 그 대라천에 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즉 대라천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으로서 온 하늘의 종주宗主이며 그 어느 하늘과도 비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므로 대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 도교 경전에 등장하는 옥황상제에 대한 내용

"옥제(玉帝)는 삼계(三界),시방(十方),사생(四生),육도(六道)를 총괄적으로 주재한다"

도장경(道藏經)

"옥황은 제천지주 諸天之主요, 만천지존 萬天之尊으로 우주의 일체를 주재하고 권위가 끝이 없다"

옥황본행집경(玉皇本行集經)

도교에서 모시는 옥황상제는 도의 최고 관념 지고신(至高神)으로 모시며, 유일 최고신의 지배하에 몇 단계를 이루고 있는 다신이 신앙된다. 이는 우리민족의 신교문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중국 민간 각지에 수많은 옥황묘, 옥황관 등을 건립하여 옥황상제를 받들었다.

그리고 각 도관(道觀)마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태산의 옥황전

중국에서 천하제일산으로 받드는 태산의 최고봉의 명칭이

옥황정(玉皇頂)인데 이곳에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옥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자가 전한 도(道)의 생명자리



노자,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본명은 이이(李耳)이며

춘추시대 (기원전 6세기) 초(楚)나라 사람이다.

도교의 도맥은 육신을 가지고 장생불사하는 신선도맥 이다.

도덕경 道德經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천지의 근원적 조화세계[無]로부터 어떠한 생성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도덕경』 42장을 보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도(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음양)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고

텅 빈 가운데 기를 휘저어 조화를 이룬다. 〈道德經 42장〉

여기서 변화의 질서인 도(道)는 무(無) 또는 무극(無極)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조화세계의 경계를 흔히 텅빔, 즉 ‘허(虛)’ 라는 다른 말로 나타낸다.

이는 천지와 천상의 신명계, 우리 인류가 태초에 생겨나기 전의 바탕자리이다.

그런데 이 허(虛)하고 무(無)한 천지 조화의 극치경계[無極]는

그 자체에 내재된 자연이법[理]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인해 스스로 발동(動)한다.

그리하여 무극의 혼돈 속에서 통일의 조화체인 ‘태극수(太極水)’가 화하면서  
변화의 질서(음양)가 열려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조화 생명수로부터 음양[坎離]운동이 일어나고,  
이 음양 두 기운[水·火]은 태극수가 생성된 바탕인 중성생명[沖氣]의 조화작용으로 인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킨다.

천지가 변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일음일양(一陰一陽)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하는 중(中)의 조화작용 때문이다.

즉, 천지만물은 무극無極 → 태극 太極 → 음양 陰陽 조화작용을 거쳐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가 만물을 낳을 때 삼단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열린 이 우주세계가 변화의 성숙(통일)운동을 하는 전과정도 3단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주자체의 조화성(調和性)인 중성생명[土氣]이 대자연의 변화를 끌고 가는 조화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도의 운동이 직선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변화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시간대의 일정한 변화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며 복귀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순환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창조운동이다." 〈道德經 40장〉

"모든 것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가져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는데  
나는 그것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뿐. 그들은 자라고 자라서 각기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하느님은 바로 도이며 도는 영원하니 몸은 죽더라도 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道德經 16장〉

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의 길은 무엇인가?

그 관건은 천지의 도와 덕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  
노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대국적인 우주의 변화문제를 풀 수 있는 만고의 법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道德經 25장〉

여기서 ‘도법자연(道法自然)’의 뜻은, 우주변화의 원리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 역시 스스로 그러한 천지의 창조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노장(老莊)의 가르침에서는 스스로 그러한[自然之道: 無爲]  
우주의 자연적 변화질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주질서의 주재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한두 마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우주의 질서 도(道: 변화의 길)와, 그 질서를 개벽해 모든 생명을 새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도의 주재자(主宰者)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전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도는 비어있음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그윽하여라! 온갖 것의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얹힘을 푸는구나.

그 빛이 튀쳐남이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는도다.  
맑고 맑구나! 있는 것 같도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네.

상제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네." 〈道德經 4장〉

후대에 도교의 우주론이 정립되면서, 우주에는 동서남북 사방위(四方位)에 각각 팔천(八天)이 열려 있어 도합 33천의 세계가 벌여져 있다고 여겨져왔다.

도가의 경전인 『도장(道藏)』에서는 36천을 말하기도 한다.

이 33천의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이 바로 옥황상제(玉皇上帝)님이다.

도가의 도장경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못지않은 방대한 도교의 경전으로 수행을 통해 도통을 얻 이들이 천상의 신의 세계를 보고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우주에는 모두 36천의 세계가 있으며 우주 최고의 주재자는 대라천에 계신 무극지존(無極至尊)이다 라고 하였다.

대라천(大羅天)의 수도는 옥경(玉京), 옥황이라고 불렀다.

이 옥황에다 태고시절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를 합해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 호칭하는 것이다. -위서, 석노지-





**도교의 신앙 형태 역시 신교를 계승하고 있다.**

본래 신교는 태고시대로부터 북극성, 삼태성, 북두칠성이라는 하늘의 세 신성한 별들을 섬겨왔는데 도교에도 태일太一, 삼청三清, 칠성사상이 있다.

하늘의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중심별을 태일 또는 태을太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청(옥청, 상청, 태청)의 세 신은 도교의 근본이 되는 신으로

도교의 모든 행사에 반드시 모셔진다.

이는 한 분인 신(하나님)이 삼신으로 작용하여(一卽三, 三卽一), 만물의 생성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며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신교의 삼신관과 동일하다.

칠성 또한 도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조선 초기의 중신인 변계량卞季良(1369~1430)은 도교 사원인 소격전에서 기도를 올리면서  
상제님이 계신 북두칠성의 조화를 이렇게 찬양했다.

저 푸른 것이 하늘인데,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으나 북쪽하늘에 북두가 있기에  
상서로움과 재앙을 내릴 수 있사옵니다.

한편 명실상부한 ‘도교의 하나님이신 최고신’ 으로 가장 널리 모셔지는 분은 천상 옥경의 옥황상제  
님’ 이시다.

옥황상제님은 위계 조직을 갖춘 여러 천신들을 지휘하며 인간과 신들을 다스리신다.

천신들은 인간 세상에서와 같이 해마다 자신의 직무를 상제님께 보고하는데,  
그 업적에 따라서 상벌과 위계가 정해진다.

인간의 운명도 신들이 보고한 선악의 공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개벽실제상황 3부 p260~262-



## 장자의 도세계의 근원자리

동양의 석학 린위탕(林語堂, 1895~1976)은 장자를 ‘중국의 니체’ 라고 불렀다.  
당의 현종(玄宗)은, 생사의 애육에 묶여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미로(迷路)에서 나뿔구는 세인들에게, 언어의 한계성을 쾌연히 뛰어넘고 우주존재의 비밀과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자세를 전해 준 장자를 사모한 나머지,  
그를 남화진인(南華真人)이라 추앙하였다.  
때문에 『장자』를 『남화진경(南華真經)』 이라고도 한다.

## 장자의 도세계의 근원자리

도道는 스스로 우주만물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도 스스로 있어왔소.  
하늘과 땅도 지어냈소.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 神鬼神帝 生天生地 存太極之先而不爲高)

장자가 말한 도의 근원자리는 우주조화의 본원자리를 말한다.  
이자리가 바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조화세계 자리인 무극 자리다.

장자는, 소위 종교가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해 주지 못한 채,

대부분 말꼬리에 매달려 온갖 잡설로 비열한 논쟁만 일삼고 있음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  
물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라.  
그대 마음의 지각을 벗어난다면, 신도 홀연히 찾아와 머물리라.  
하물며 사람은 말해 무엇하리요.

이는 만물과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성왕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의 수신이 이 길에서 머물렀고  
복희(伏羲)와 궤거도 이러한 도리를 한평생 실천했으니,  
어지러운 보통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莊子撰 「人間世」〉

장자는, 조화(造化)기운이 홀연히 와 머무는 이 도(道)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것(지식)이 많아도 장님과 귀머거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도는 파괴된다.  
도가 파괴되는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애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리라.

－ 莊子 「齊物論」 －

우리가 장자의 세계관에서 특히 주시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우주를, 우주질서를, 즉 도(道)를 주재하고 계신 인격신인 우주의 통치자가 천상에 존재한다’ 고 언급한  
사실이다.

우주에는 우주를 주재하는 인격적인 상제님이 계신다.

진정으로 우주의 주재자(上帝님)는 계신 듯 하지만

그 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는 워낙 어렵도다.

그 분의 행하심(역사의 창조작용)을 내가 예전부터 믿어온 바이지만  
상제님의 형모는 볼 수 없더라.

정情이 있으시어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체는 안 보이더라.

(若有眞帝 而特不得其朕 可行已信 而不見其形 有情而無形)

〈莊子「齊物論」〉

하늘(하늘의 주재자, 하느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  
즉 천명을 받은 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구절은  
오늘의 가을 대개벽기에 믿음의 길, 구도의 길을 걷는 이들이 특히 깊이 명심해 둘 말이다.

사람을 위해 일할 때 그를 위선으로 대하기는 쉬우나  
하늘(천제)을 위해 사역될 때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莊子「人間世」〉

요즈음 화두가 되고있는 세계 종말의 해답과 참된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장자의 이 주옥같은 언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대가 천지가正道(正道)로 운행하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궁한 조화 세계에서 노니는 자 된다면 무엇을 바랄 것이 있으리요.  
그리하여 지인(至人)은 자신[己]을 버리고,  
신인(神人)은 공(功) 없고, 성인(聖人)은 이름이 없음이라.

〈莊子「逍遙遊」〉

여기서 앞의 부분을 주의하여 다시 살펴보자.  
이것을 현실적인 우주 창조운동의 선·후천 시간원리로 말한다면,

증산도에서 전하고 있는 우주1년 순환주기론에서 주장하는 가을개벽이 일어나는 지축정립 대사건으로 천지가 완전히 정상적인 정도(正道) 변화운동을 시작하는 후천개벽의 세계성숙기에 살게 될 때, 인간의 삶은 궁극적인 보람을 찾게 된다는 소식이 된다.



## 열자가 전한 우주 창조관

### 우주탄생의 3단계 진행(개벽) 과정

아마 동양의 철인 가운데 열자, 장자만큼 입담이 좋은 이도 드물 것이다.

이들은 우주조화의 현묘지도를 은유와 상징이 담긴 실로 폭잡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우화형식을 빌어 전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철학적 내용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노자가 설파한 우주조화의 근원세계인 무(無)와 삼생만물(三生萬物)에 대한 소식보다 상세하게 우주 생성의 신비를 밝혀준 것이다.

"옛날 성인은 음양의 원리로 천지를 섭리하셨소.

대저 형체 있는 것들은 무형의 도에서 나온 것이오. 그러면 이 천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그러므로 태역(太易)이 있었고, 태초(太初)가 있었고, 태시(太始)가 있었고, 태소(太素)가 있었소.

태역은 아직 기(氣)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때이며,

태초는 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며,

태시란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

태소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이오.

기운과 형상과 성질이 갖추어져 서로 떠날 수 없으니 이를 혼룬(혼돈)이라 하오.

이것은 만물이 서로 혼합되어 서로 떠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요.

이 혼돈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따라가도 붙잡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태역(太易)이라 하오.

태역이란 본래 형상과 사물의 징조가 없는 거요.

태역이 변화하여 하나의 기운이 되고, 이것(一位)이 변화하여 7(7位)이 되고,

이는 다시 9수의 변화까지 전개되고, 이 9수 변화는 변화의 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오.

9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하여 1(우주생명인 氣의 통일상태, 一太極水)이 되니



1(一水)은 천지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시발점(통일의 완성이라는 뜻)이오.

맑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내려와 땅이 되며,  
그 두 기운이 합하여 사람이 된 것이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조화하여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  
오."

〈列子「天瑞篇」〉

열자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열자는 우주의 본체를 허무(虛無)로 보고 만물이 이 허무의 본체에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기가 점차 현저해져 가는 것을 ‘태역(太易)·태초(太初)·태시(太始)·태소(太素)’의 순서  
로 설명하였다.

즉, 형체있는 만물은 무형의 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천지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 발현 순서로 태역 → 태초 → 태시 → 태소가 있었다.

우주창조 전(前)	태역 (太易)	10 무극 (無極)
우주창조 전(前)	태초 (太初)	1 태극 (太極)
우주창조 전(前)	태시 (太始)	1 태극 (太極)
우주창조 후(後)	태소 (太素)	천지와 인간 화생 (化生)

〈요한복음〉에도 ‘태초’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엄밀하게는 태역의 조화신(神)의 생명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이 우주조화의 뿌리, 밑자리 되는 태역은 어떠한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

열자 탕문편(湯問篇)에서는 이를 ‘무극(無極)’이라 하였다.

그리고 만물생성의 구체적 시원인 태초는 태극을 말한다.

한편 열자는 태소로 기가 현저해지면서 음양이 나뉘어 천지가 되며  
음양이 화합하여 사람과 만물이 화생하는데, 이로부터 ‘윤회전생설(輪廻轉生說)’을 제창하여  
삶과 죽음이 본체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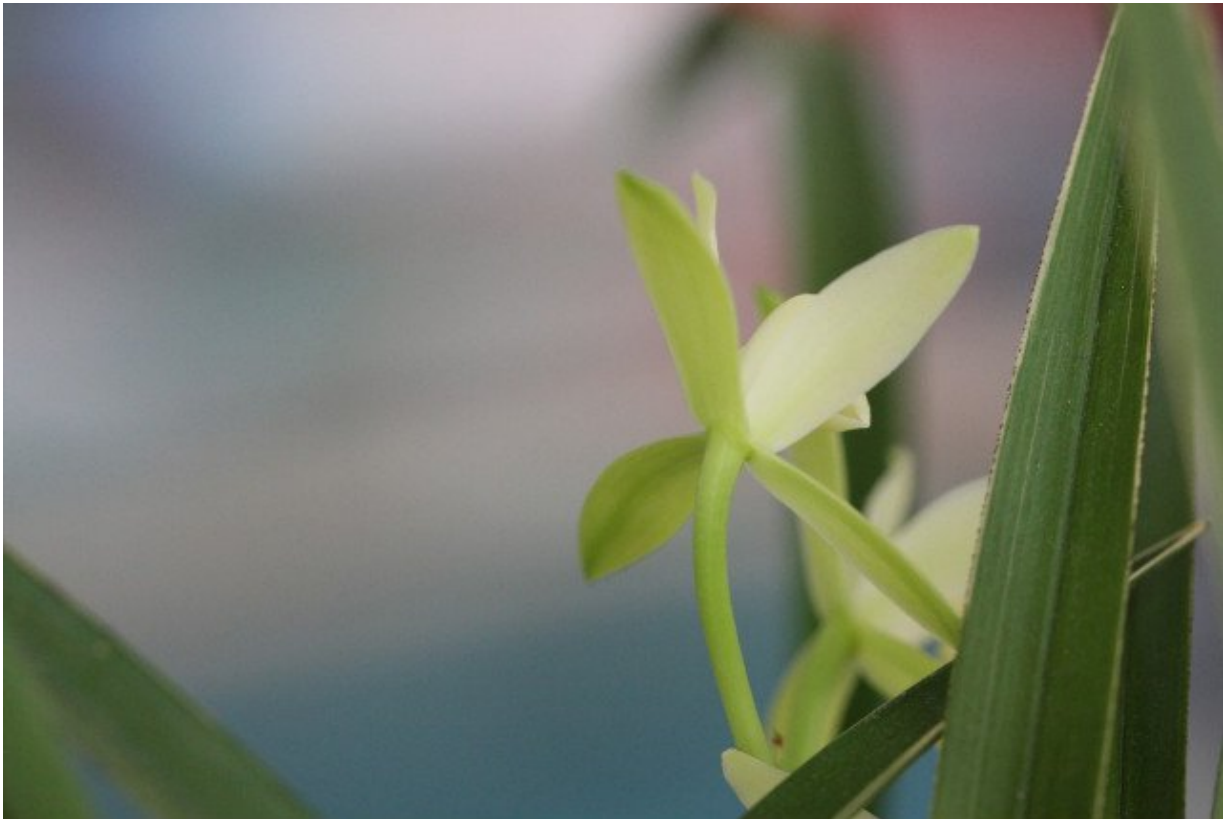
## 순환무궁하는 우주창조섭리

음양의 교류와 사계절의 순환도 이와 같으니,  
날지 못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은 순환하는 규칙이요.  
반복과 순환함은 그 끝이 없으며,  
독립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그 도가 없어지지 않는다오.  
〈列子「天瑞篇」〉

만물의 종말과 시작은 처음부터 그 극단이 없을 뿐이요.  
시초가 종말이 되기도 하고, 종말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우주의 기원(시원정신)을 쉽게 알 수 있으리오.  
〈列子「湯問篇」〉

인간과 만물은 처음 생겨나 이 우주의 시공간에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 죽음과 삶,  
탄생과 소멸이 서로 꼬리와 머리가 되어 영원히 순환하는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사문제도 천지의 생명창조의 변화정신으로 인해 우주 자연의 이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해 생명의 성숙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생명개벽이다.



## 옥황상제(玉皇上帝)님을 모신 사찰들

중국 땅에서 상제문화, 천자문화의 고향이요 심장부가 바로 산둥성입니다.

산둥성의 상징이 바로 태산인데, 그 태산 꼭대기에 상제님을 모시는 전각, 옥황전玉皇殿이 있습니다.

산둥성 태산

옥황전 玉皇殿



산정상에는 명나라때 세워졌다는 옥황전玉皇殿이 있다. 옥황대제를 모시고 있다.

그 옥황전으로 올라가려면 마지막 관문인 서신문西神門을 지나게 되는데,  
그 서신문을 통과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면 눈앞에 기절초풍할 장면이 펼쳐집니다.

왼쪽의 도교 사원인 벽하사碧霞祠 정문 앞에서 옥황전으로 향하는 첫 문 바로 위에 붉은 바탕에 노란 색  
으로  
네 글자가 쓰인 현판을 만나게 되면서 말입니다.

### 벽하사



그 네 글자가 무엇입니까? ‘자기동래 紫氣東來’ 입니다.  
자줏빛 자, 기운 기, 동녘 동, 올 래 자, 자(紫) 자는 자금성, 자미  
원이 뜻하듯



천자문화를 상징 합니다.

자기 동래란 천자 기운, 즉 천자 문화의 기운이 동방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동래’ 는 청나라가 시원한 심양의 고궁 봉황루, 서태후가 세운 이화원 등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노자가 함곡관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써준 문구라고 합니다.

도가의 경전인 『도장(道藏)』에서는 33천을 말하기도 한다.

이 33천의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이 바로 **옥황상제**(玉皇上帝)님이다.

도가의 도장경은 불교의 팔만대장경 못지않은 방대한 도교의 경전으로 수행을 통해 도통을 얻 이들이 천상의 신의 세계를 보고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우주에는 모두 36천의 세계가 있으며 우주 최고의 주재자는 대라천에 계신 **무극지존** (無極至尊)이다 라고 하였다.

대라천(大羅天)의 수도는 옥경(玉京), 옥황이라고 불렀다.

이 옥황에다 태고시절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를 합해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 호칭하는 것이다. [위서, 석노지](#)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07

상제관(06) - 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 □ 과 목적

---



## 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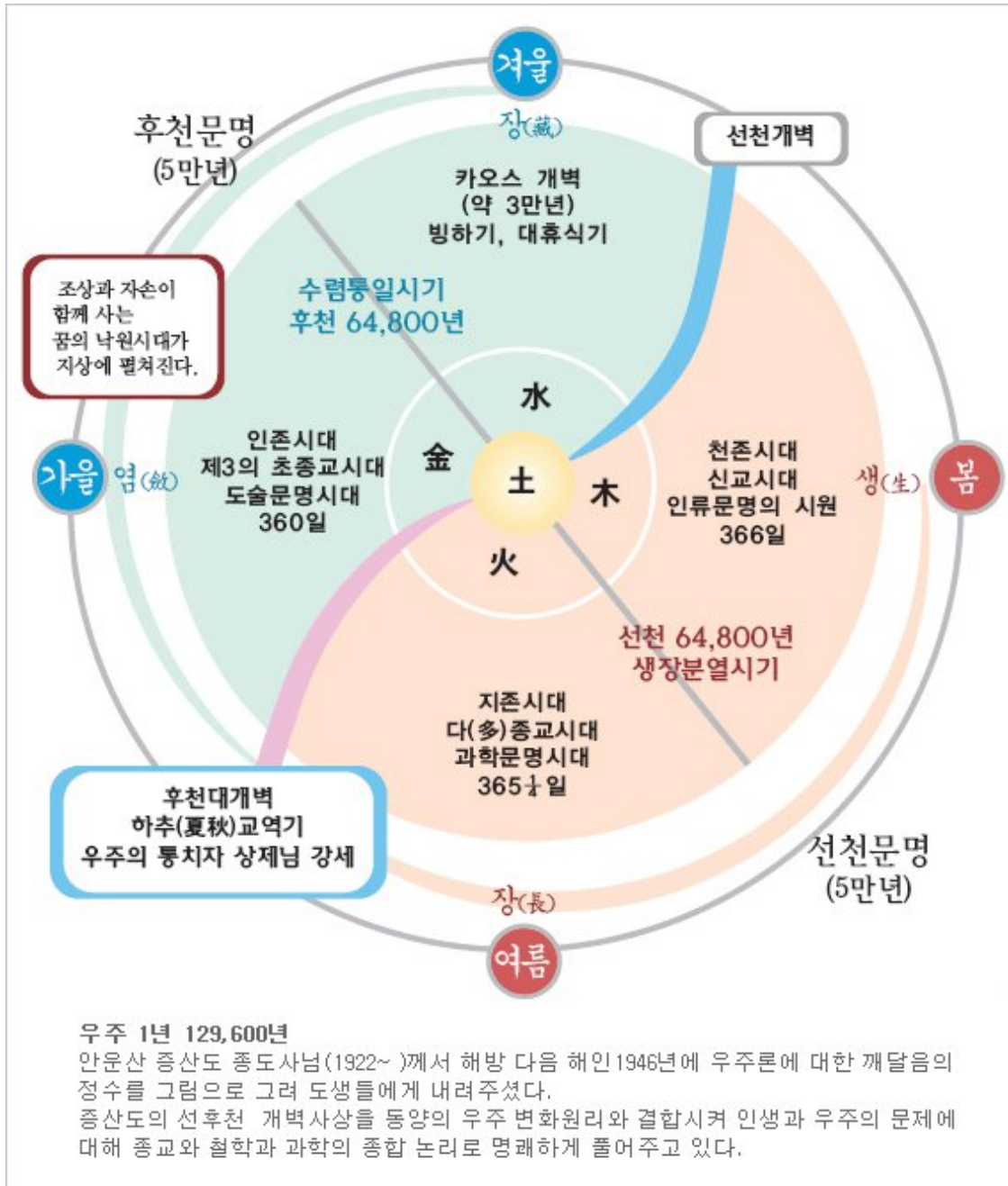
선천 유.불.선.기독교는 시대와 지역, 가르침의 전공분야를 달리해서 출현하여 중생들을 가르쳐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으로 부터 교화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의 여름철 시대의 성자들의 진리입니다.



## 선천 4대종교의 핵심사상과 목적

오행  종교구분	木  유교(儒道)	金  불교(佛道)	선도(仙道)	
			水  도교 / 동선(東仙)	기
도의 전공분야	유지범절(儒之凡節)	불지형체(佛之形體)	선지조화(仙之)	
우주 주재자 호칭 및	상제	미륵불	옥황	

구세주의 출현	성언호간 (成言乎艮)	(도솔천 천주님)	(천지조화의 주재신)	(7
목적(目的)	대동(對同)	극락(極樂)	태청(泰淸)	
교리강령	충서(忠恕) 존심양성 (尊心養性) 집중관일 (執中貫一)	자비(慈悲) 명심견성 (明心見性) 만법귀일 (萬法歸一)	감응(感應) 수심연성 (修心練性) 포원수일 (抱元守一)	
삼극 三極	오황극 (五皇極)	일태극(공) (一太極(空))	십무극 (十無極)	
삼위관 三位觀	무극/태극/황극	법신불/보신불/화신불	옥청/상청/태청	



선천세상	우주의 봄, 여름	상극의 구천지	분열 생장시대	타원궤도 1년 365¼ 일	성자시대	남근
후천세상	우주의 가을	상생의 신천지	통일 수렴시대	정원궤도 1년 360 일	성부시대	남녀

선천 우주의 봄	선천 우주의 여름	후천 우주의 가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
신성시대 시원,뿌리종교(신교)	성자시대 분열,줄기종교 (유불선,기독교)	성부시대 후천통일,열매진 가을 무극대도(증

우주의 4계절 시간도수를 발견한 동양의 성철(聖哲)들

우주시공의 3역변화	원역 原易 우주 겨울철	선천 생역生易 우주의 봄철	선천 장역長易 우주의 여름철	후천 우주!
4대 개벽시간대	카오스 개벽	소개벽	중개벽	I
발견자	김일부	당요	우순	
변화도수	375일	366일	365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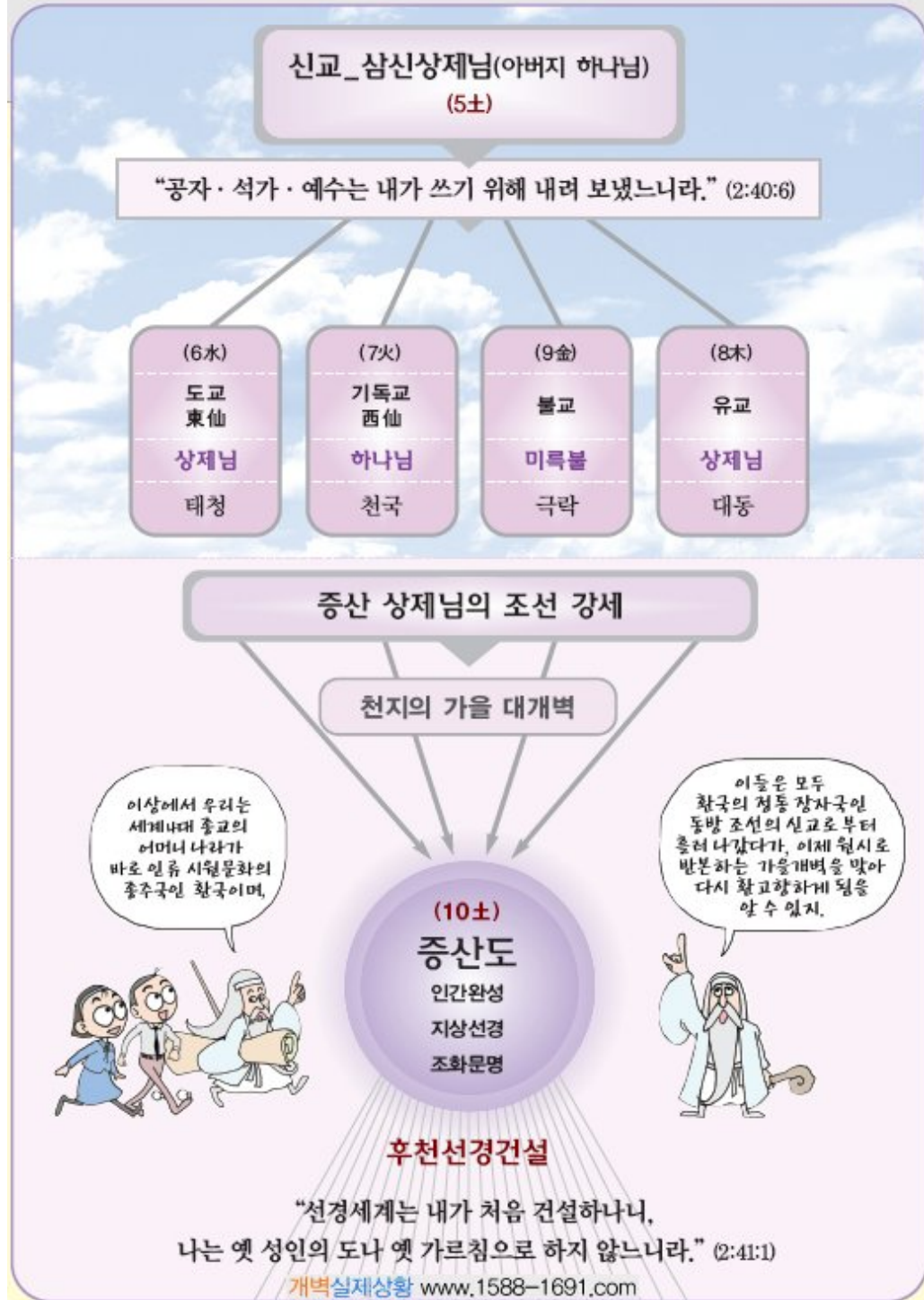
신교와 증산도

--	--

신교	증산도
<p>선천문화의 뿌리 종교</p> <p>조화, 교화, 치화의 <b>삼신일체의 道</b></p>	<p>선천문화의 열매의 道</p> <p>후천문화를 여는 <b>무극대도</b></p>
<p>삼신 상제님</p> <p>천상에서 성인들에게 조화/교화/치화의 道를 내려주시어 선천문명을 열고 발전 시킴</p>	<p>증산 상제님</p> <p>상제님께서 직접 지상에 강세하시 무극대도를 내려주시어 인류구원과 후천 지상 조화선경 문명을 건설</p>



# 신교의 열매, 증산도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불지형체(불도), 선지조화(선도), 유지범절(유도)의 3도를 통일 하느니라.

道典 4:8

동방에 대성인이 있으니 곧 동학이요 서방에 대성인이 있으니 곧 서학이라.  
이는 모두 창생을 교화하는 데 그 사명이 있느니라.  
東有大聖人하니 日東學이요 西有大聖人하니 日西學이라 都是教民化民이니라.

道典 5:347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하시니라.

道典 2:43

불지형체(佛之形體)하고 선지조화(仙之造化)하고 유지범절(儒之凡節)이니라.

불도佛道는 심법心法을 주장하고

선도仙道는 조화造化를 주장하고

유도儒道는 범절凡節을 주장하느니라.

道典 2:118

선천종교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천지가 가을 대개벽기에 다다르면

- 1, 대변국(대전쟁, 대환란, 대병겁, 천재지변, 지축정립)이 닥치게 되고,
- 2, 메시아가(성부 하나님=미륵부처=상제님) 지상에 오시고,

**대변국이 지나간 후에는**

- 3, 새 세상이 천국(기독교)=극락정토(불교)=대동세계(유교)=태청세계(도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가르침의 **총결론**은?

## 선천종교 가르침의 총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우주의 가을개벽기에인간으로 친히 강세하시어 우주의 상극질서를 바로잡고 인류를 건져 신천지를 열어주시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라 는 것이다

## 기독교

기독교는 철저한 유일신 문화다.

그 유일신이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실제 우주를 열어놓고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때는 세 위격의 하나님(Trinity in Unity)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셋이면서 하나다, 본래 하나였는데 셋이다.’ 라고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자의 가르침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둥글어 가는지를 모른다.  
그들의 진리에는 우주의 이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것을 걱정한 지난 세기의 깨어있는 이들이 기독교의 우주론을  
구성해보겠다고 고군분투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우주의 이법은 인간의 지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도 새로운 우주의 지상낙원 세계가  
앞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신구약 66권의 총결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 올라가 천국의 백보좌 앞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 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는 가을 대개벽이다.

요한이 보니 아버지 앞에서 예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더라고 했다.  
기독교의 인류 구원의 결론은 “나는 새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 한 말씀으로 결정지어진다.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  
그들은 이것을 ‘마지막 심판’ 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백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묵은 우주를 문 닫고  
새 하늘 새 땅을 여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 주신 새로운 우주질서 속에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의 구원 소식이다.

그러나 가을개벽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가을개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 진리의 결론은 다만,  
아버지 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 불교

○○

그러면 불교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은 무엇인가?

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자기 아들 라훌라와 4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의 도는 앞으로 정법, 상법, 말법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정법 시대에는 나의 도가 유지될 것이나 상법시대에는 왜곡되고,  
말법시대에 가면 열토당토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부처께서 오시니 너희는 지금 열반  
에 들지 말고, 그때에 미륵부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

「미륵경」

이것은 ‘지금의 나를 믿지 말라, 나의 법이 궁극이 아니다.  
앞으로 오시는 미륵님의 법을 받아 열반에 들라!’ 는 말이다.  
또 월장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석가불의 말법(末法)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달아 번지리라.  
「월장경」

이 구절을 보라.

앞서 말한 서양 기독교의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 는 내용과 상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불교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구의 순환 궤도가 바뀐다는 말이다.

사실 불가에서 전한 이러한 내용만 보아도

‘아, 이번에는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앞으로 이 우주에 큰 변혁이 온다, 우주의 질서가 바뀐다, 나의 법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 때는 도솔천의 하나님, 미륵부처님께서 오신다.’ 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다.

## 유교, 도교

그러면 이 우주질서의 틀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 깊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주역周易』 인데  
그 『주역』의 결론이 ‘성언호간(成言乎艮)’ 소식이다.

간(艮)은 동북지괘야(東北之卦也)니 만물지소성종이소성시야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고(故)로 왈 **성언호간**(成言乎艮)이라.

간은 동북방을 가리키는 괘이니,

만물의 끝과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성인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주역 「계사전」

이는 동북 간방(艮方)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대자연의 꿈이 성취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또 ‘**제출호진**(帝出乎震)이라, 하나님이 진방,

즉 동방에서 오신다.’ 고 했다.

한마디로 유교나 도교에서는 우주원리의 기본 틀은 알았다.

천지의 팔방위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 가운데

천지부모로 건곤이 있고, 건곤 천지부모를 대행하는

감리 일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천지의 팔방위에 장차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동방에서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동북방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도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印)’ 을 가지고 ‘**해 돋는 동방으로부터**(from the

East)’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印)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4)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상제님은 불교의 하나님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요,  
도교의 하나님이요, 유교의 하나님 아니신가.

더욱이 유교와 도교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렀다.  
도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대라천이고, 그 대라천에는  
천상의 수도 옥경이 있기 때문에 옥경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옥황(玉皇)’ 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유교와 그 이전 신교문화의 ‘상제’ 란 언어가 결합되어  
‘**옥황상제**’ 라고 부른 것이다.

다른 말로는 천황(天皇), 신황(神皇)이라고도 불렀다.  
신황은 우주 신들의 제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상제’ 로 불러야 한다.  
우주 절대자의 공식 호칭이 ‘**옥황상제**’ 이기 때문이다.

**상제님은 우주의 참하나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호칭 ‘상제’ 는 더 이상이 없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천상 보좌의 하나님이 바로 제(帝)다. 帝제는 **하나님 제帝** 자字 다.

증산도 종도사님 말씀중에서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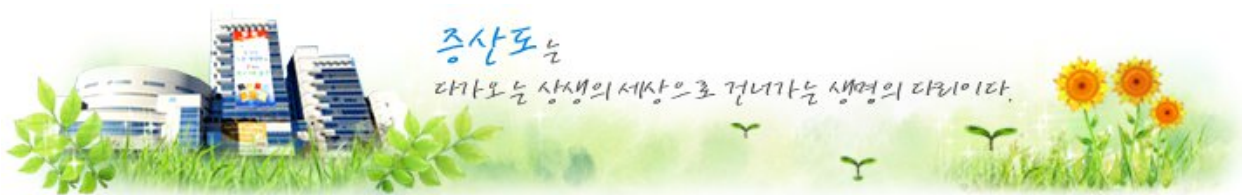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08

상제관(07)-증산도 甞山道란 무엇인가?

---

# 증산도 甞山道 란 무엇인가?



# 증산도 甌山道 란 ?

증산도는 증산 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인류 궁극의 진리다.

남과 나를 더불어 잘되게 하려는 상생相生의 가르침이요,

다가오는 가을개벽에서 못 생명을 살려내려는 구원과 생명의 대도大道이다.

증산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절대자 하나님이다.

대우주와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원한과 갈등에 찌든 묵은세상을 뜯어고치시고

인류가 새 세상으로 건너갈 생명의 길을 열고 구원의 가르침을 주셨다.

이 같은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가 가을개벽 넘어 상생相生과 복락福樂의 지상낙원을 건설해 나가는 진리,

그것이 증산도이다.

증산도 신앙을 통해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천지)가 돌아가는 이치,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참뜻,

우주(천지)와 인간의 관계에 눈뜨고 하늘 - 땅 - 자연 - 인간 - 神 이 하나되는 진정한 상생相生의 세상을 이루어간다.

나아가 자연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전쟁과 병란으로 세상을 덮는 가을개벽상황에서

나와 조상, 내 가족과 세상 사람을 살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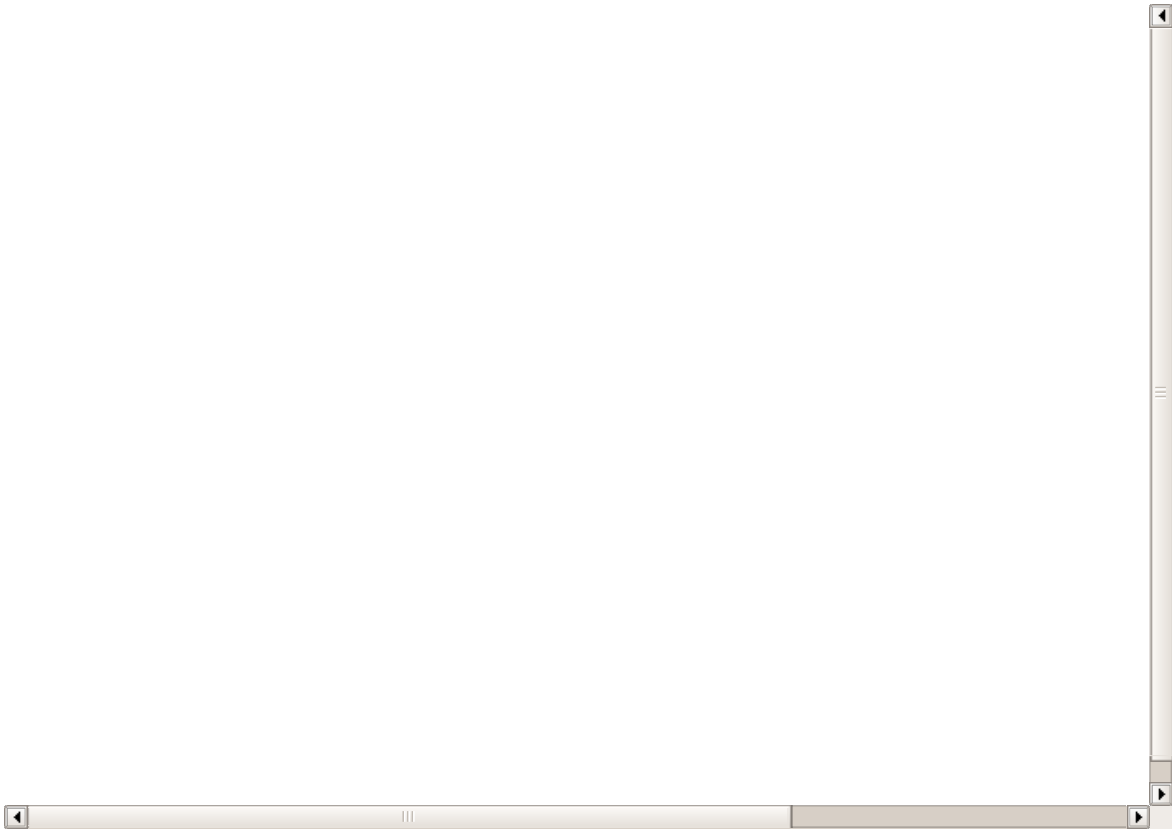






한민족의 **훈**, 증산도 -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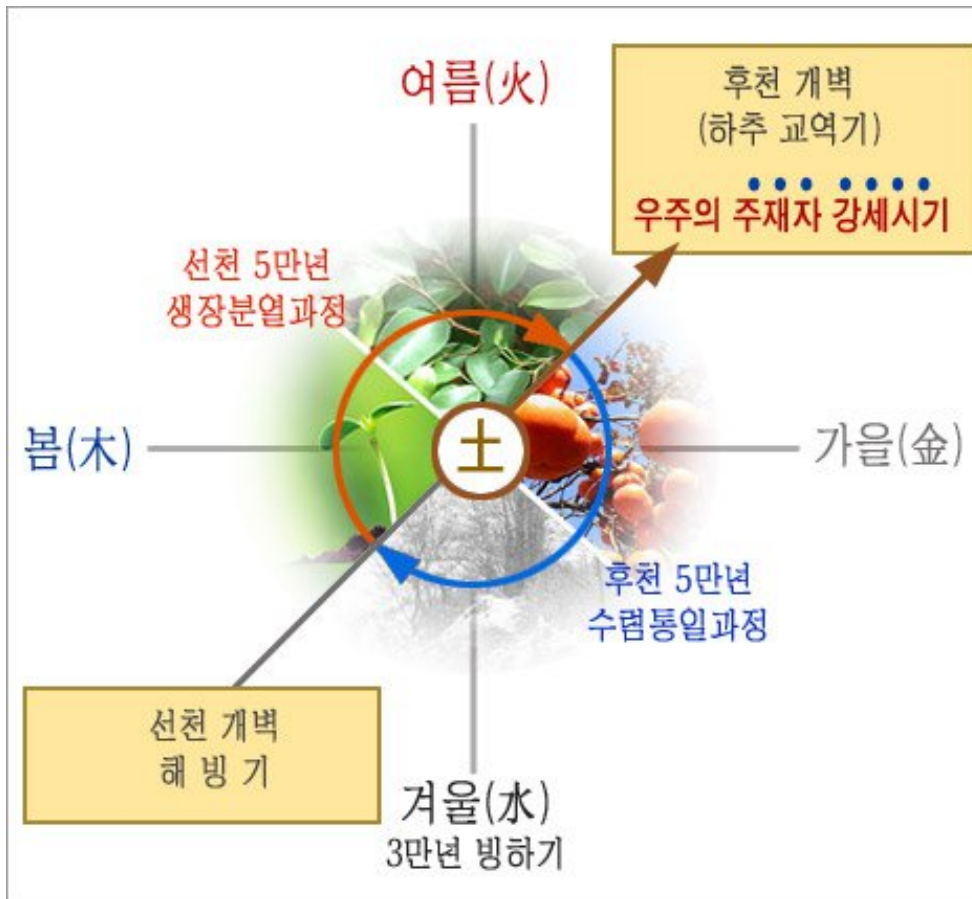
천리(天理)와 지리(地理)와 인사(人事)에 맞추어 오신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하나님)



## 우주 여름철 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 - 상제님 지상강세

우주의 선천 여름철 세상이(1년 365일 시대) 끝나고 후천 가을시대(1년 360일)가 도래하는 가을개벽을 눈앞에 두고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간역사에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원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증산도(甞山道)는 인류의 신문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을개벽소식과, 공자 석가 예수를 지상에 내려보내신  
 우주의 하나님이 동방의 한반도 땅에 다녀 가셨다! 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산도는 동서양 모든 종교의 성자들의 가르침과 동서고금의 철학과 사상에서 밝혀주지 못한

인생의 의미와 우주의 섭리, 그리고 현대문명의 최후의 결말과 새시대 새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 전하는 개벽소식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천지의 철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대자연의 변화현상을 밝힌 것이며,

대책없는 종말론과 말세론을 뛰어넘는 새문명의 비전과 **전인류의 희망을 담은** 소식입니다.

**증산도**는 울분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는 못창생들에게 곧 닥칠 가을개벽 환란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간들이 꿈꾸어온 상생의 낙원세계를 하늘이 아닌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새 시대를 여는 **참하나님의 새 진리**입니다.

**증산상제님(甌山上帝任) = 전 인류의 하나님**



지방신	알라신	제우스	반고	환인 환웅 단군	천조 대신	여호아	시바 비슈누 브라흐마
민 족	아랍	그리스	중국	한국	일본	유대족	인도

지금의 **증산도 제3변 도운**은 생사판단이 결정되는 진법(眞法)도운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참진리 참스승을 만나야만 나의 생명은 물론이며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줄을 잡고서 가을 후천선경세상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 인류의 새날을 여는 진리 증산도 甌山道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 2:40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이라!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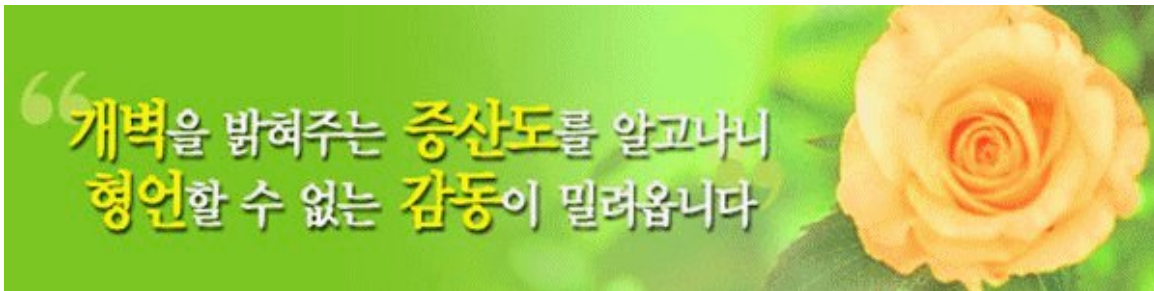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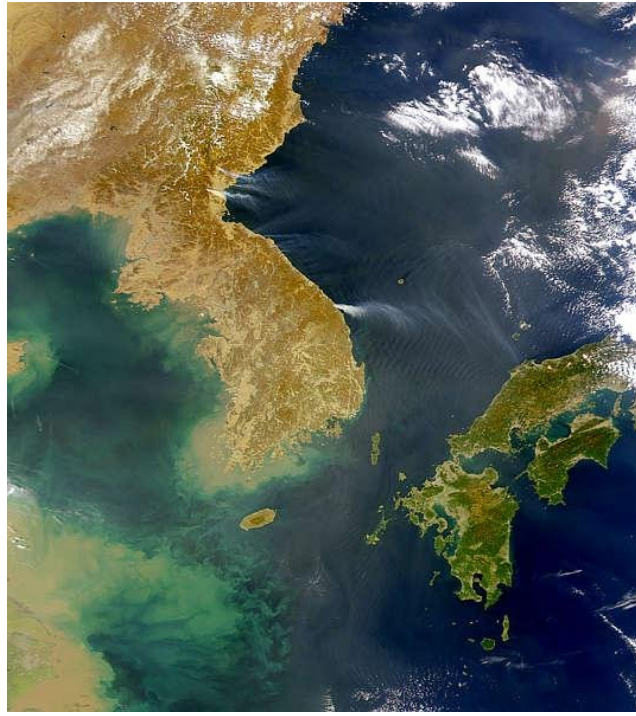
道典 5:306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

道典 2:36



# 甌山道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09

상제관(08)-증산상제님은누구이신가?

---

## 증산 상제님은 누구이신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 !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道典 1:1

이제 천지개벽시대를 당하여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道典 2:16

이 우주에는 주재자가 계신다. 불가에서는 그 분을 미륵이라고 했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 도가와 유가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했다.  
모두 우주의 주재자 한 분을 말한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하나님이시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 상제님의 위격

상제님은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최고신이며 우주의 주재자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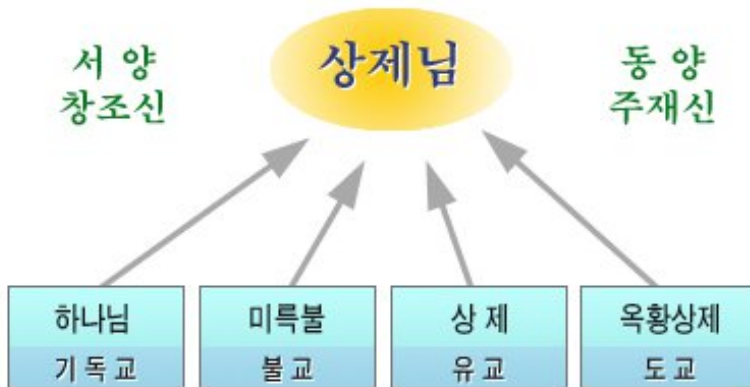
증산 상제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2:40

나는 옥황상제 이느니라.

내가 미륵이다. 道典 6:7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신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이 이와 같을진대 우리는 상제, 옥황상제, 미륵은 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므로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한 분인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은 기존의 성자들을 지상에 내려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 2:40

공자, 석가, 예수, 노자등 선천 성자들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을 받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여 교화의 사명을 맡아 헌신하신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 분들 이십니다.

증산 상제님은 우주의 무극대도로를 펼침으로써 선천성자들의 권능으로서는 우주적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하늘, 땅, 인간계 삼계를 구원할 수 가 없으므로 직접 지상에 강세하여 하늘 땅을 뜯어고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라는 전대미문의 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즉, 상제님은 이들 선천종교의 미완성된 진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진액을 뽑아 모아 결실문화를 내는 아버지(聖父)하나님이십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7](#) [카오프로](#) [트위터](#) [페이스북](#)

# 10

상제관(09)-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상제님

---



##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증산상제님



01

02

03

**01. 증산상제님 어진**

**02.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상** 약 1200여년전에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후 세웠다

**03. 객망리** 1871년 음력 9월19일, 증산상제님께서 이 마을에 탄강하셨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자리하고 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기(桓紀) 9070년, 배달국 신시개천(神市開天) 5769년, 단군 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미(辛未 : 道紀 1, 1871)년 음력 9월 19일(양력 11월 1일) 자시(子時)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古阜郡 優德面 客望里)에서 탄강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1:11

###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증산 상제님 !



선천 말대의 병든 하늘과 병든 땅을 뜯어고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 증산 상제님!

역대의 수 많은 선천 성자와 철인들의 예언 약속대로  
조선말 1871년(신미), 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새하늘 새땅을 여시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벽하여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재겁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나니  
너는 마음을 순결히 하여 천지공정에 수종하라.

道典 4:3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전,  
먼저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인간 삶의 모습을 두루 둘러 보셨습니다.

도솔천의 하늘보좌에서 서양 대법국, 즉 지금의 로마  
바티칸으로 내려와 인간세상의 만상을 살피시고,  
우리나라의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에 성령으로 30년간 임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871년 신미년 음력 9월 19일,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古阜郡優德面客望里),  
지금의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서 진주 강(姜)씨 성을 취하시어 스스로 인간으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객망리(客望里)는 우리말로 ‘손바래기’ 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하늘의 주(主)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상제님은 청년 시절, 고향마을의 주산인 시루산의 산이름인 시루 증(甕) 자 뒀 산(山) 자를 취해, '증산' 을 자호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루 증자에는 '성숙, 완성, 결실, 가을' 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는 상제님의 진리가 가을의 새 문화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다면 상제님은 왜 이 조선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약 3천여 년 전 석가의 열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하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 한 것은 바로 미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제자인 가섭, 라훌라, 군도발탄, 빈두로 네 명의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시대에 미륵불이 오시면 그 분의 도에 들어가라” 고 했습니다.

### 미륵상생경

미륵은 부처 열반 후에 온다는 희망의 부처이며, 미래의 부처입니다.

동방 미륵신앙의 본산인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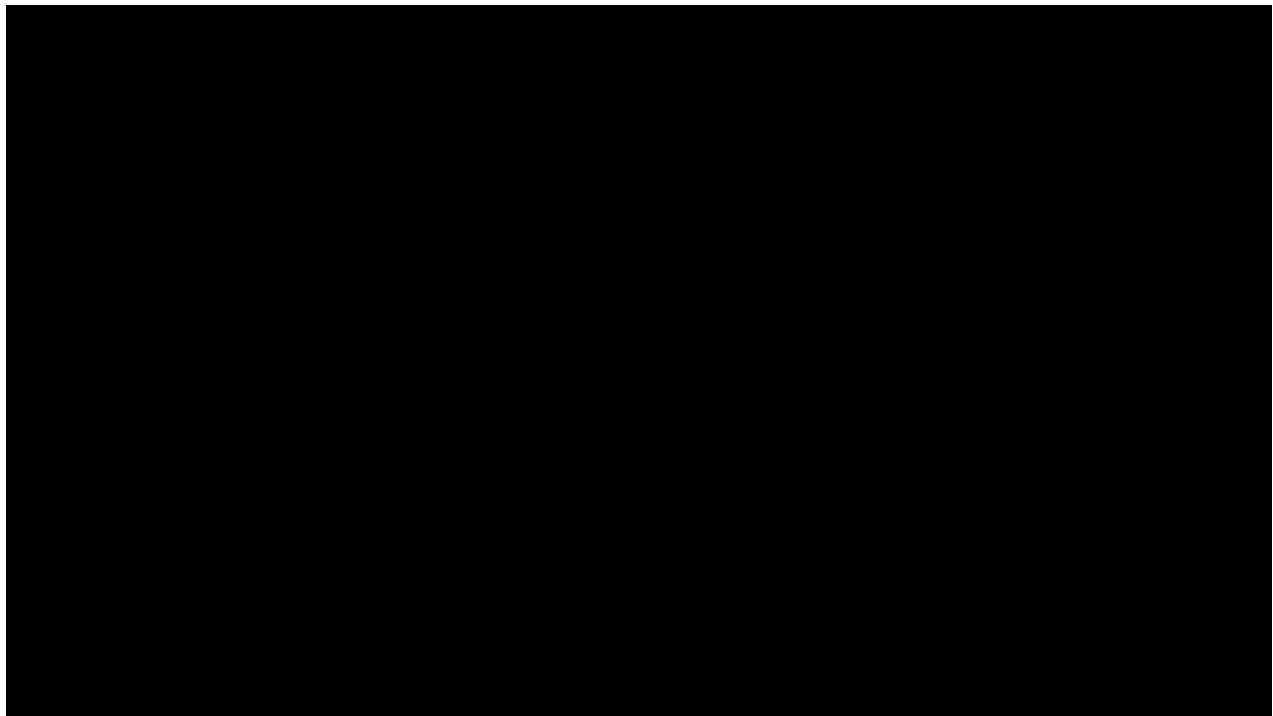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이 금산사에서 미륵불의 강세를 탄원한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 미륵불 강세를 탄원한 구도자, 진표율사

도승 진표율사(眞表律師)는 1,200여 년전 통일신라 경덕왕때의 도승이다. 12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불교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대도통을 하였다.

미래세계를 훑히 내다본 그는 이후로 우주의 선후천이 바뀌는 가을개벽의 시기에 미륵불께서 한반도에 강림해 주실것과 개벽기에 자신이 다시 태어나 인간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서원하였다.

동방 한반도 땅의 미륵불 대중화 신앙은 진표율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진표율사(眞表律師)는 27세 되던 신라 경덕왕 19년 부안 변산의, 산 중턱의 절벽 암자, 부사의방장에 들어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이라는 목숨을 건 수행으로 무섭게 정진하니 3일 만에 팔굽과 두 무릎은 부러지고 터져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줄이 드러났다.



이러한 초인적인 구도의 결과로 마침내 원각 대도통을 하여 천안을 열었다.

이에 수많은 천상의 성신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도솔천(兜率天)의 천주님이신 미륵존불을 친견하니

"장하도다 대장부여! 계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이 뒤에 너는 이몸(육신)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펴라" 말씀하시고 사라지니라.

이때가 신라 경덕왕 21년(서기 762년) 4월 27일 이었다.

삼국유사

##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 기원과 김제 금산사 미륵전 창건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 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 상제님 강세를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이마두 대성사(1552~1610)  
본명 마테오 리치.

**이마두**(마테오리치, 1552~1610).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로서 카톨릭을 전도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평생 중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천주가 중국인들이 믿는 상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실의가 전해온다.

평생을 인류를 위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천주님 신앙을 전도 하였으며  
인류구원을 위해 천주님의 지상강세를 간절히 염원했던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이다.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입니다.

이후 그는 『천주실의(天主實義)』 외에도, 『교우론(交友論)』 등의 많은 저서를 통해,  
서양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중국에 소개하는가 하면,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는 등,  
동서문화를 교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역만리 중국땅에서 영면하였습니다.

天主何? 上帝也. **천주란? 상제다.**

『천주실의 초판의 서문』

(풍응경(馮應京 1555~1606))

마테오리치 신부는 예수회 소속의 이탈리아인 신부로서 중국에 와서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유교, 불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곧 '상제님'이심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 신약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에 보면 상제上帝의 자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는 **상제**를 **천주**天主 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 성서가 처음 번역  
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 보면 '상제의 자子 예수 그리스  
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 '상제' 를  
'천주' 라 했다. 상제관은 다신 문화의  
신관이며 상제는 우주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주신이란 뜻이다.

죽어서 신명이 된 그는 하늘나라에서 지구문명 개발에 역사하여,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근대 과학문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명은 물질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서양열강들은 발달한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앞다투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의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착취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덕을 외면한 물질문명은 인간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마테오 리치는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을 이끌고  
천상 옥경에 계신 상제님을 알현하고, 인류와 신명계의 총체적인 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증산 상제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事理)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殘暴)를 길러 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 없이 범행하니, 신도(神道)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개탑(베드로 성당)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01

02

03

### 01. 베드로성당 전경

### 02. 베드로 성당 안에서 천개탑을 올라다 본 모습

### 03. 베드로 관이 안치된 베드로 성당 내부

천개탑은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조각가이며 건축가인 베르니니(이탈리아, 1598~1680)가 1633년 6월 29일 100여톤의 청동으로 만들었다. 천개탑은 천개를 포함한 건물의 첨탑과 돔 부분 전체를 말한다. 상제님께서 마테오리치 신부의 하소연을 듣고 지상에 강세하실때, 대법국 천개탑 곧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으로 임어하시어, 리치신부의 믿음에 응감해 주시고 또한 서양의 2000년 천주교 신앙의 뿌리가 바로 상제님임을 밝혀주셨다.

## 김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이 동토(東土)에 그쳐,  
승(衆) 진표(眞表)가 석가모니의 당래불(當來佛) 찬탄설게(讚歎說偈)에 의거하여  
당래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至心祈願)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

최수운(崔水雲-최제우)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꾀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甲子: 道紀前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道紀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 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2:30](#)

동학 [최수운](#)(崔水雲-최제우)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1

상제관(10)-하나님의 공식호칭:옥황상제 玉皇上帝

---



## 하나님의 공식호칭 : 옥황상제 玉皇上帝



### 1. 상제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

● 상제(上帝)의 뜻

상(上) - 천상의, 지존무상의, 최고의  
제(帝) - 지금은 임금 제 字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나님 제 字

상제上帝 란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상제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으로서, 동방의 한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 라고 불러왔습니다.

상제님은 자연과 인간과 신神, 삼계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이루시는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2.도(道)와 제(帝)의 관계



우주는 이법(道)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주이법(道)과 함께 자연계와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帝)가 주와 객, 음양 일체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 도를 주재하여 인간과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우주의 이상이 실현된다.

### 3.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

#### 통치성

미륵불,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상제라는 호칭은  
우주 삼계의 최고 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 인격성

상제라는 호칭은 하느님, 하나님보다 천天的 주재자로서의 인격적인 풍모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역사성

상제 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이 약 6천 년 전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며  
중국에서도 4,300년 전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등극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동방의 한민족은 예로부터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삼신상제, 삼신 하느님, 상제라 불러왔는데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일제침략을 겪으면서 상제문화를 잃어 버린 것입니다!

1906년에 출판된 <국한문 신약전서>를 보면 예수에 대하여 ‘上帝의 子 예수그리스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4. 대우주의 조화주이신 상제님(**하나님**)에 대한 호칭

## 1.삼신상제 三神上帝

유교나 도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동방의 신교문화에서 부르던 호칭.

상제는 본래 한 분이나 조화 교화 치화 라는 세 가지 창조덕성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三神상제님 이라고 하였다.

### ▶ 삼신三神 이란?

삼신三神은 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을 생성 변화 시키는 우주의 조화성신을 말한다.

본래 우주의 조화성신인 일신一神 이 현실세계에서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세가지 신성으로 작용한다

## 2.옥황상제 玉皇上帝

도교의 옥황과 유교의 상제가 통합된 호칭으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공식호칭.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계신 거룩하신 상제님 이라는 뜻이다.

## 3.증산상제 甞山上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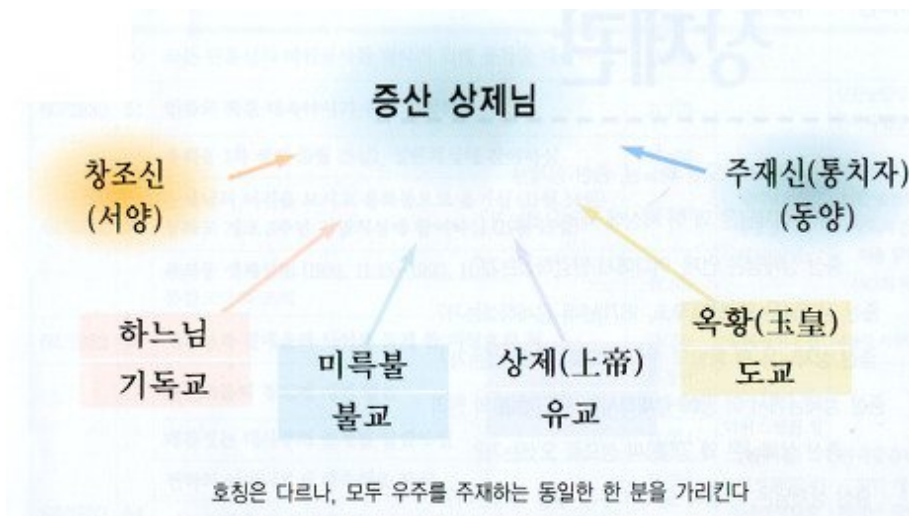
증산이란?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의 도호.

따라서 증산상제님 호칭속에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인존 천주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증(甞) : 시루증, 솥증. 산(山) : 메산

도호 증산(甞山)은 성숙 시킨다, 결실 한다는 가을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을개벽을 앞두고 인류구원을 이룬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 ▶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하느님** - 얼굴없는 무형의 하늘의 조화신을 인격화 한 말(하늘님→하느님).

무형적인 하늘의 성령적인 면을 일컫는 표현이다.

우주에 짝찬 조화신(造化神), 원신(元神), 삼신(三神)을 말한다.

**하나님** - 얼굴있는 유형의 대우주 최고의 신(神).

무형의 삼신(三神)과 하나되어 하느님의 기운(조화신)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

천상의 수도 옥경에서 직접 우주를 통치하시는 인격신을 일컫는 표현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2

상제관(11)-증산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



## 증산 상제님의 탄강과 생애, 어천



### 상제님의 성휘와 도호

상제님의 존성(尊姓)은 강(姜)씨요,  
성휘(聖諱)는 일(一) 자 순(淳) 자요,  
아명(兒名)은 학(鶴) 자 봉(鳳) 자요,

자(字)는 사(士) 자 옥(玉) 자요,  
도호(道號)는 증산(甞山)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대운(無極大運)을 여신 무극상제(無極上帝)시니라.

증산도 道典 1:11

###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 상제님은 언제, 어디서 인간으로 탄강하셨습니까?

강증산 상제님은 1871(辛未)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현재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에서 탄강하셨습니다.

당시 객망리(客望里)는 선망리(仙望里), 즉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 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마을 뒤로 보이는 산이  
시루산이다.



## 탄강 (도기道紀 원년, 1871년)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모님을 보살피심.

탄강 후 7일 동안 그윽한 향기와 상서로 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돌려쌌 (道典 1:16)

## 어린시절

6세 풍물굿을 보고 문득 혜각이 열리심 (道典 1:19)

7세 하늘땅을 흔드는 기개와 영성을 보이심 (道典 1:20)

9세 시루산에서 사색과 명상을 즐기심 (道典 1:23, 24)



## 소년시절

14세 불출암에서 김형렬 성도를 처음 만나심 (道典 1:30)

17세 머슴, 산판꾼 일을 하시며 주유하심 (道典 1:31)

19세 도호를 스스로 증산(甞山)이라고 하심 (道典 1:34)



## 청년시절

24세 동학혁명의 현장에서 광구천하의 큰 뜻을 품으심 (道典 1:43)

27세 유불선 음양참위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시고, 천하유력의  
길을 떠나 만고를 체험하고 만상을 둘러보심

31세 대도통을 이루시고,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대신문을  
여심

## 9년 천지공사와 어천(御天)

30대 삼계우주 통일의 신명 조화정부를 여시고, 여러 성도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9년 동안 천지공사를 집행하시어,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개벽의 이정표를 짜심

39세(도기 39, 서기 1909년) 하늘 보좌로 오르심(御天)

증산 상제님은 신미(1871)년 탄강하시어 신축(1901)년부터 9년 동안 천지질서를 뜯어고쳐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시고,  
기유(1909)년 음력 6월 24일에 하늘보좌로 다시 오르셨습니다(御天).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道典 2:40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 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 2:30

이제 천지개벽시대를 당하여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道典 2:16

■ 증산 상제님의 탄강 - 1871년.신미년(양띠)



고부군 객망리 전경

증산 상제님께서서는 1871년 신미년 음력 9월 19일 이 땅에 인간으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곳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로 지금의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이며 상제님의 존성(尊姓)은 진주 **강(姜)씨**이시며 성휘(聖諱)는 일(一)자, 순(淳)자 이시고 성호(聖號)는 **증산(甞山)**이십니다.

■ 유소년 시절의 행적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



어린 시절, 상제님의 가정은 무척 가난 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지를 꿰뚫는 혜명함과 호쾌한 기상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24세 때 난세의 위기 속에서 동학혁명을 지켜보시고, 민족과 세계를 널리 구원하실 큰 뜻을 품으십니다.

상제님은 먼저 이제까지 세상에 나온 유·불·선 음양참위를 비롯한 모든 글들을 읽고, 27세 되시던 1897년 후반기부터 1900년까지, 3년에 걸쳐 천하 유력을 하시며 세태와 민정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 증산 상제





그 후 고향에 돌아오신 증산 상제님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시고,

31세 때인 서기 1901년, “종전에 알고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능히 건질 수 없다.” 하시며, 6월 16일부터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 대원사 칠성각에서 수도에 정진하십니다.

## ■ 우리 민족의 신교[BC 7000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재신 상제님"

"태시에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옛 것은 가고 지금은 오니 오직 한빛이 있어 밝더라. 상계로 부터 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분의 상제**시라.

주체는 곧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나, 쓰임은 곧 삼신 미시라.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시고 전세계를 통치하실** 가능할 수 없는 크나큰 지능을 가지셨더라.....

숨을 불어 만물을 만드시고 열을 뿜어 만물의 종자를 키우시며 신묘하게 행하여 세상 일을 다스리시니라."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 ■ 무상의 대도(大道)로 천지대신문을 여심 "중통인의(中通人義)"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스무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서로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대신문(天地大神門)을 여시니.....**  
(道典 2:11)

"예로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찰지리(下察地理)는 있었으나 중통인의(中通人義)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人義)를 통하였노라.**" (道典 2:22)



대원사 칠성각

증산 상제님은 31세 때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만고에 없는 대도통을 하시고, 천지대신문을 여십니다.

이 중통인의(中通人義)의 도통경지는 **"인간 삶의 중심에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풀러낼 수 있는 궁극의 도통"**으로, 우주 가을철의 성숙한 도통, 즉 열매기 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심.

"이제 온 천하가 큰 병(大病)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선경(仙境)을 건설하려 하노라.

# 님의 어천

## 하늘 보좌에 오르심

이 때 문득 하늘문이 마당과 고살을 가득 마치 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이 아주 웅장

상제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니 어느새 옥색 도포에 홍포선(紅布扇)으로

선녀들은 하늘에서 공중을 떠가거늘 그 눈부신 대광명 속에

상제님께서 “나중에 순간 문이 닫히거늘 기세를 더하여 거칠거 번쩍번쩍 대지를 휘하  
**증산도 道典 10:59**

## 8월 1일에 환궁하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

**나는 옥황상제(玉皇上帝)니라."**

(道典 2:16)

삼계(三界)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세상을 의미하며, 삼계대권이란 천도(天道)와 지리(地理)와 인사(人事)를 뜻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권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능으로 천상의 신명들을 마음대로 부르시고, 선천의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새롭게 만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道典 2:40)

#### ■ 상제님 조화세계의 밑바탕은 하늘의 이치(理致)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以化)니라.

해와 달이 나의 명(命)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理致)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 (道典 2:20)



즉 상제님이 계시는 본 바탕이 **【우주가 변화하는 근본자리】**이며, 그 움직이는 이치와 더불어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이러한 우주의 근본자리를 바탕으로 신통변화와 천지조화를 사용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 ■ 선천의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새세상을 만드는 천지공사를 행하심

"내가 삼계대권을 맡아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을 개벽하여 선경을 건설 하리니**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잘 닦아 앞으로 오는 좋은세상을 맞으라." (道典 2:74)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限度)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神明)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드나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게 하리라." (道典 5:416)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말씀하시기를  
**증산도 道典 10:32**

#### 지구촌의 세계 통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각기 닦은 공력(功力)  
만일 못 앓을 자리에

#### 잘못 닦은 자의 심

하루는 우레와 번개를  
“뒷날 출세할 때에는  
잘못 닦은 자는 죽지  
갈 때에 따라오지 못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나의 얼굴을 잘 익히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  
**증산도 道典 7:89**

증산상제님께서서는 성수 39세  
(1909년 음력 6월 24일)에 병  
든천지를 바로잡고 인류구원을  
위한  
9년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결국 상제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천지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지만 믿어야 하는 이 천지공사에 관해서는 바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옥경으로 환궁(어천)하셨습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3

상제관(12)-상제님은 왜 이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

##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상제님께서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도(道)로써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開闢)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道典 1:1

선천은 상극(相克)의 운(運)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戰亂)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禍厄)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 다스리고  
조화선경(造化仙境)을 열려 하노라.

증산도 道典 2:17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부처와 보살이 하소연하므로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개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

최수운(崔水雲)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꾀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甲子 : 道紀前 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 道紀 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 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증산도 道典 2:30

## 지금의 선천은 **상극**의 세상

상제님은 삼계대권을 가진 조화권자이신데, 왜 그런 지존의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상제님께서서는 ‘천지신명들이 인간과 신명의 겁액을 탄원하여, 상제님이 아니면 다가오는 대 우주 개벽기에 이 세상을 결코 건질 수 없다 하므로 그 뜻을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 고 하셨다.

또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하므로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는 말씀도 하셨다.

상제님 말씀은 결국 ‘내가 아니면 이 우주를 바로잡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이때는 이전 인간 성자들의 가르침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늘 · 땅 · 인간 삼계를 다스리는 천지대권으로 우주 질서를 뜯어고치는, 대우주의 주인이며 개벽장 하나님이신 상제님만이 끌려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명세계도. 이 우주만유가 상제님의 도법에 의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상제님은 우주의 사계절 가운데 봄여름 세상이 지나고, 가을철 추수 대운으로 들어가는 인간 개벽기에, 인종씨를 추수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지구의 일년 사계절 변화 목적은 초목농사이고, 우주의 일년 사시 농사는 인간농사다.  
지구 일년 농사에서는 천지에서 초목의 씨를 뿌려서 여름철에 기르면, 가을에는 꼭 거둔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한다.

왜? 천지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천지의 농사를 짓는 것은 항상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둔다.

우주 1년 인간농사 짓는 12만 9천6백년에서, 지금은 봄여름이 다 지나고 여름철 말에서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천지에서 참 인간 종자를 추리는 인간 개벽기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가 되면, 인류의 봄여름, 즉 선천문화의

진액을 거두어 가을의 보편문화, 통일문화, 열매문화가 출현한다.

바로 이 가을 문화를 열기 위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오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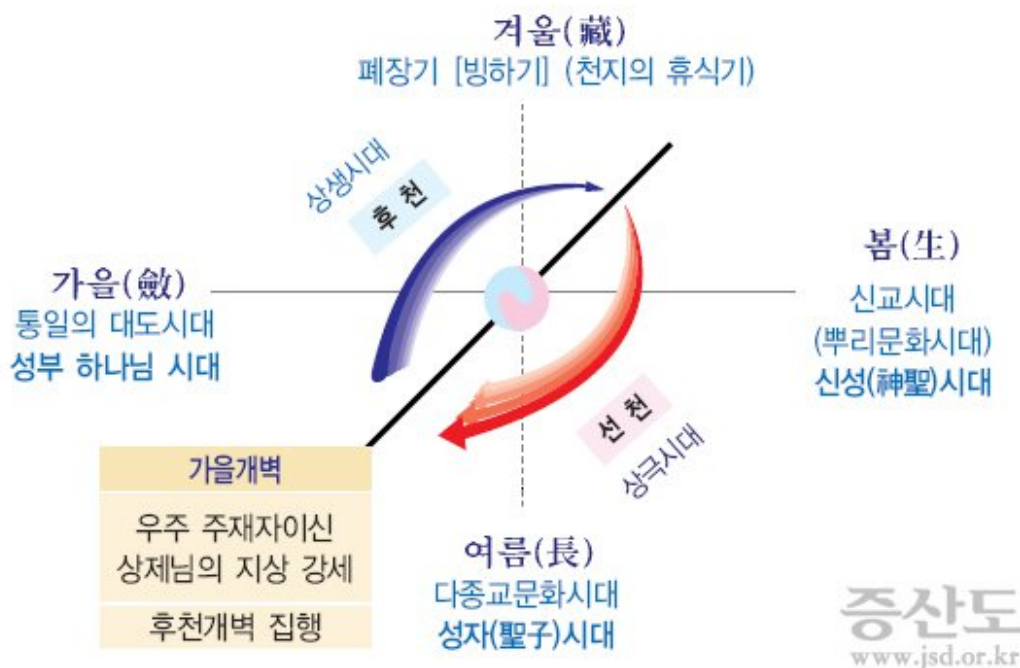
증산 상제님께서서는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새천지를 연다” 하시  
고

기존 성자들의 도권세계와는 비교조차 되지않는 무상의 조화권능으로 지상에서 9년동안 천지개벽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천지공사에 앞으로 후천 5만년 신천지가 열리는 선경세상의 모습과 오늘의 지구촌 70억 전인류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 三界(天 地 人)를 조화롭게 중재하신 일 ⇒ 천지공사(天地公事)



#### ▲ 천지공사 집행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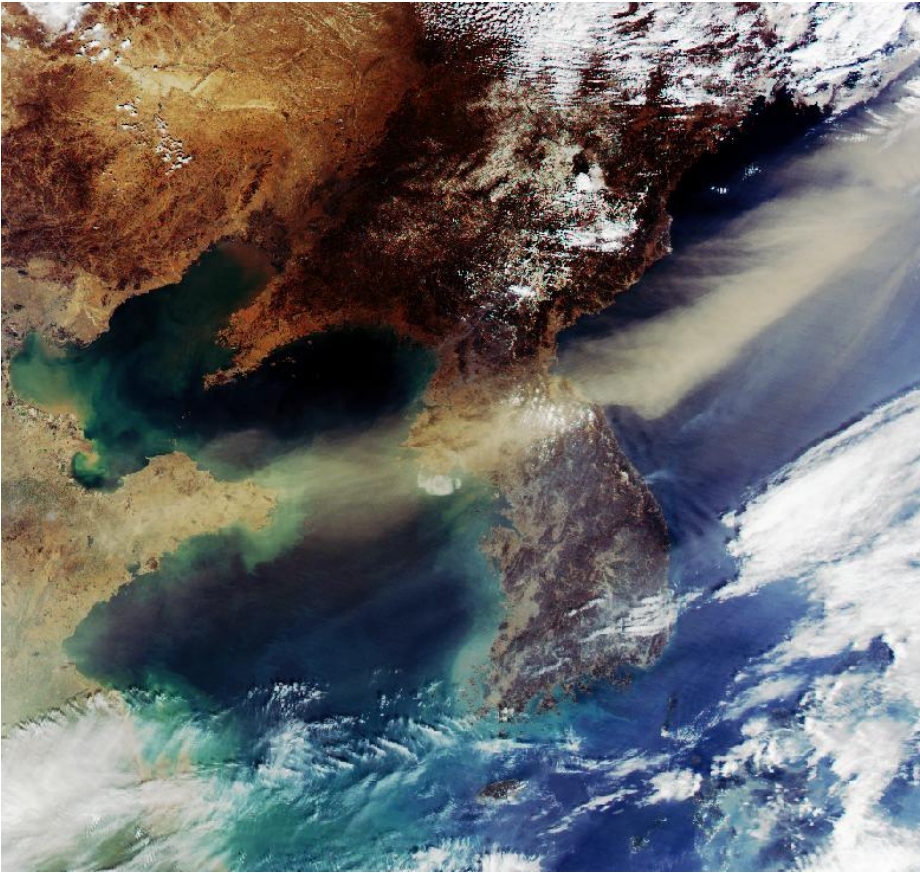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道典 5:306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道典 2:36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4

상제관(13)-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 1871)년에 강세하셨는가?



신미(辛未)생으로 오신 상제님

증산 상제님은 새 천지를 열어 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니,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 항상 종이에 글이나 물형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일찍이 ‘어린양’ 으로 불리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였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신 상제님께서 예수를 해원시켜 이 땅 위에 천국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신미생 양띠로 오시니라.

증산도 道典 4:142

### 백보좌 하느님의 서신사명, 가을 대개벽의 심판과 구원

이 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西神)이 명(命)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흩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壽)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위(神威)를 떨쳐 불의를 숙청(肅淸)하고 혹 인애(仁愛)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증산도 道典 4:21

## 상제님은 왜 신미(辛未,1871)년에 오셨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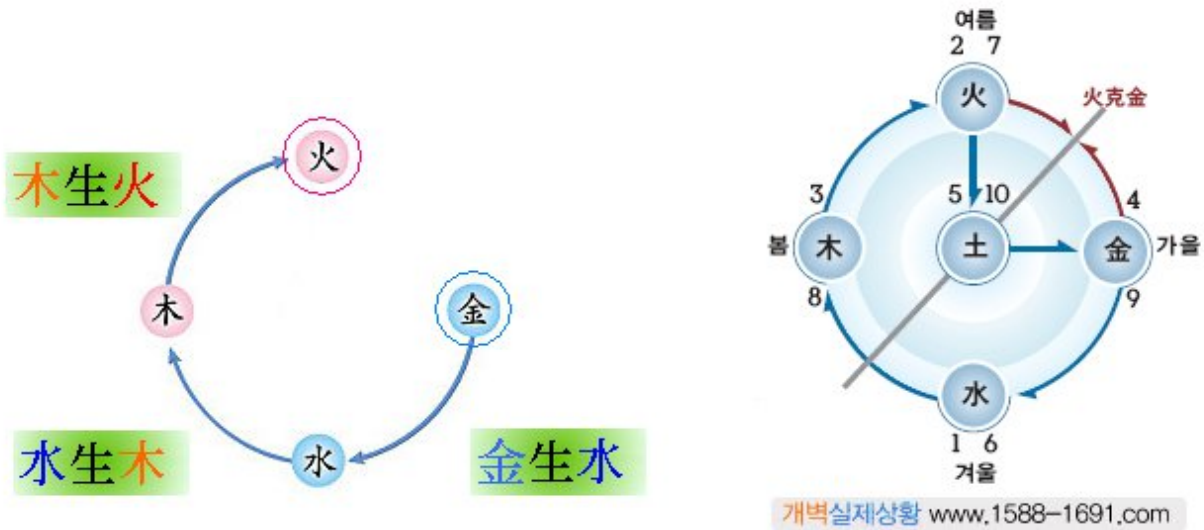
우주의 여름(화)과 가을(금)이 바뀌는 때에는 화극금(火克金)하는 상극원리에 의해

천체권에 대변국이 발생하여 전 인류가 추살로 멸망당하게 된다.

이 화극금(火克金)의 상쟁을 중재하고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金)의 원리로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의 가을세상을 여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신미(辛未)생으로 오시는 것이다.

### 오행에서 끊어진 마디 - 화극금 (火克金)



10土의 완전무결한 성스러운 조화기운을 지니신 상제님의 강제로 화극금 (火克金)하는 천지의 상극 분열기운을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金)하는 상생의 질서로 이화하여 우주의 가을 신천지가 열린다.

※ 지구 1년에서도 가을철이 되면 농부가 들판에 나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인간농사를 지으시는 상제님께서 인간 씨종자를 거두고  
가을의 새문명을 여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다.

※ 신미 辛未 속에 담긴 깊은뜻

신辛 = 立 + 十 : 지상에 十天세계, 곧 우주의 가을 세상을 세운다는 뜻임

미未 = 10토,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金)으로 구원의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는 土(하나님의 조화 생명)이다.

상제님께서 왜 신미辛未생으로 오셨느냐?

진술축미辰戌丑未가 다 토土인데 진술축 辰戌丑은 5토土다.

미토未土만이 완성된 10토土다.

신辛이라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신辛자다.

가을철 결실문화, 알갱이 문화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신미토辛未土의 조화라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

## 동학 최수운 대성사의 시천주 侍天主 선언

동학의 창시자 水雲 최제우



동학 최제우 (1824-1864) 경북 월성출생. 호는 수운(水雲)

동학의 핵심사상은 「시천주(侍天主)사상, 무극대도출현, 개벽사상」이다.

동학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과 신교를 직접 받은 仙道 이다.

상제님은 또다시, 한 인물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조선말 혼란했던 시절, 경주 구미산 자락에 있는 용담정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깨달음을 얻기위해 수도하던 사람. 바로 수운 최제우입니다.

1860년 경신(庚申, 1860)년 4월 초 닷새날,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던 최수운은

문득 온 몸이 떨리는 가운데 상제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최수운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선경을 여는 시천주(侍天主)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제우 선생은 자신의 사후(1864년 甲子) 8년뒤(1871년 辛未)에 조선땅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한다는 소식을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동학의 세가지 핵심사상

### 1. 시천주侍天主 사상 (천주님, 한울님 강세선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알게되는 그 큰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하옵니다.

한울님이 내몸내어 아국운수 보전하네,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라. 나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믿고!

### 2. 무극대도 출현

천명을 받아라.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전40은 내려니와 후40은 뉘련가!



### 3.가을개벽과 병겁도래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한울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개벽 운수 죽을 염려 있을쏘냐!

최수운 선생은 1864(甲子)년 세상을 뜨면서 엄청난 소식을 민중에게 전해주었다.

「**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려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하면서

자신의 사후 1864(甲子)년 8년 뒤에 1871(辛未)년에 한울님(상제님)께서  
조선땅에 직접 강세하실 것을 뚜렷히 예고 하였다.

최수운 선생의 이 예언 그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조선말 1871년(**신미**), 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었다.

또한**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려가!** 라고 예언한 대로 최수운 선생은 40세에 생을 마감하시고  
증산상제님께서도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기유년(1909년) 성수 40세에 천상 옥경 보좌로 환궁하시었  
다.

최수운 선생께서는  
너희는 겨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강토에 강세하시게 되므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 고 말하면서 세상을 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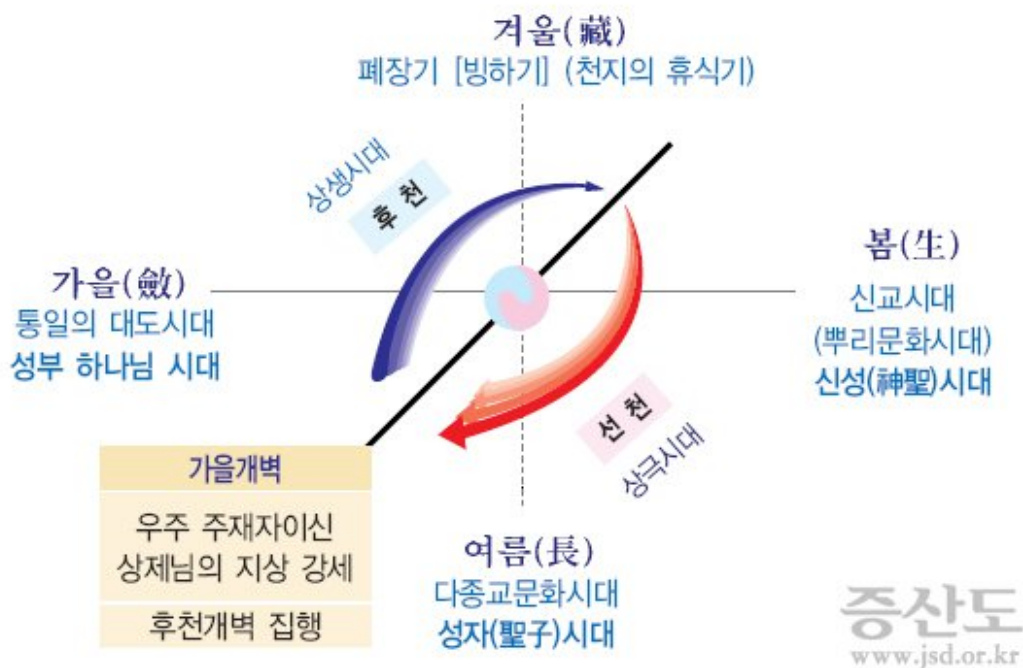
동경대전과 수운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룸라.  
동학주문에 시천주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룸이라.  
수운가사는 수운이 노래한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니라.  
[道典 2:30,31](#)

내가 팔괘 갑자(八卦甲子)에 응하여 신미(辛未：道紀 1, 1871)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道典 2:94

## 우주의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우주년의 봄 여름철을 **선천**(先天)세상 이라 하고, 앞으로 오는 가을철을 **후천**(後天)세상 이  
라 한다.



선천세상	우주의 봄, 여름	상극의 구천지	분열 생장시대	타원궤도 1년 365¼ 일	성자시대	남존여비
------	--------------	------------	------------	-------------------	------	------

후천세상	우주의 가을	상생의 신천지	통일 수렴시대	정원계도 1년 360 일	성부시대	남녀동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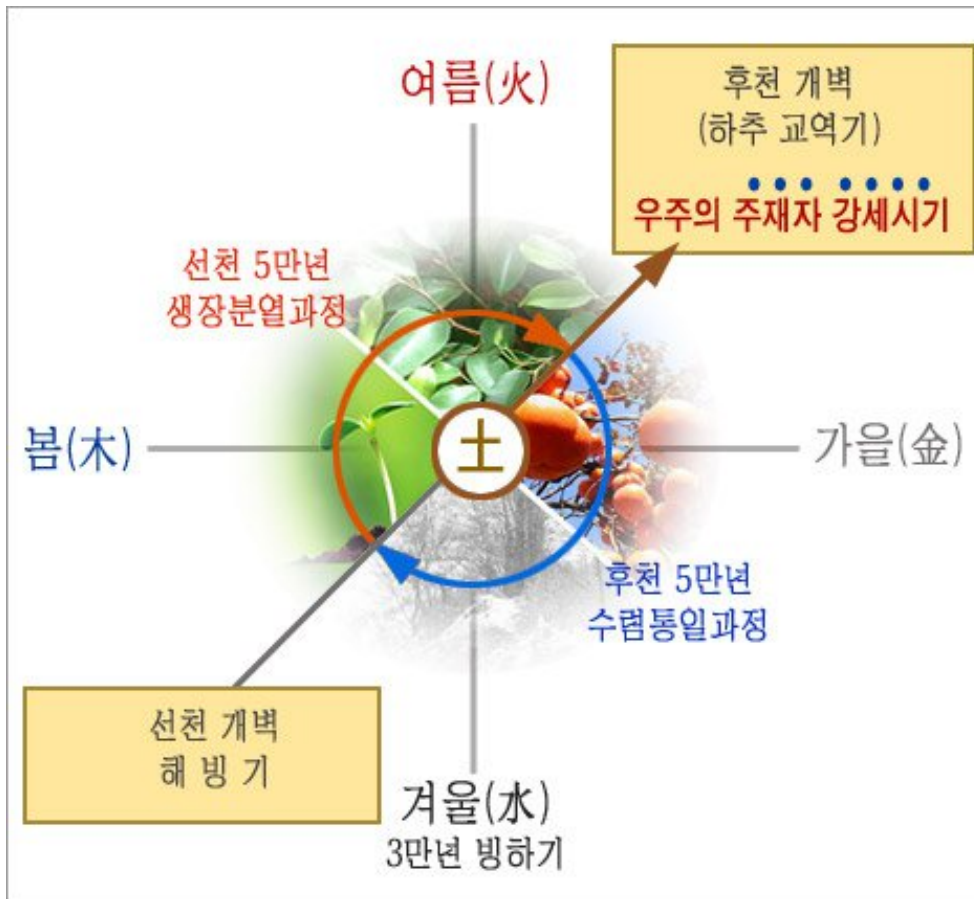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계절에 속할까요?

바로 우주년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환절기(換節期)라는 말이 있죠? 계절이 바뀌는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가을이 되면 찬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초목이 말라 죽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이 닥치면 인간의 생명도 낙엽처럼 떨어지는 대변혁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벽(開闢)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 직접 이 지상에 오신 거랍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5

상제관(14)-증산상제님은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

## 상제님은 왜 **한반도**에 강세하셨는가?



- 01 02 03
01. 증산상제님 어진  
02.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상 약 1200여년전에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후 세웠다  
03. 객망리 1871년 음력 9월19일, 증산상제님께서 이 마을에 탄강하셨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자리하고 있다

### 1. 한민족은 인류문명을 태동시킨 **신교의 종주국**

한민족은 **신교(神敎)의 종주국**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神敎)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증산도 道典 1:1

## 신명 대접을 가장 잘하는 조선 민족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神明)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으므로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각기 소원을 따라 꺼릴 것 없이 받들어 대접하리니 도인(道人)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천하사(天下事)만 생각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2:36

## 2.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간도수의 섭리

-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以 所成始也일세曰 成言乎艮 이라! - 주역 설괘전 -

역(易)에서 간방 艮方은 동북방인 한반도를 말한다.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艮은 작지만 모든 이치를 담고있는 핵, 씨, 열매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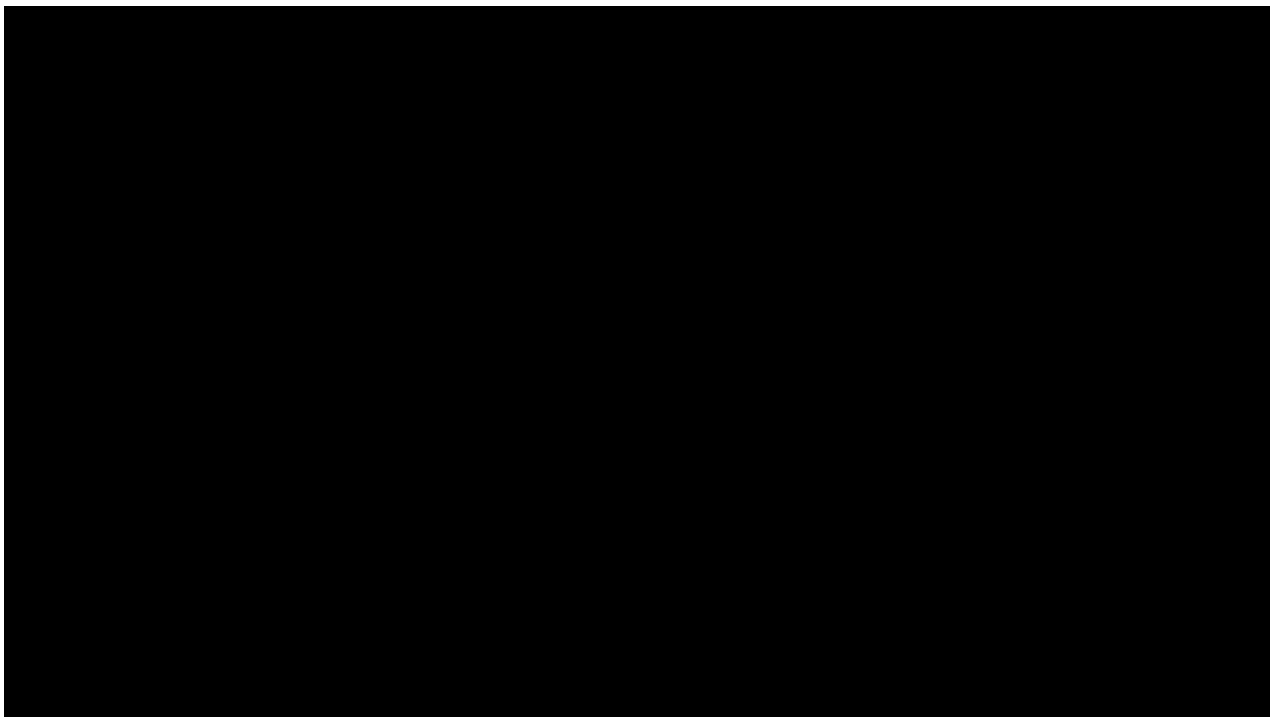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구원을 위해 동북 간방인 한반도로 강세 하신것이다.



● 제출호진(帝出乎震) - 상제님께서 진방(동방)에서 출세 하시느니라. - 주역 계사전 -

진震은 동방을 상징하는 괘로써 제출호진에는 개벽을 주재하시는 참하나님이신 상제님은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뜻이다.

지구의 **혈**穴이요, 지구의 중심축인 **한반도**!



우리나라는 지구의 **핵**, 우리나라 문화는 인류문화의 모태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지구의 지리를 최초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새 문화 새 틀을 얘기하자니 쉽게 종교라고 하는 게지, 본질적으로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증산 상제님은 만유를 주재하는 상제님으로서, 천상 보좌에서 우리나라 땅에 내려오셨다.

허면 어째서 이 넓은 지구상에서 꼭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었느냐?

우선 지리학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구의 원 고갱이다, 속고갱이.

어째서 그러냐? 그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다.

-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 -

### 3. 한민족은 인류 시원문명의 모태(母胎)

#### 인류문명의 아버지, 한민족 배달국 태호 복희씨

世界有而此山出하니 紀運金天藏物華라  
세계유이차산출 기운금천장물화  
應須祖宗太昊伏인댄 何事道人多佛歌오  
응수조종태호복 하사도인다불가

세계가 생겨나고 이 산이 나왔으니  
후천 (가을)문명을 여는 운수가 이 산에 갇혀 있느니라.  
마땅히 선천 문명의 조종(祖宗)은 태호 복희씨인데  
웬일로 도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증산도 道典 5:282](#)

태호복희씨의 하도로부터 인류문화가 태동되었다.

이제 원시반본하는 가을개벽기를맞아 상제님께서 결실문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동방 한민족으로 오셨다.

## 4. 한민족은 인류의 뿌리 성씨로 강세하심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 1 세상에 성(姓)으로 풍(風)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 2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체상(體相)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 3 그 다음에 강(姜)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 4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일을 맡게 되었느니라.

---

### 〈촉각주〉

- 1 37:1 풍가. 삼황의 한 분인 태호 복희(太昊伏羲, ?~서기전 3413)씨의 성(姓). 인류 역사 최초의 성씨이나 절손되어 전하지 않는다.
- 3 37:3 강가. 염제 신농(炎帝神農, ?~서기전 3078)씨의 성으로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성씨.

## 5. 한민족과의 깊은 인연

인류문명의 뿌리민족인 한민족의 깊은 한을 먼저 끌려주시기 위해

나의 일은 비록 부모 형제 처자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동학 주문에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그친 것은 잔피(孱疲)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 주려 함이라.

증산도 道典 3:184

## 미륵불의 동방 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 대성사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眞表律師)로부터 영글어 민중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金堤) 금산사(金山寺)의 송제법사(崇濟法師)로부터 사미계(沙彌戒)를 받으니라.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庚子, 760)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진표가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니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매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金杖)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니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天眼)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戒)를 구하다니.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須彌山)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不退轉)이로다.” 하고 찬탄하시니라.

원각(圓覺)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大聖師)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이로부터 ‘밑 없는 시루를 걸어 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 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에 미륵전을 완공하시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삼회설법의 구원 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十善業)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증산도 道典 1:7](#)

---

진표율사

##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  
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 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본래 이 하추교역기, 가을개벽을 할때는 인간 씨종자를 거두는 절대자, 결실문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정해져 있다.

지정학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주 이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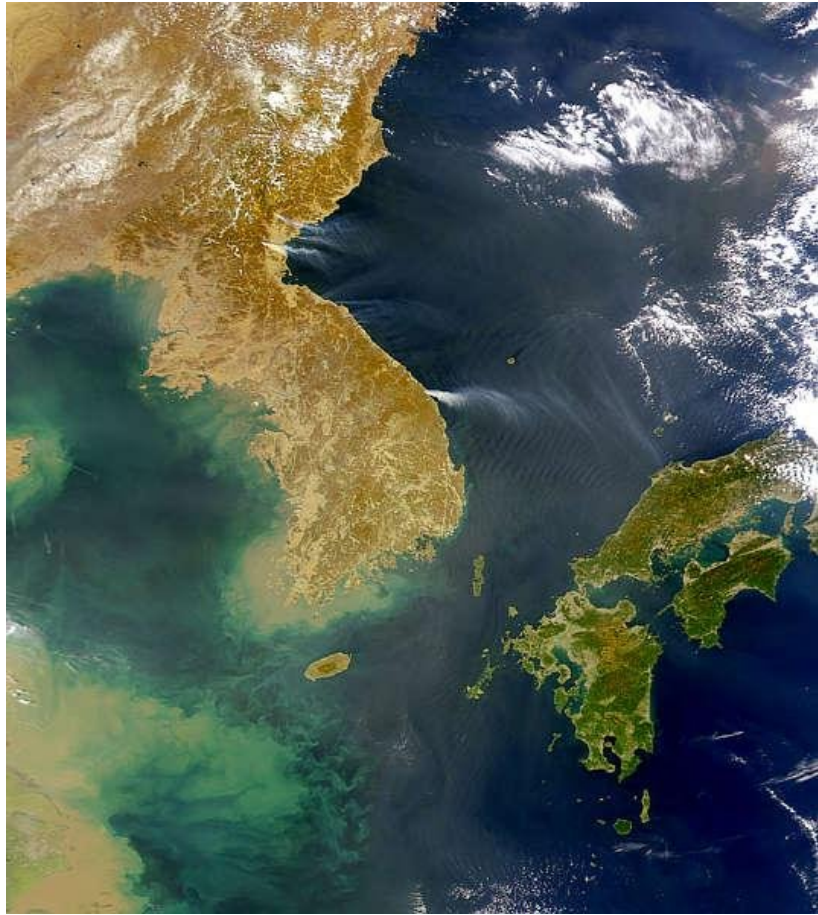
萬國活計南朝鮮 [만국활계남조선](#) 이라!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道典 5:306](#)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의 하나라도 때를 놓치치 말라. [道典 2:36](#)



# 甌山道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16

상제관(15)-상제님의 중통인의 도통경계와 권능

---

## 상제님의 도통경계와 권능



### 천지대신문을 열고 삼계대권을 주재하심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스무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서로운 큰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대신문(天地大神門)을 여시니 이로부터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시고 우주의 조화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 중통인인의 도통 세계를 여심

예로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찰지리(下察地理)는 있었으나 중통인인(中通人義)은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人義)를 통하였노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찢었다 하노라.

## 중통인인(中通人義)란 무엇인가?

상제님이 보여주신 삼계대권의 조화권은 도권과 신권에서 나온다.

도권은 궁극의 도통인 중통인인의 경계에서 부리는 조화권이며,

신권은 대우주 신명계의 주재자로서 자유자재로 천지간의 모든 신명들을 부리시는 권능이다.

### ● 중통인인(中通人義)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열매인 인간과 인사人事문제까지 달통하여 끌러낼 수 있는 최상의 도통경계.

상제님께서는 중통인인의 도통경계에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인간과 인류 역사를 바로잡아 후천 대통일 문명을 건설하셨다.

중통인인은 문자적으로 가운데 중中 자 통할 통通 자, 인의를 통했다는 뜻이다.

그럼 인의라는 건 무엇인가? 사람 인사 자에 옳을 의義 자다. 이 옳을 의 자란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도 쓰고,

옳다, 바르다, 평평하다 등 여러 의미로 쓴다.

중통인의의 첫 글자 중中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늘과 땅, 그 천지의 중심인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핵심을 꿰뚫었다는 뜻이다.

중통인의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안고 있는 모든 불행, 비극의 원인들, 그것이 종교적 갈등이든, 문화적 배경의 차이든,

또는 상제님이 처음으로 진단하신 것처럼, 이 천지의 환경을 지배해 온 상극 질서 때문이든, 자연과 인간의 역사문제를 총체적으로 끌러낼 수 있는 궁극의 도통을 말한다.

이전의 성자들은, 인간의 문제만 물고 늘어진다. 인간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둠을 벗어나야 한다.

그 어둠이라는 건 죄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무지다. 세상에 와서 때묻은 영혼의 업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비를 베풀고 갈고 닦아야 된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상제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 석가모니 예수 공자 노자, 너희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라는 말씀이다.

## 옛 성자의 기국과 도통 경계

나의 공부는 삼등(三等)이 있으니

상등은 도술(道術)이 겸전(兼全)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用事)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 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증산도 道典 2:35

상제님이 나의 공부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하셨다.

내 공부, 그러니까 이 대우주를 통치하는 조화옹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데는, 세 단계 수준이 있다는 말씀

이다.

제일 낮은 하등은 알기만 하는 것이다. 그건 지식이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세상 일을 다 안다. 오직 알기만 한다.

중등은 그 용사에 제한이 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 신권 조화를 좀 부린다는 말씀이다.

기껏 예수나 석가 정도 수준이다. 용사에 제한이 있어서 모든 걸 뜻대로 하지는 못한다. .

그러나 상등은 도술이 겹전, 도가 완전히 열려 있으면서 술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말씀이다.

술이라는 건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옛 사람은 알기만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었다.

예수가 천명天命이라고,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 어버리잖는가.

공자도 천명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명을 내리는 아버지, 상제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천지의 주인은 인간이다. 라고 하신다.

상제님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고 하셨다.

하늘의 존귀함과 땅의 존귀함보다 인간이 더욱 존귀하다는 말씀이다. 왜? 천지의 열매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무인無人이면 무천지無天地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는 거와 똑같다.

왜? 천지의 열매인 인간,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없으면, 천지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

인간이 있음으로써만 천지의 창조이상, 천지 변화의 목적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을 전제로 해서만 모든 게 성립된다.

즉 내가 없는데 뭐가 있나?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있어도 없는 거나 같다.

중통인인의 중 자는 천지의 중심, 중앙이란 말이다. 천지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천지의 뜻과 궁극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주인공이다.

인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조화되어 역사를 대통일하고, 가을의 결실문화를 여는 궁극의 도통이 중통인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만을 거론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생명의 뿌리,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변화의 바탕인 천지의 질서까지를 문제삼고, 그것을 바꾸어줄 수 있는 무상의 대도통,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는 궁극의 도통이다.

.

지금은 우주가 가을로 들어서는 환절기이다.

때가 무르익어 모든 생명이 성숙하는 상생의 도는, 오직 상제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중통인의 도통이다.

이로부터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상제님의 깨달음에 걸맞는 도통의 경계로 들어간다.

가을의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중통인의 길로! 공자 석가 예수를 닮은 도통이 아니고,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낸, 상제님의 도통차원을 닮은 도통을 하게 된다.

### ● 삼계대권(三界大權)

삼계(三界)란 삼재(三才)라고도 하며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삼계대권이란 대우주 천체권과 그 속의 모든 만유를 통치, 주재할 수 있는 대권능이다.

## 상제님은 왜 칠성각에서 도통하신 걸까요?

증산상제님께서서는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성도成道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왜 칠성각에서 도통하신 걸까요?



〈증산상제님께서 공부하신 칠성각은, 현재 모악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성도成道를 우리 같은 창생이 공부하는 도 공부 따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산상제님의 모악산 대원사에서의 도통이란 하느님 보좌에 계시면서,  
후천개벽을 성사시키기 위한 새로운 권능의 완성으로 봐야합니다.

하늘나라 천상 옥경玉京에 임어계시다가 후천개벽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증산상제님께서  
본래부터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이시지만, 후천개벽이라는 “새하늘 새땅을 여는” “천지의 기틀을 바꾸  
는”

천지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데 필요한 하느님의 권능을 새롭게 성취하신 것이 증산상제님의 성도成道입니  
다.

**증산상제님께서 왜 “칠성각” 에서 공부를 하신 걸까요?**

증산상제님께서 “유불선의 공간” 이 아닌, 한민족 전래 신앙인 “하느님의 공간” 에서 공부를 하신 것입  
니다.

상제님께서는 칠성각에서 공부를 하심으로써, 9천여년 동안 하느님 신앙을 해온 한민족 백성들의 오랜 기도와 서원을 성취해주셨습니다.

우주절대자 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한민족의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간벽지의 절집마다 있는 칠성각, 원래 칠성각 신앙은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칠성신앙은 본래 환국, 배달국 이래 내려오던 한민족의 전통신앙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외래종교인

불교가 토착화하면서 한민족의 대중들을 꺼안기 위해 절간에서 수용한 신앙입니다.

원래 절간의 대웅전은 환웅, 단군을 모시던 곳이었는데 진흥왕, 법흥왕 등의 권력을 등에 업은 불교가 대웅전을 장악하면서

그곳에 석가부처를 모셨고, 본래부터 내려오던 칠성각은 그 자리에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민족에게는 본래 칠성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안수 모시고 새벽을 빌던 신앙, 그것이 칠성신앙인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별자리 칠성에 빌고 또 빌어왔던 것일까요?

한민족의 백성들이 칠성에 빌어온 이유는, 북두칠성 별자리에 우주의 주재자 옥황상제님이 임어해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동방에서는 우주의 절대자 옥황상제가 하늘 세계 북두칠성을 포함한 자미원에

거주한다고 믿어왔습니다.

## 상제님의 도통 경계

인간으로 오신 강증산 상제님을 제대로 알고 역사 속의 상제님을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제님이 이룬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무엇인가, 즉 도통경계에 대해 눈떠야 한다.

## 그러면 상제님의 도통지경은 지난날의 성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도통이란?

인간에 대해 그 이상의 새로운 깨달음이 없는, 인간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의혹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문제가 됐든, 인간 생명의 신비나 인간의 마음 세계, 마음과 몸의 관계가 됐든, 또는 인간내면의 성숙 문제가 됐든 말이다.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가?

인간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이 만들어 가는 역사 문제,

인간이 새롭게 추구해 가는 새로운 문명세계, 이상적인 문명 질서 등등,

인간에 연관돼 있는 숭한 문제들에 대해 궁극의 깨달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중통인의中通人義의 실제적인 도통경지다.

## 도통의 세 등급

나의 공부는 삼등三等이 있으니 상등은 도술道術이 겸전兼全하여 만사를 뜻대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用事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는 못하느니라.

옛사람은 알기만 하고 용사치 못하였으므로 모든 일을 뜻대로 행치 못하였으나,

이 뒤로는 백성들도 제 앞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게 하리라.

상제님은 ‘내가 열어놓은 도통세계, 내가 열어놓은 깨달음의 새 문화에는 세 가지 도통 등급이 있다.

내 도를 받아 깨닫는 자, 도통을 성취하는 자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고 하신다.

상등은 도술이 겸전해서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경지다. 자유자재로 조화권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다. 즉 조화권, 신권을 쓰는 데 한정이 있다.

그 다음 하등은 이치로만 통한 것이다. 아주 성숙된 이통은 했으나, 어떤 조화권을 부리고 이적을 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작은 이적이야 행하겠지만, 아무튼 오는 후천 신문화에서 이 하등 도통은 답답한 것이다.

## 도통의 실제 경지는 봉사와 공덕으로 더 구체화된다

이 도통의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즉 도통의 실제 경지는, 그 사람이 닦은 근기와, 삶과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봉사와 공덕에 따라 재조정되고 구체화된다.

나는 누구나 그 닦은 바에 따라서 도통을 주리니 도통씨를 뿌리는 날에는

상재는 7일이요, 중재는 14일이요, 하재는 21일 만이면 각기 도통하게 되리라.

양이 적은 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면 배 터져 죽고, 양이 큰 자에게 너무 적게 주면 굶아 죽나니  
각기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 (道典 6:87:2~4)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본래 도통이란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자연과 하나된 인간으로 사는 삶, 이것이 도통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제1의 정의다.

그런데 도통의 실제 경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천상과 지상의 삶을 통해 세상에 얼마나 큰 공덕을 끼쳤느냐,

인류문화에 얼마나 큰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세운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천지에서 내려주는 신권神權, 도권道權을 받아,

신도를 부릴 수 있는 지존의 인간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해와 달도 명만 내리면 운행을 멈추느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거늘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세 번 누르시며 “가지 말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세 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니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더라.

증산도 道典 4:111

### **천지조화로도 어려운 법을 행하심**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일으키기는 쉬우나 오직 눈 온 뒤에 곧 비 내리고,  
비 온 뒤에 곧 서리 치게 하기는 천지조화로도 오히려 어려운 법이라.

내가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리라.”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과연 눈이 내린 뒤에 곧 비가 오고, 비가 개자 곧 서리가 치니라.

증산도 道典 4:76

### **모든 법을 합하여 쓰심**

지난 임진왜란에 정란(靖亂)의 책임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 일에 지나지 못하고  
진묵(震?)이 맡았으면 석 달을 넘기지 않고

송구봉(宋龜峯)이 맡았으면 여덟 달 만에 끝났으리라.’ 하니

이는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법술(法術)이 서로 다름을 이룸이라.

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증산도 道典 4:7](#)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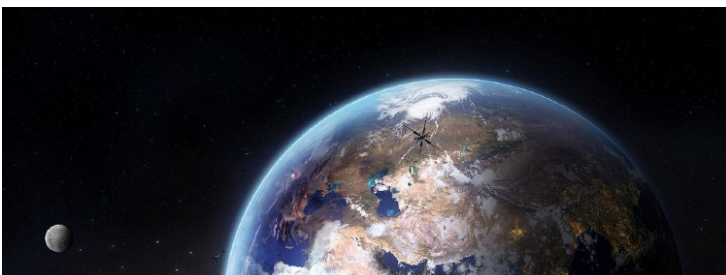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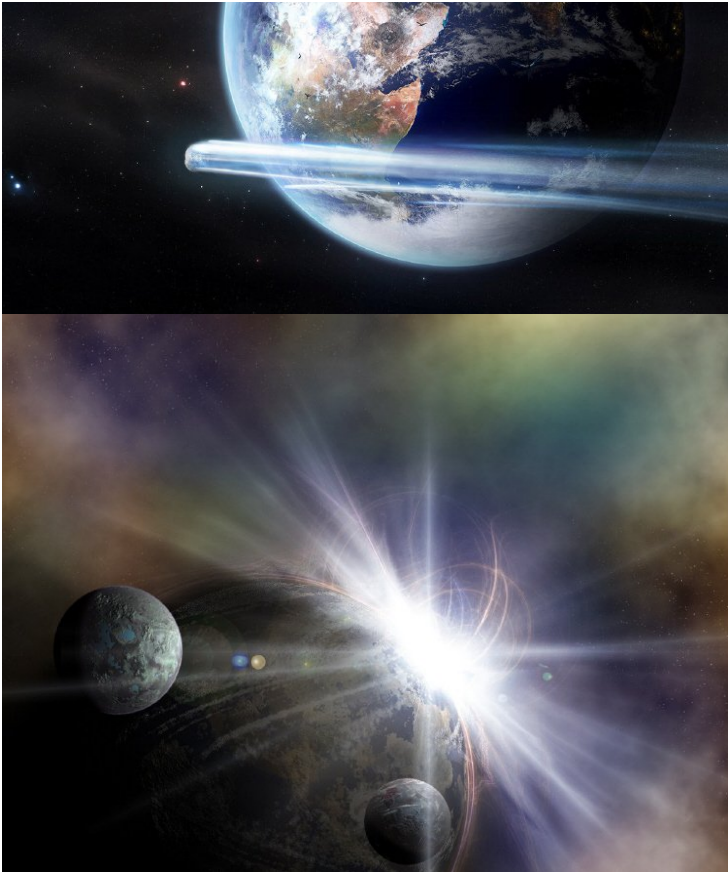
# 17

상제관(16)-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집행하신 상제님





## 천지공사의 대의(大義)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뭇 생명의 원(冤)과 한(恨)을 풀어 주시고 후천 오만년 지상 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상제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라.

이로써 하늘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도(神道)와 인사(人事)를 조화(調和)시켜 원시반본(原始返本)과 보은(報恩)·해원(解冤)·상생(相生)의 정신으로

지나간 선천상극(先天相克)의 운(運)을 끝막고 후천 새 천지의 상생의 운수를 여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만고원신(萬古冤神)과 만고역신(萬古逆神), 세계문명신(世界文明神)과 세계지방신(世界地方神), 만성선령신(萬姓先靈神) 등을 불러모아  
神明정부(神明政府)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이 도운(道運)과 세운(世運)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선경낙원(仙境樂園)이  
건설되도록 물샐틈없이 판을 짜 놓으시니라.      증산도 道典 5:1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末代)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否劫)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道典 2:42

나의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天地公事)라.      道典 5:3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道典 2:58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천지도수(天地度數)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道典 5:416

신축년(1901년)이후로 연사(年事)를 내가 맡았느니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느니라.      道典 2:13

지금 21c 세계역사는 증산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 그대로만 전개되어 가고있다.

##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천지공사**는 하늘땅을 뜯어고치고 인간역사를 바로잡아  
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공사**이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증산상제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언어이다.

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대권의 조화권능으로 병든 천지를 바로잡고 심판하여 이번 가을 개벽기에 인간을 구

원하시고

후천 오만년 새하늘 새땅을 여는 인류역사의 길을 짜놓으신 일이다.

천지공사는 기존 성자나 철인들과 같은 예언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나님은 기성종교의 성자들처럼 단순히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 오신것이 아니다.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9년에 걸쳐 집행하신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근본 목적이며

선천 성자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우주 주재자만이 할 수 있는 인류구원의 법방이다.

천지공사는 앞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정표(프로그램)이다.

천지공사는 증산도진리의 핵심이며 1901년 ~ 1909년. 9년간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전 인류의 생사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다.

## 우주 여름철 말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 - 상제님 지상강세

우주의 선천 여름철 세상이(1년 365일 시대) 끝나고 후천 가을시대(1년 360일)가 도래하는

가을개벽을 눈앞에 두고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간역사에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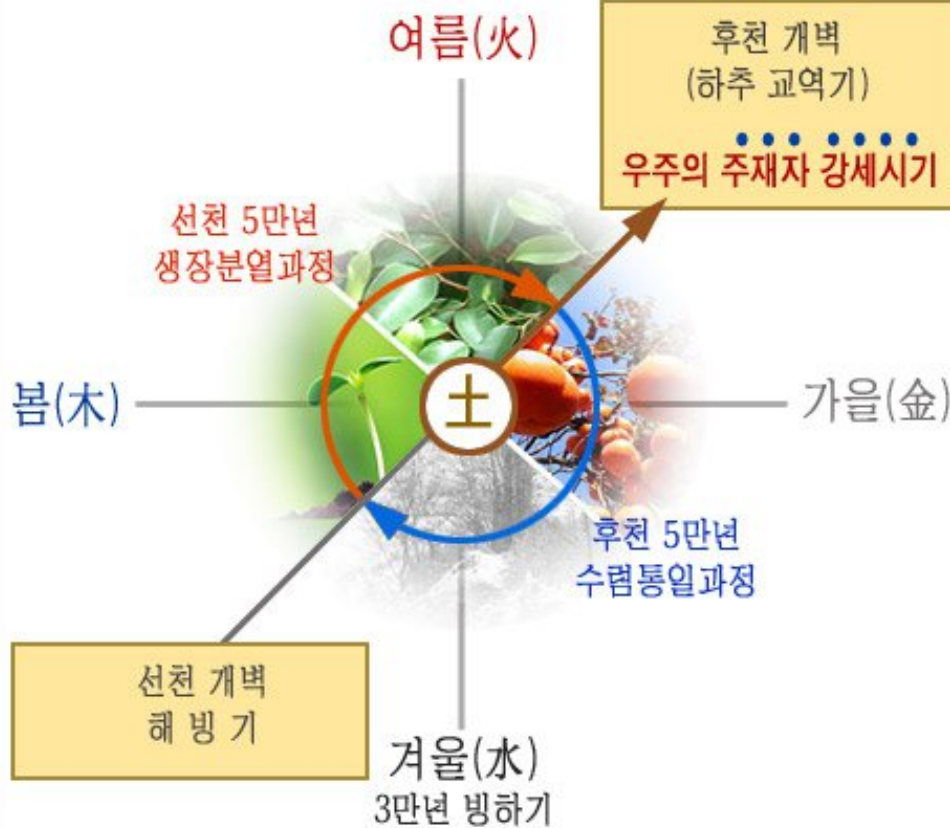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원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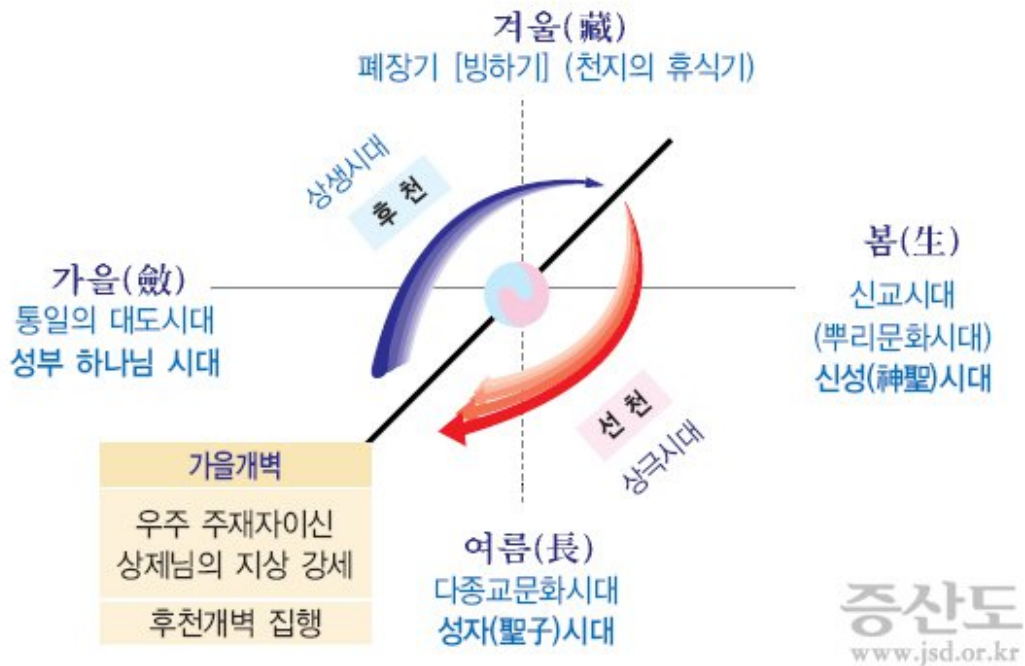
공자·석가·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도전 2: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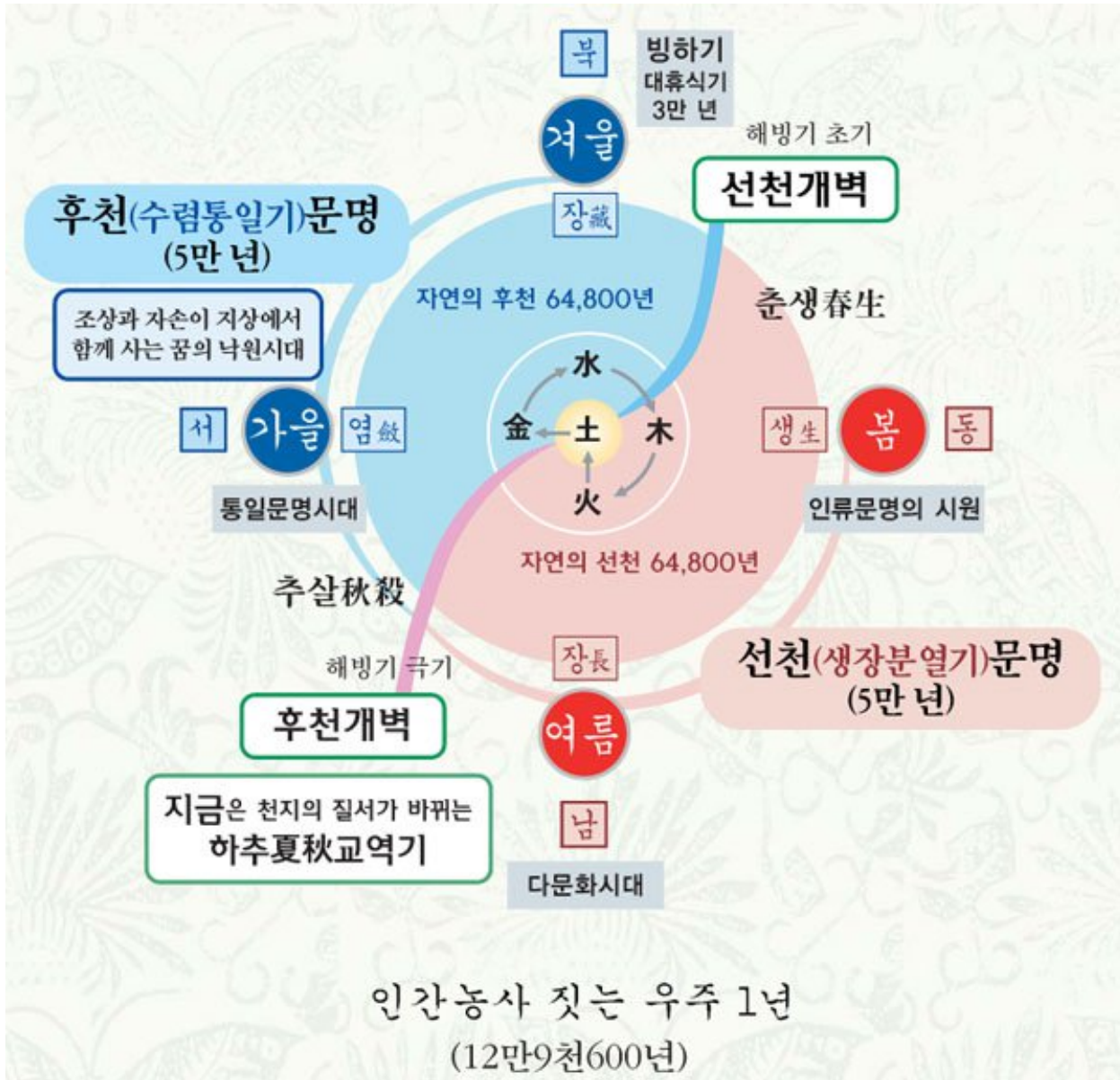
## 증산도 소개 영상





우주1년 129,600년만에 자연섭리에 따라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오직 단 한번만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강세하시는 우주의 **조화주 하나**  
**님!**





# 하나님께서 창도하신 증산도

“개벽을 밝혀주는 증산도를 알고나니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甌  
山  
道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 18

상제관(17)-상제님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증언한 사람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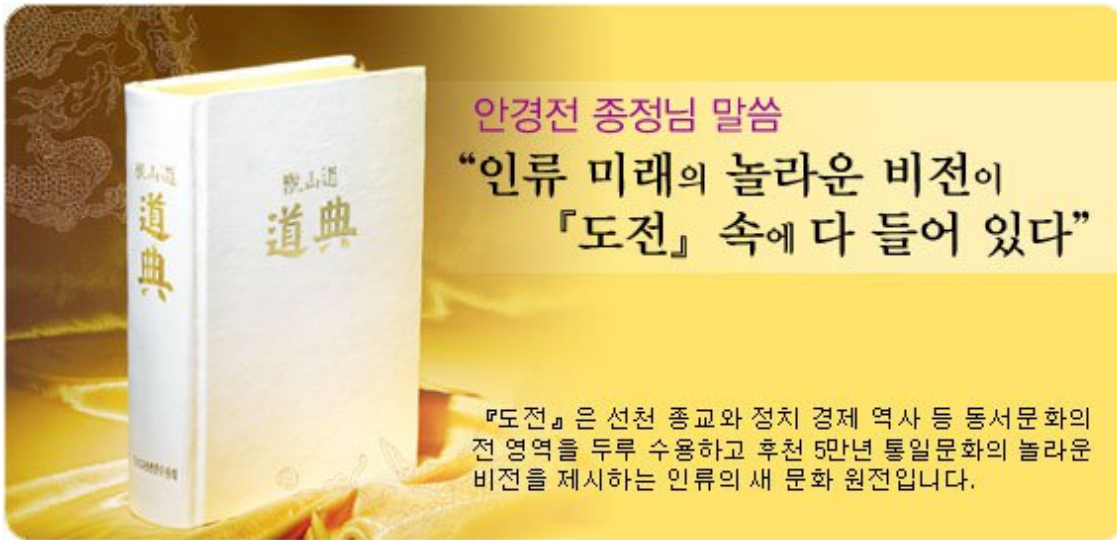


##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증언한 사람들..



9년 천지개벽공사를 집행하여

신천지 후천 5만년 조화선경세계를 여시는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



동영상 -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도맥





**도전道典**에 담긴 증산상제님 **천지공사**를 증언한 사람들...

\*도전道典

\*도전증언자

## 개벽공사의 비밀을 밝힌 증언자들

### | 상제님 9년 천지공사 전체 증언자



김호연(1897~1992)

네댓 살 때부터 상제님께서 업고 다니시며 김형렬 성도와 함께 상제님 천지공사의 증언자로 세우신 소녀 호연은, 무진(1988)년 가을 우리 일꾼들과의 첫 만남 이후 상제님 천지공사 보시던 모든 상황과 구체적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였다.

### | 상제님과 김형렬 성도 증언자 | 상제님의 유년시절 증언자



김현식(金鉉植, 1918~)

어머니 이정숙이 전해준 상제님의 성적과 조부인 김형렬 성도에 관해 증언했다.



황공규(黃貢奎, 1914~)

유년 시절의 상제님을 직접 본 황준재 훈장의 생생한 증언은, 김락원 교단에서 신앙한 그의 후손 황공규 씨를 통해 전해졌다.

### | 안내성 성도 증언자



안정남(安呈南, 1929~)

아버지 안내성 성도의 무릎에 앉아 상제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윤기택(尹琪宅, 1927~)

안내성 성도의 교단에서 평생을 신앙한 윤창주의 아들



배은실(裴銀實, 1935~)

안내성 성도의 제자 배학범의 딸

## | 백복남(운기) 성도 증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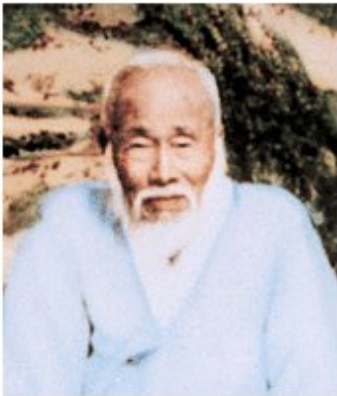
강야모(1915~ )



백복식(白福植, 1945~ )

백복남 성도와 관련된 증언은 그의 부인 강야모와 둘째 아들인 복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때가 될 때까지 절대 입을 봉하라'는 복남의 당부에 따라 깊이 묻혀 있던 중요한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 | 태을주 주인공 김경수 증언자



김락원(金洛原, 1890~1973)



김상용(金相用, 1941~ )

안내성 성도의 도문에 들어가 평생 신앙한 김경수 대성사 집안의 후손 김락원은 손자 김상용에게 태을주의 주인공인 김경수 대성사에 얹힌 이야기와 집안 신앙의 비극의 역사를 전하였다.

## 개벽공사의 비밀을 밝힌 증언자들 2

### | 문공신 성도 증언자



문복환(文福煥, 1919~2006)



박인규(朴仁奎, 1912~2001)



오채문(吳彩文, 1913~2000)



김성섭(金成燮, 1910~ )



김일빈(金日彬, 1926~2001)

문공신 성도의 아들인 문복환과 문공신 성도를 직접 모신 제자인 박인규, 오채문 그리고 박인규를 사사한 김성섭에 의해 문공신 성도와 관련된 주요 성구들이 채록되었다.



## | 박공우 성도 증언자



김일화(金一和, 1886~1958)



김천수(金千洙,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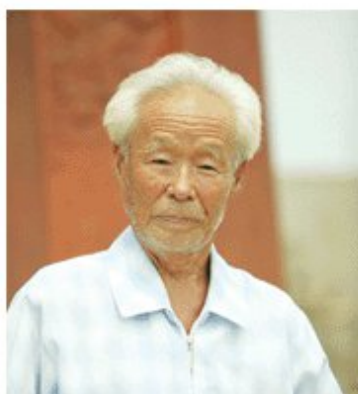
이양휴(李良休, 1914~2002)



전수재(全手才, 1917~)



이동술(李東述, 1893~1971)



이판규(李判奎, 1930~2004)

박공우 성도를 한 평생 아버지처럼 모시고 다닌 김일화는 박공우 성도로부터 직접 들은 증산상제님의 공사 성적을 아들 김천수에게 15년 동안 전했다.

또한 박공우 성도의 제자인 이동술의 이판규, 전이진의 아들 전수재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였다. 또한 이양휴도 박공우 성도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

## | 김자현 성도 증언자



김택식(金宅植, 1914~)

아버지 김태진으로부터 조부 김자현 성도의 행적을 전해 들었다.



이석찬(李錫燦, 1915~2004)

할아버지 이치안 성도와 아버지 이직부 성도의 행적을 증언하였다.



이왕선(李旺善, 1934~)

마이산 공사에 참여한 이갑룡 처사의 손자이다.

## | 이치안, 이직부 성도 증언자

## | 이갑룡 처사 증언자

## | 12성도를 직접 만난 증언자



이종선(李鍾善, 1884~1964)



나승렬(羅承烈, 1923~)

구릿골에 살던 이종선은 상제님 천지공사에 수종 든 12성도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성도들에게서 숭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주요 개벽공사 이야기를 자식처럼 아끼던 도제 나승렬에게 전하였다.

## | 안필성 증언자



안일완(安逸完, 1940~)

상제님 친구 도수를 맡은 안필성 성도에 대한 증언은 그의 친손자 안일완에 의해 전해졌다.

## | 차경석 성도 증언자



차봉수(車鳳洙, 1930~)



주판례(朱判禮, 1890~?)

차봉수는 차경석 성도의 재종 손녀로 아버지 차순옥 성도와, 대흥리에서 태모님과 한 집에 살았던 어머니 손승례로부터 직접 들은 많은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인듯 실감나게 증언하였다. 주판례는 차경석 성도의 이복동생인 차윤경의 부인으로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수발할 당시의 일들을 전해 주었다.

## | 태모님 천지공사 전체 증언자



**이우인(李愚仁, 1930~ )**

태모님께서 공사의 유일한 증언자로 선언하신 전선필 성도를 만나, 태모님의 성언과 성적을 총체적으로 전해들은 이우인은 10년에 걸쳐 태모님의 공사말씀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정녀(金貞女, 1925~ )**

태모님을 주야로 곁에서 모신 박귀녀 성도로부터 열세 살 때 도를 받고 평생 어머니로 모시며 태모님의 공사 내용을 전해 들었다.

## | 상제님, 태모님의 성언 기록자



**김경도(金京道, 1914~1979)**

고민환, 전선필 성도와 사제지의를 맺은 후, 두 사람이 증언한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언, 성적을 수집하여 『대순전경』과 『고후불전』을 집필하였다.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19

상제관(18)-증산상제님의 친필

---

翠鳳



## 안양동 청련암에서 보신 용봉도수 공사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안양동 청련암(靑蓮庵)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나온다.

1903년 4월 박금곡 주지에게 ‘龍鳳(용봉)’이라는 머리를 맞대어 쓰신 글을 써서 주신다.

그 장소가 바로 청련암이다.

용과 봉은 음양일체이다. 용은 물의 조화를 상징하고, 봉은 불의 조화를 상징한다.

안양동(安養洞)은 편안할 안(安) 기를 양(養) 자를 쓰는데 안양이란 말은 극락정토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지명만을 보더라도 용봉도수 공사를 보신 이곳이 종통(宗統)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과 봉은 인사의 두 주인공을 상징하는데, 수화(水火)의 덕성을 가지고 오시는 두 분의 지도자를 나타낸다.

상제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면 상제님의 종통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용봉(龍鳳) 도수

1 계묘(癸卯 : 道紀 33, 1903)년 4월에 상제님께서 모악산 안양동(安養洞) 청련암(靑蓮庵)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보시니

이 때 박금곡이 수종 드니라.

2 상제님께서 11일 해 돋기 전에 공사를 마치시고 아침해가 솟아오를 때에 ‘용봉(龍鳳)’ 두 글자를 상하(上下)로 대응시켜

크게 쓰신 뒤에

3 그 원편에 작은 글씨로 ‘독존석가불(獨尊釋迦佛)’ 이라 써서 금곡에게 주시니

4 금곡이 상제님의 친필을 공손히 받아 먼저 깨끗한 종으로 싸고 다시 비단으로 고이 감아 보물처럼 보관해 두니라.

증산도 道典 6:8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7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0

상제관(19)-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진인도통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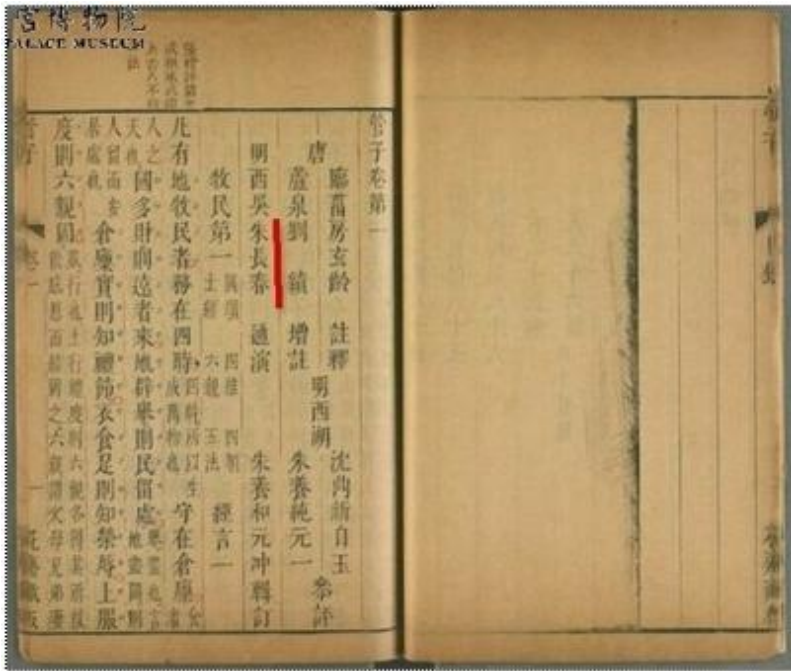
---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주장춘 (진인도통연계)



지리에 정통한 명나라주장춘의 【진인도통연계】

## 주장춘 저서



**진인도통연계(眞人道通聯系)**는 중국 명나라 신종때(1583년) 절강성 사람이며

진사 벼슬을 했 다고 전해지는 주장춘(朱長春) 선생의 대예언입니다.

이 진인도통연계 인걸은 지령이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명확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인류의 대성자들이 지맥의 신성한 영기를 타고 내려 오시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최종적으로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주의 절대자께서 증산(甌山)이란 도호로 한반도 땅에 금강산의 영맥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지맥의 원리로 뚜렷히 밝혀주고 있다.

이는 곧 공자, 석가, 예수의 지맥에 따른 출세 소식과 인류사의 대전환시대에 오시는 천상 지존(至尊)의 보좌에 임어(臨御)해 계신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 천지의 현기(玄機)를 꿰어지게 보고 전한 실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산지조종곤륜산 원명 수미산야)

山之祖宗崑崙山은 原名이 須彌山也라.

(곤륜산제일지맥 입우동해 생유발산)

崑崙山第一枝脈이 入于東海하여 生儒拔山하고

(유발산 생니구산 기맥칠십이봉)

儒拔山이 生尼丘山하여 起脈七十二峯이라

(공자 칠십이명도통야)

孔子는 七十二名道通也라.

산의 근원은 곤륜산이니, 곤륜산의 본래 이름은 수미산이니라.

곤륜산의 제1맥이 동해쪽으로 뻗어나가 유발산을 일으키고,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아 72봉을 맺으니라.

공자가 니구산 정기를 타고 태어나 이 니구산 72봉의 기운으로

그의 제자 72현(賢)이 배출되니라.

---

(곤륜산제이지맥 입우서해 생불수산)

崑崙山第二枝脈이 入于西海하여 生佛秀山하고

(불수산 생석정산 기맥사백구십구봉)

佛秀山이 生釋定山하여 起脈四百九十九峯이라

(석가모니 사백구십구명도통야 )

釋迦牟尼는 四百九十九名道通也라.

곤륜산의 제2맥이 불수산(佛秀山)을 낳고 불수산이 석정산(釋定山)을 일으켜  
이 곳에 499봉이 솟으니라.

석가모니가 이 석정산의 영기(靈氣)를 타고 왔나니 그의 도통제자 499명이 나오니라.

---

(곤륜산제삼지맥 입우동해 생백두산)

崑崙山第三枝脈이 入于東海하여 生白頭山하고

(백두산 생금강산 기맥일만이천봉)

白頭山이 生金剛山하여 起脈一萬二千峯하니

(생증산 천지문호모악산하 도출어오야)

生甌山하여 天地門戶母嶽山下에 道出於熬也라.

(고 일만이천명도통야)

故로 一萬二千名道通也라.

곤륜산의 제3맥이 동방으로 쪽 뻗어 백두산에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금강산을 수놓아 1만 2천 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산(甞山)께서 오시나니

이 분이 천지의 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오도 熬道: 볶을 熬)를  
열어 주시나니 그 분의 도(道)는 ‘모든 진리를 완성’ 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

좀더 설명하자면 주장춘은

‘저 금강산 기운으로 미륵님이 오시는데, 호남 전라도의 시루산에서 인간으로 오신다.

그리고 모악산 자락에서 도통을 여신다.’ 고 하며

“도출어오야(道出於熬也)라.” 고 했습니다.

천주이신 미륵님의 도가 볶을 오(熬)자, ‘오도(熬道)’ 라는 것입니다.

오도 熬道란 무슨 뜻일까요?

선천에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명도, 우주만유가 생장 과정에서 미성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옹 하나님의 화권으로 이것을 개혁하여 익힙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우주만유를 성숙으로 재탄생케 하는 궁극의 도법, 이것이 오도입니다.

※오도(熬道)의 의미

오(熬)는 원판 강희자전에 팔진지일순야(八珍之一淳也)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께서 "일순(一淳)"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에 강세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신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1

상제관(20)-상제님 강세를 예고한□최수운 대성사□

---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최수운 대성사



### 동학 최수운 대성사의 시천주 侍天主 선언

동학의 창시자 水雲 최제우



동학 최제우 (1824-1864) 경북 월성출생. 호는 수운(水雲)

동학의 핵심사상은 「시천주(侍天主)사상, 무극대도출현, 개벽사상」이다.

동학은 상제님으로 부터 천명과 신교를 직접 받은 仙道 이다.

상제님은 또다시, 한 인물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조선말 혼란했던 시절, 경주 구미산 자락에 있는 용담정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깨달음을 얻기위해 수도하던 사람. 바로 수운 최제우입니다.

1860년 경신(庚申, 1860)년 4월 초 닷새날, 용담정에서 수도를 하던 최수운은

문득 온 몸이 떨리는 가운데 상제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上帝)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9

그리하여 최수운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선경을 여는 시천주(侍天主)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제우 선생은 자신의 사후(1864년 甲子) 8년뒤(1871년 辛未)에  
조선땅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한다는 소식을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동학의 세가지 핵심사상

### 1. 시천주侍天主 사상 (천주님, 한울님 강세선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니

만사를 알게되는 그 큰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하옵니다.

한울님이 내몸내어 아국운수 보전하네, 사람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라. 나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믿고!

### 2. 무극대도 출현

천명을 받아라. 주문을 받아라. 대도를 펴라!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전40은 내려니와 후40은 뉘련가!

### 3. 가을개벽과 병겁도래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한울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개벽 운수 죽을 염려 있을쏘냐!

최수운 선생은 1864(甲子)년 세상을 뜨면서 엄청난 소식을 민중에게 전해주었다.

「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천하의 무극대도가 8년이 더디도다」 하면서

자신의 사후 1864(甲子)년 8년 뒤에 1871(辛未)년에 한울님(상제님)께서  
조선땅에 직접 강세하실 것을 뚜렷히 예고 하였다.

최수운 선생의 이 예언 그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조선말 1871년(신미), 한반도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었다.

또한 전 40은 내려니와 후 40은 뉘련가! 라고 예언한 대로 최수운 선생은 40세에 생을 마감하시고  
증산상제님께서도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기유년(1909년) 40세에 천상 옥경 보좌로 환궁하시었다.

너희는 겨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강토에 강세하시게 되므로 사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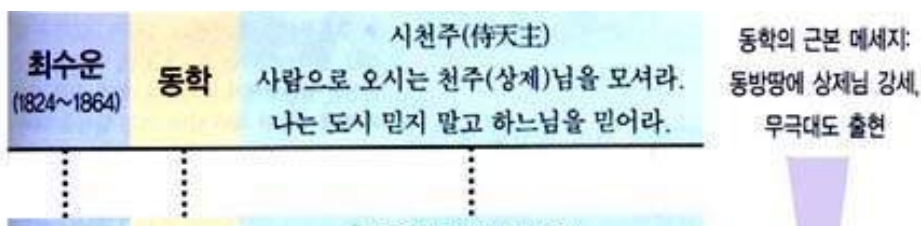
동경대전과 수운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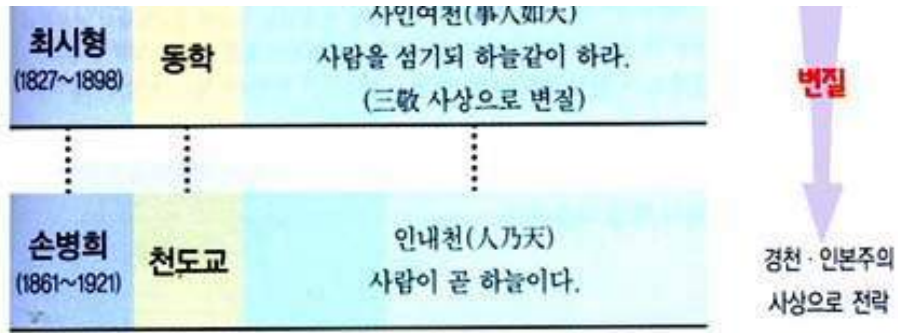
동학주문에 시천주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수운가사는 수운이 노래한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니라.

道典 2:30,31

## 동학사상의 변질과정





##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 카오프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2

상제관(21)-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정역 김일부 대성사



정역의 완성자 김일부 대성사의 상제님 강세소식과  
가을개벽이후에 펼쳐지는 1년 360일 시대 도래 선언!



근세에 상제님의 강세를 역(易)의 이치로 예고한 분이 또있습니다.

그분은 조선말의 대철인인 김일부(金一夫) 대성사 입니다.

일부(一夫) 김항(1826~1898) 선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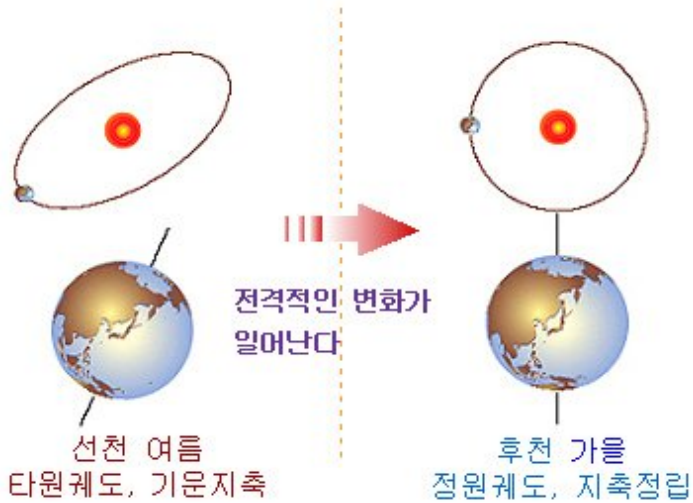
우주의 대개벽의 신비경을 파헤쳐 정역을 완성하면서 결론으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의 주재자가 직접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사실과 **가을 개벽이 되면**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이 모두 똑같이 정도수로 운행된다는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설로만 전해오던 천지개벽이 일어나 지축이 정립되어

지금의 **365(¼)일이 → 360일시대로** 바뀐다.

**지축정립** - **타원**궤도에서→**정원**궤도로 전환



충청도 연산에서 태어난 김일부 대성사는 36세에 연담 이운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뒤, 아침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恩津)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며,

역학 공부에 정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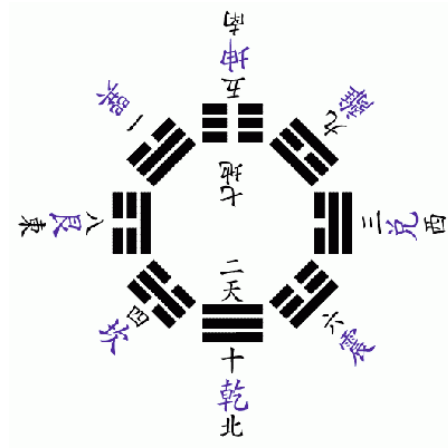
54세 되던 1879년 기묘년에 이르러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하여지고 알수 없는 괘획(卦劃)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성사는 그후 3년의 정진 끝에 그것이 공자의 예시임을 깨닫고 마침내 실로 황홀하기 그지없는 우주대개벽의 신비경을 파헤친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를 그리고 1885년 을유년에 드디어 정역(正易)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정역의 핵심 내용**은 '구원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서 후천 가을개벽의 정역 시간대 기운을 타고 조선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역팔괘도** - 1년 360일 후천시대를 상징하는 괘상임





복화팔괘(아침, 봄, 生)	문왕팔괘(점심, 여름, 長)	정역팔괘(저녁, 가을, 成)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해가 정남에 떠 올라 있는 모습	해가 서쪽으로 진 상태 양기가 내부에 수렴된 모습
생명을 낳는 때로 1태극(1乾)이 주재함	성장하는 때로 5황극(괘도 안쪽의 공백)이 주재함	열매 맺는 때로 10무극(10乾)이 주재함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未生之前)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已生之后)	성장이 멈추고 정신의 완성을 이룬 모습
마주보는 수의 합 : 8	마주보는 수의 합 : 9	오행의 음양끼리 마주본다.
8수도數圖	9數圖	10數圖
5,600년전 배달국의 태호복희	3,000여년 전 주(周)나라 문왕(文王)	120여년 전 조선 김일부
우주의 봄철에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는 원리	우주의 여름철에 오황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분열하고 성장해 나가는 원리	우주의 가을철에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십무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원리
생역도(生易圖)	윤역도(潤易圖)	성역도(成易圖)
태극 팔괘도	낙서 팔괘도	하도 팔괘도
정음정양	난음난양	정음정양
천지비(天地否)	화수미제(火水未濟)	지천태(地天泰)
선천팔괘도		후천팔괘도
우주의 봄 여름철에 기운이 중앙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식으로 안에서 밖을 보면서 괘를 그린다.		우주의 가을철에 기운이 수렴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보고 그린다.

김일부 대성사는 정역에서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맑고 밝음이며, 일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일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낙원세계 되는구나!

우주조화의 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는 상제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서

성사되는 줄을 그누가 알았으리오!

靜觀于宙無中碧 誰識天工待人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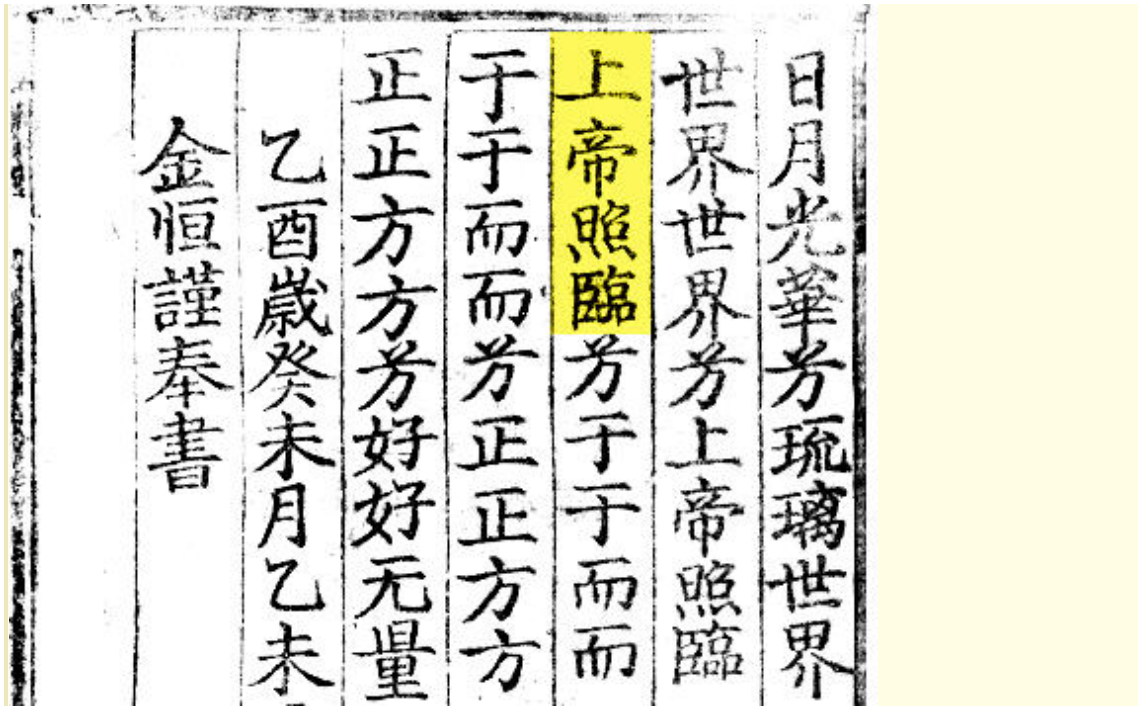
(정관우주무중벽 수식천공대인성)

상제님께서 성령의 눈부신 빛으로 친히 강세하시도다!

上帝照臨 (상제조림) 이로다.

正易 布圖詩 중에서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용화낙원을 건설하시는 미륵불이 바로 상제님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도 결국은 인간으로 반드시 오시게 되어있다 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一心)으로 돌고 도는 천지일월도, 지상에 강세 하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그 공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정역이 제시하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정역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아 강세 소식은 천지개벽기에는 상제님이 지상에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축이 정립하여 계절의 변화가 없어지고, 일년은 360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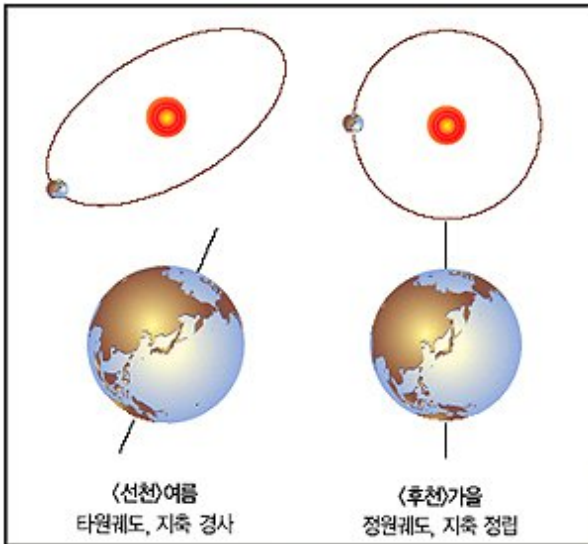
정역이 전하는 개벽 문제의 핵심은 지구 자전축의 정립과 공전궤도의 변화입니다.

서양의 술한 예언가들이나 기성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끔찍한 천재 지변의 대환란은 모두,  
지구 자전축이 변동할 때 일어나는 지각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더불어 지구의 공전궤도 역시 타원에서 정원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예언가들의 경우는 지축의 변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역의 철학체계는 지축이 변동하는 각도까지 정확히 밝혀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3도 정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은 똑바로 정립한다.



이러한 천체 이동에 따라 지구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년의 날수도 365일에서 360일로 바뀌고,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춘하추동의 계절 구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천지의 음양기운이 고르게 되어,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일치하게 됩니다.

현재의 달력은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는 새로운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어 '신천신지(新天新地)의 새 우주질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최수운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일부가 내 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 [카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3

상제관(22)-상제님 강세를 간절히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

## 상제님 강세를 간절히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선천 역사에서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인물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이마두 대성사(1552~1610)  
본명 마테오 리치.

## 선천 역사에서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인물

이마두(마테오리치, 1552~1610).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로서 카톨릭을 전도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평생 중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천주가 중국인들이 믿는 상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실의가 전해온다.

평생을 인류를 위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단신으로 천주님 신앙을 전도 하였으며  
인류구원을 위해 천주님의 지상강세를 간절히 염원했던 인류의 위대한 봉사자이다.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입니다.

이후 그는 『천주실의(天主實義)』 외에도, 『교우론(交友論)』 등의 많은 저서를 통해,  
서양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중국에 소개하는가 하면,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  
하는 등,  
동서문화를 교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역만리 중국땅에서 영면하였습니다.

## 천지신명이 받드는 마테오 리치 대성사

이마두의 공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천지신명들은 그를 떠받드나니

이마두는 신명계(神明界)의 주벽(主壁)이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보좌하여 모든 것을 말아보고 있나니 너희는 마땅히 공경할지라.

증산도 道典 4:12

## 마테오 리치 대성사의 큰 공덕

이마두(利瑪竇)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시대에 신명계의

주벽(主壁)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隱微)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積弊)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띄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地境)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地下神)이 천상에 올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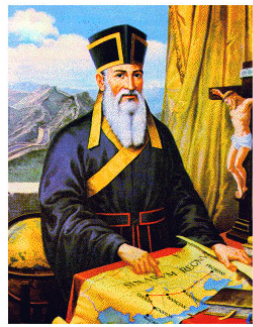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 내려 사람에게 ‘알음귀’를 열어 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뒀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文明利器)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증산도 道典 2:30

## 상제님 강세를 하소연한 **이마두 대성사** (마테오리치 신부)



이마두 대성사(1552~1610)  
본명 마테오 리치.

天主何? 上帝也. **천주란?** **상제다.**

『천주실의 초판의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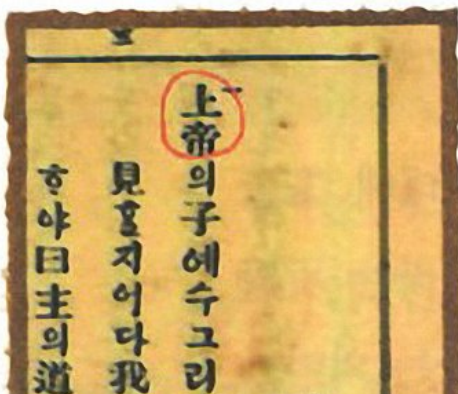
(풍응경(馮應京 1555~1606)

마테오리치 신부는 예수회 소속의 이탈리아인 신부로서 중국에 와서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유교, 불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곧 '**상제님**'이심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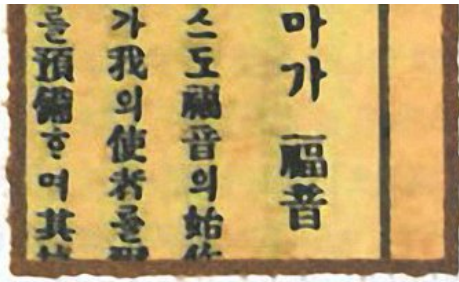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신약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에 보면 상제上帝의 자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는 **상제**를 **천주**天主 라고 표기했다.



죽어서 신명이 된 그는 하늘나라에서 지구문명 개발에 역사하여,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근대 과학문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 성서가 처음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 보면 '상제의 자子 예수 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 '상제'를 '천주'라 했다. 상제관은 다신 문화의 신관이며 상제는 우주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주신이란 뜻이다.

그러나 점차 문명은 물질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서양열강들은 발달한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앞다투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의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혈투와 착취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덕을 외면한 물질문명은 인간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마테오 리치는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을 이끌고 천상 옥경에 계신 상제님을 알현하고, 인류와 신명계의 총체적인 큰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증산 상제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事理)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殘暴)를 길러 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 없이 범행하니, 신도(神道)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劫厄)을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대법국 천개탑(베드로 성당)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





01

02

03

#### 01. 베드로성당 전경

#### 02. 베드로 성당 안에서 천개탑을 올라다 본 모습

#### 03. 베드로 관이 안치된 베드로 성당 내부

천개탑은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조각가이며 건축가인 베르니니(이탈리아, 1598~1680)가 1633년 6월29일 100여톤의 청동으로 만들었다. 천개탑은 천개를 포함한 건물의 첨탑과 돔 부분 전체를 말한다. 상제님께서 마테오리치 신부의 하소연을 듣고 지상에 강세하실때, 대법국 천개탑 곧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으로 임어하시어, 리치신부의 믿음에 응감해 주시고 또한 서양의 2000년 천주교 신앙의 뿌리가 바로 상제님임을 밝혀주셨다.

### 김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승(중) 진표(眞表)가 석가모니의 당래불(當來佛) 찬탄설게(讚歎說偈)에 의거하여

당래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至心祈願)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

최수운(崔水雲-최제우)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 능히 유교의 테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神道)와 인문(人文)의 꾀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甲子: 道紀前7,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辛未: 道紀1, 1871)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수운가사(水雲歌詞)에서 말하는  
‘상제’ 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道典2:30

동학 최수운(崔水雲-최제우)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24

상제관(23)-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남사고

---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남사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전해주는 상제님 강세예고



격암 남사고(1509~1571년)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

일명 격암유록으로 유명하다.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으며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한다.

어렸을때 울진 불영사를 찾아가다가 도승을 만나 비술, 진결을 전수받아 도를 통했다.

그가 전한 예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첫째> **후천개벽**은 반드시 일어난다.

둘째> 하나님이신 상제님(**미륵불**)께서 직접 이 땅 한반도에 강세 하신다.

셋째> 이 개벽기에 살기 위해서는 '소울음 소리(**태을주**)'를 내는 곳을 찾아가 수도하고  
못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인**(海印)'이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것이다.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할 정도로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

격암 남사고(1509~1571년, 격암유록 저자)는 조선 명종 경북 울진 출생으로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에 통달하였는데 그역시 말하기를..

석가 입멸 후 약 3천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강세하시는데

그는 미륵이 출세하더라도 기성종교의 맹신적 묵은 관념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깨치는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入山修道念佛님네 彌勒世尊苦待치만 釋迦之運去不來로 한번가고 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豫言 當末下生彌勒佛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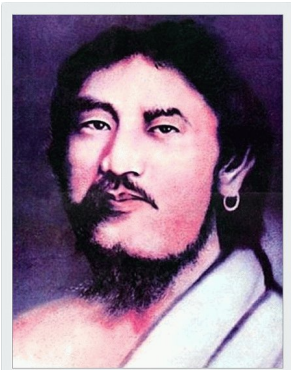
彌勒佛이 出現컨만 儒佛仙이 腐敗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산에 들어가서 수도(修道)하는 승려들이여! 미륵세존(彌勒世尊)을 고대하라.

석가(釋迦)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삼천년의 운수로 자신의 도(道)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하였도다...

미륵불이 출현컨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 석가모니 부처는 5백 년 마디로 자신의 불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후 1,500년이 지나면 법란(法亂)을 겪게 되고 파계 승가(僧伽)가 많이 출현하여,

정법이 음몰(陰沒)되는 말법(末法)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석가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에 자기 아들인 라훌라와 수석제자인 가섭과 군도발탄,

빈두타 등 4대성문에게 천상의 도술천을 손으로 가리 키며 중대한 선언을 했다.

"너희들은 내 법(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뒤 말법시대가 오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님의 도(道)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했다.

## 미륵 상생경

말법의 이때에 그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케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금 있는 것에서 본래의 선근을 따라서 성숙케 하려는 것이니라.

## 화엄경 입법계품 제28장

### ■ 사는길과 죽는길이 이것이다

萬物之靈 失倫獸從者必死

만물지영 실륜수종자필사

나를 살리는건 수도(修道)이고 죽이는건 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짐승길을 걷는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 ■ 세계를 구원할 생명의 도(道)는 어디에

千鷄之中有一鳳에 어느聖이 眞聖인고 眞聖一人알랴거든 牛聲入中차자들소

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알랴거든 우성입중차자들소

천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소리**가 있는곳을 찾아드소.

英雄豪傑賢人君子 大官大爵富貴者야 都賣金에 넘어가리

영웅호걸현인군자 대관대작부귀자 도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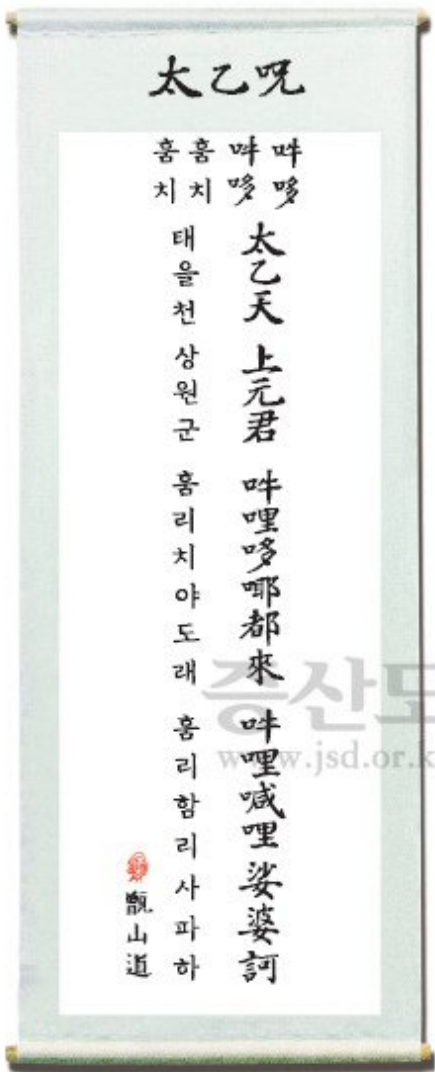
自下達上理致로써 牛鳴者가 先來로다

자하달상이치 우명자 선래

아래에서 위로 구원이 미치는 이치로서 영웅호걸 현인군자 대관대작 부귀자는 도매금에 넘어가리니  
소울음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증산도 태을주 !

흙치흙치 태을천 상원군 흙리치야도래 흙리함리사파하!



흙치 흙치

‘흙, 은 ‘입 구口’ 자와 ‘소 우牛’ 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 울음소리’ 를 상징한다.

본래 ‘흙’ 은 우주의 근원소리로 ‘종자 음절seed syllable’ 이라고 한다.

‘흙’ 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다.

치, 는 ‘소 울음 치, 자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됨’ 을 뜻한다.

흙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 듯이

창생이 한울님을 부르는 소리요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道典 7:74

❖ 태을주(太乙呪)는 인류의 생명수이다. 생물에게 산소와 같은 것이다.



태을주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젓줄  
이요, 생명줄이다. (증산도 종도사님 말씀)

## ■ 인류문명의 새로운 시작은 동북 간방(艮方)의 한반도에서

天下文明始於艮 禮義東方湖南 人王四維全羅道 道通天地無形外  
천하문명시어간 예의동방호남 인왕사유전라도 도통천지무형외

천하의 문명이 간방(艮方)에서 시작하니 조선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무극(無極)의 도라.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 ■ 사람살리는 인류구원의 극비는 해인(海印)이다

倒山移海海印用事 任意用之往來하며 無爲理化自然으로  
도산이래해인용사 임의용지왕래 무위이화자연

白髮老軀無用者가 仙風道骨更少年에 不老不衰永春化  
백발노구무용자 선풍도골갱소년 불노불쇠영춘화

病人骨髓不具者 死者回春更生하니 不可思議海印일세  
병인골수불구자 사자회춘갱생 불가사의해인

십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비참한 운수로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위이화로 늙은자가 소년되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도 살려내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 이로다.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인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인을 받으면 장차 모두 신선이 된다는 말이다

### ■ **해인(海印) 소식을 모를까봐 너희 조상님이 한탄 하신다**

先塋父母靈魂 다시살아 相逢하리 神神차려 海印알소  
선영부모영혼 상봉 신신 해인

無窮造化限量없네 너의 先塋神明들은 不知일가 歎息이라  
무궁조화한량 선영신명 부지 탄식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상봉하리라.  
정신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무궁조화가 한량이 없도다.  
너의 선영 조상신명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도다.

해인이란 개벽기에 살수있는 구원의 생명줄이다.  
해인은 태을주 수행(소울음 소리)을 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천상의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이 해인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구원의 **조화신물(神物)**, 증산도 해인(**海印**)의통(醫統)

## 태을주(太乙呪)와 의통(醫統)



태을주 조화 : 무형의 神權

해인 의통 : 유형의 神權

상제님께서는 개벽기에 대병겁이 전인류를 휩쓸때 인류구원의 법방으로

태을주와 의통을 내려 주셨다.

의통醫統이란, 병든 세계를 고치고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이다.

머지않아 가을개벽의 추살기운으로 병겁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어떠한 약도 무용지물이 되어 전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절대권능의 구원의 신패가 의통이다.

이러한 의통으로 전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대업을 의통성업醫統聖業이라 한다.

이 의통은 실재하는 신물神物로서 무형의 신권神權인 태을주 太乙呪와 유형의 도권神權인 해인의통 海印醫統이 있다.

### ■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月無光塵霧漲天 自古無今大天災로 天變地震飛火落地

일월무광진무창천 자고무금대천재 천변지진비화락지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 ■ 서신사명(西神司命) 무극대도 출현

小頭無足飛火落地 混沌之世 天下聚合此世界 天組一孫哀嗟呼  
소두무족비화락지 혼돈지세 천하취합차세계 천조일손애차호

不知三聖無福歎 此運西之心 彼賊之勢哀悽然  
부지삼성무복탄 차운서지심 피적지세애처연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니 혼돈한 세상에서 천하가 한 곳에 모이는 세상이라,  
천명의 조상에 하나의 자손이 사는 이치라 슬프도다

세 성인(공자 석가 노자)이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도다.  
이 때의 운은 서신사명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어라.

선천 종교의 종장들인 석가,공자,노자의 법으로는 살아 날 길이 없고  
서신사명 西神司命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대도의 가르침속에 개벽을 넘을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  
다는 말이다.

143년 전(1871년)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전라도 고부땅에서  
상제님의 대도(무극 대도)가 나와 인류구원의 법방을 가르친다는 말이다

※ 서신사명이란 불가의 서방정토세계(극락)를 건설하는 미륵불(상제님)의 사명을 뜻한다.

## ■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진경(道典)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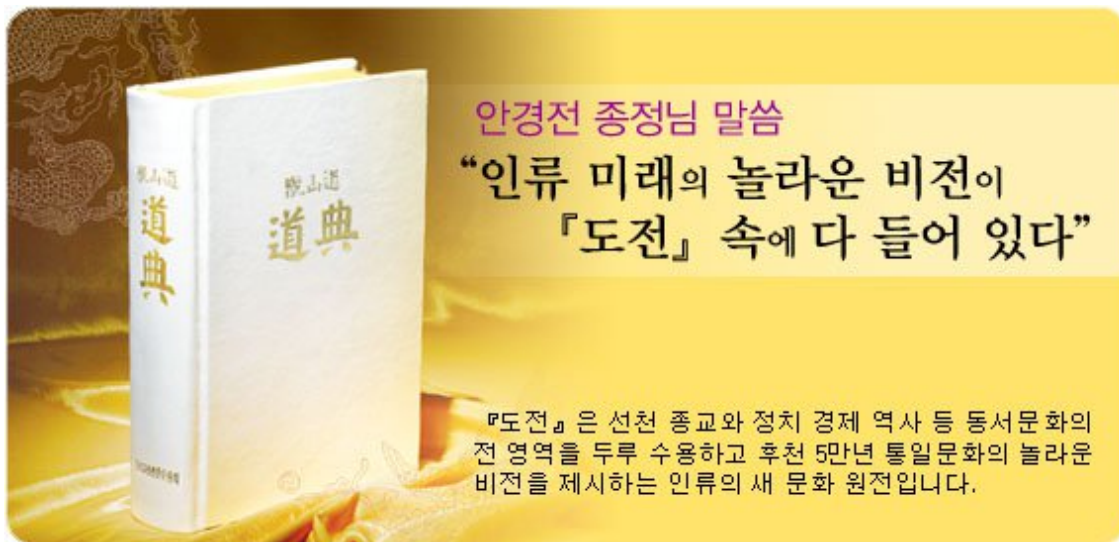
上帝豫言聖眞經 生死基理明言判  
상제예언성진경 생사기리명언판

無聲無臭別無味 大慈大悲博愛萬物

무성무취별무미 대자대비박애만물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러운 진경(道典)은 생사의 이치와 심판의 말씀이 명백하니  
소리없고 냄새없고 별맛이 없으면서 대자대비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말씀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우주만큼  
귀하게 여기도다.

오직 상제님의 가르침이 담긴 道典의 내용대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 ■ 새로운 진리가 출현한다. (해원解冤의 도)

何不覺而亂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冤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어떻게 깨치지 못하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何不覺而亂世生 天降大道此時代 從道合一解冤知

하불각이난세생 천강대도차시대 종도합일해원지

각각의 도와 교가 신앙의 혁명을 주장하나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 어떻게 깨쳐서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커다란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 해원 解冤 이란?

생명의 원(冤)과 한(恨)을 풀러낸다는 뜻입니다.

해원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생명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서는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道義)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매 마침내 살기(殺氣)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道典 4:16)고 말씀 하셨습니다.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 [카카오톡](#) [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5

상제관(24)-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

##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설총



### 설총이 전한 미륵불 강세 대예언

설총은 신라 경덕왕 때의 대학자다. 원효대사의 아들. 우주의 한 소식을 들은 인물이다.

신라 10현(十賢)의 한 사람이며 강수, 최치원과 함께 신라의 삼문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불교사상에 정통하여 미륵불 강세소식에 대하여 놀라울만큼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

■ 미륵불은 조선말기에 출세하신다

한양의 운수가 다할무렵 용화세존(미륵부처)이 말대에 오시리라.

漢陽之運 過去際에 熔化世尊 末代來라.

■ 미륵존불은 여자 성씨로 오신다

인류 姓氏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되느니라. 이는 천도의 섭리가 본래 그런 까닭이니라.

根於女姓成女 天道固然萬古心이라.

■ 미륵불은 100년 전에 오시어 천지공사를 집행하신다

백년 전에 오시어 백년 후의 일을 집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이  
소울음소리는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百年後事百年前하니 先耳牛聲道不通이라.

■ 후천낙원문명 세계의 중심은 간방의 태전이다

艮方(한반도)의 태전은 용화낙원의 중심지라.

세계만국이(36궁)이 그 은혜를 조회하리라.

艮地太田龍華園이라 三十六宮皆朝恩이라.

■ 뒤에 믿는 자들의 신앙자세는 극히 게으르다

먼저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는 지극히 급했건만 늦게 믿는 자들의 걸음은  
어이그리 더딘고. 남은 개벽시간 방촌에 불과한데 게으른 신앙의 발걸음은 어찌할 것인가.  
[前步至急後步緩하니 時劃方寸緩步何리요.](#)

■ 인도(人道)는 끊어지고 창생들은 제 죄로 다 죽는다

배은망덕하고 의리 없음이여 군사부의 도는 다 어디갔는고  
예절도 의리도 없이 인륜의 도가 다 끊어졌도다.  
아, 가련토다 창생들이여 ! 모두 제 죄로 멸망당하는구나 !  
[背恩亡德無義兮여 君師之道何處歸오 無禮無義人道絶하니 可憐蒼生自盡滅이라.](#)



---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댓글](#) [307](#)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6

상제관(25)-상제님 강세를 약속받은 진표 대성사

---

## 상제님 강세를 약속받은 진표 대성사



**미륵불** 강세를 탄원한 구도자, **진표율사**

상제님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음

도승 진표율사(眞表律師)는 1,200여 년전 통일신라 경덕왕때의 도승이다. 12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불교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대도통을 하였다.



미래세계를 훑히 내다본 그는 이후로 우주의 선후천이 바뀌는 가을개벽의 시기에 미륵불께서 한반도에 강림해 주실것과 개벽기에 자신이 다시 태어나 인간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서원하였다.

동방 한반도 땅의 미륵불 대중화 신앙은 진표율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 진표율사의 초인적인 망신참법 구도과정

진표율사(眞表律師)는 27세 되던 신라 경덕왕 19년 부안 변산의, 산 중턱의 절벽 암자, 부사의방장에 들어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이라는 목숨을 건 수행으로 무섭게 정진하니 3일 만에 팔굽과 두 무릎은 부러지고 터져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힘줄이 드러났다.

이러한 초인적인 구도의 결과로 마침내 원각 대도통을 하여 천안을 열었다.

이에 수많은 천상의 성신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도솔천(兜率天)의 천주님이신 미륵존불을 친견하니

이에 진표율사는 인종씨를 추리는 가을 개벽기에 미륵불께서 우리 한반도에 강세해 주실 것과 그 때 자신도 다시 태어나 사람 살리는 큰 일꾼으로 써 주실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하였다.

"장하도다 대장부여! 계를 구하기 위해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이 뒤에 너는 이몸(육신)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펴라.”

이간절한 기도에 미륵불께서 감응하시어

"네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불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펴라"

율사에게 당시 금산사 내에 있는 “사답(寺答) 칠두락(마지기)” 정도 넓이의 연못인 용추못을 메우고 미륵존불의 모양의 불상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사라지니라.

이때가 신라 경덕왕 21년(서기 762년) 4월 27일 이었다.

삼국유사



미래에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 창건**



미륵불을 친견하는 원각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자신의 도의 경지에서 미래에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과 그때 석가불이 예언한  
대로  
미륵불의 지상강세 모습을 다시한번 환하게 내다 볼  
수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는 지금의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제1도장으로 창건하고 ,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법주사를 제3도장으로 창건하였다.

**삼국유사**

## **미륵불 조상의 신비- 밑없는 철 시루위에 뜬 미륵불**

진표율사는 미륵존불로부터 당시 금산사내에 있는 “사답(寺答) 칠두락(마지기)” 정도 넓이의 연못인 용추  
못(龍沼)을 메우고  
미륵존불 모양의 불상을 세우라고 계시를 다시 받는다.

그런데 불상을 세우기 위해 처음(762년 건립시작)에는 흙으로 못을 메웠는데, 이튿날 보면 다 파헤쳐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 때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숯(목탄)으로 메우라고 알려준다.

이에 진표율사는 도력(道力)을 써서 안질을 퍼뜨린 후

‘누구든지 안질을 앓는 자는 금산사 용소에 솥을 한 짐 집어넣고 못물로 눈을 닦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낸다.

안질에 걸린 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솥을 집어넣으니 그제야 연못은 메워지게 되었다.



금산사 석련대

진표율사는 연못이 솥으로 메워지자 미륵불상을 받쳐 세우기 위해 연못 한 가운데에다

연꽃모양을 조각한 큰 바위 (석조 연화대 또는 석련대, 현재 보물 23호)를 세웠으나,

무슨 조화에서인지 석련대(石蓮臺)는 밤 사이에 20여 미터나 떨어진 위치(현재 석련대가 있는 위치)로 옮겨져 버린다.

이 때 미륵이 꿈에 현몽하여 "야.. 이 미련한 놈아...!! 돌이란 직접 불에 들어가면 튀는 법이니라." 고 계시를 한다.

율사에게 다시 ‘밑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 조상하라’는 수기(授記)가 내려졌다.

이에 다시 진표율사는 연못 중앙에다 밑이 없는 대형 무쇠시루(甑)를 걸고 그 위에다

우물 정(井)자 형태의 나무 받침목을 얹은 다음 철로 된 미륵 불상을 세우게 된다(4년에 걸쳐 766년 완공).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12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오늘까지 전해져오는 석련대와 철수미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3존불이지만 원래 단독불이었다고 한다.

미륵불을 안치한 철수미좌



이리하여 울산가 무쇠 솥을 걸고 그 위에 33척의 금미륵 불상을 세우니,  
계시를 받고 장차 한반도의 남조선에 강세하실 미륵불의 모습을 불상으로 세워놓은 금산사 미륵전의 금미  
륵불상은  
높이가 10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입불상에, 이 금산미륵 불은 그 규모뿐만이 아니라 미륵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철수미좌(철시루) 위에 올라서있는 유일무이한 불상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불상의 좌대로 특이하게도 철을 사용했으며 그 크기가 지금이 2.5~3미터, 두께가 10센티미터,  
높이가 약 1미터의 원통형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밑 없는 시루를 걸라는 미륵존불의 계시는 앞으로 당신께서 직접 강세하실 도적 비의**를 말씀해주  
신 것이다.

이는 상제님께서 증산龜山(시루증.외산)이란 도호로 한반도에 강세하실것을 은밀히 비유하여 계시한것이  
다.

## 미륵불의 동방 조선 강세의 길을 연 진표 대성사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眞表律師)로부터 영어  
민중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金堤) 금산사(金山寺)의  
송제법사(崇濟法師)로부터 사미계(沙彌戒)를 받으니라.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庚子, 760)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기(授記)를 얻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니 그 순간 번갯빛처럼 나타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며시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에 놓고 사라지더라.

이에 큰 용기를 얻어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더욱 분발하니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하매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늘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金杖)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니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天眼)이 열리어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니라.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戒)를 구하다니.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須彌山)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전(不退轉)이로다.” 하고 찬탄하시니라.



이 때 미륵불께서 점찰경(占察經) 두 권과 증과간자(證果簡子) 189개를  
진표에게 내려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시니라.

원각(圓覺)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大聖師)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니  
이로부터 ‘밑 없는 시루를 걸어 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 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에 미륵전을 완공하니라.

이 뒤에 진표는 미륵불의 삼회설법의 구원 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제1도장, 금강산 발연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도장으로 정하고 용화도장을 열어 미륵존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십선업(十善業)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甌山道 도전 1:7

도승 진표율사는 1300여년 전에 뼈를 깎는 아픔을 디디고 우주의 대도를 정각하여  
미륵존불로부터 직접 계를 받은 분이다.  
통일신라시대 법상종의 창시자였으며, 지금까지 전하는 미륵부처님 신앙의 원맥은  
모두 이 분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진표는 나에게 대연(大緣, 큰 인연)이 있느니라. [道典 2:66](#)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道典 10:33](#)

---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공감 공감하기 베스트공감 >](#)

[댓글](#) [307](#)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 27

상제관(26) - 정감록이 전하는 미륵존불 강림과 인류의 심판

---

## 정감록이 전하는 미륵존불 강림과 인류의 심판



민중신앙이 되어 버린 정감록 비결은 본래의 내용은  
극히 간결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예언이 덧붙여 졌다.

정감록의 핵심은 오랜전부터 전해져 오는 다음의 3  
대 예언이다.

이는 도의 경지에서 미래의 시간대와 영계의 비밀을  
알고 전한

대단히 수준 높은 내용이 담겨있다.

각 예언의 구성은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殺我者誰),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活我者誰)로 반복되고  
있다.

## 1. 임진왜란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여인대화(女人戴禾)가 인부지(人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십팔가공(十八加公)이라.

임진왜란 때는 계집(女) 사람(人)이 벼(禾)를 인것이 사람인 줄을 모른다 하였는데,  
이는 왜(倭)자를 파자(破字)한 것으로 왜인의 침략으로 민족 전체가 화를 당하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자는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으로 말하고 있다.

당시 일본군이 조선으로 출병할때 일본 공주가 영기(靈氣)로 미래를 내다보고 성공치 못하리니 떠나지 말라 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떠나려고 하자, 그러면 솔 송(松)자를 조심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 2. 병자호란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우하횡산(雨下橫山)이 천부지(天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부토(浮土)는 온토(溫土)니 종토(從土)하라.

병자 호란때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흑한의 엄동설한을 틈타 쳐들어왔는데(1636년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이때 백성들이 미리 산으로 피난 가서 숨어 있다가 얼어 죽을 것을 말한 것이다.

비 우(雨) 아래 뫼산(山)을 가로로 하면 눈 설(雪)자 이며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은 "떠 있는 흙이 따뜻한 흙이니 그것을 따르라"했는데,  
이는 온돌방의 구들을 말한 것으로서 방에 가만히 있어야 살수 있다는 말이다.

### 3. 후천개벽 - 마지막 최후의 변국과 구원의 길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소두무족(小頭無足)이 신부지(神不知)라.

활아자수(活我者誰)오 사답칠두락(寺答七斗洛)에

부금(浮金)은 냉금(冷金)하니 종금(從金)하라.

엄택곡부(奄宅曲阜)라.

삼인일석(三人一夕)은 이재전전(利在田田)하니 도하지(道下止)하라.

살아자수(殺我者誰)오 소두무족(小頭無足)이 신부지(神不知)라.

장래에 닥칠 변국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가사의하게 말하고 있다.

당래에 인간을 모두 죽이는 것은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소두무족(小頭無足)인데,  
이것이 바로 천상 신도세계의 신명인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神不知).

이것은 개벽을 집행할 때 역사(役事)하는 천상영계의 신명들이다.  
즉 귀신 귀(鬼)자에서 작은 머리에 (') 다리가 없다 하였으니,  
다리 부분을 떼어버린 "불(귀신우두머리 불)이라는 훈과 음이 나온다.

이글자는 백보좌의 서신(西神) 심판을 대행하는 천상 군대(神軍)의 총지휘자인  
대신장(大神將)을 은밀히 암시하는 단어이다.  
이 천군의 대장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이다.



## 활아자수(活我者誰)오 사답칠두락(寺答七斗落)

나를 살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답 칠두락(寺答七斗落)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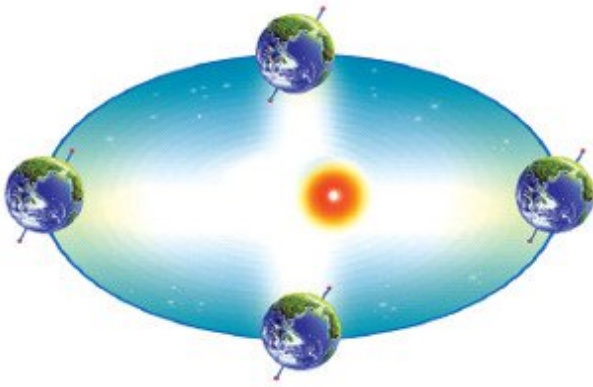
즉, 절의 논 칠두락이라 하였으니 이는 금산사 미륵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불상에 대한 말이다.

당시 금산사를 창건할때 하늘의 신(神)들이 진표 대성사를 도와, 사방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어 이룩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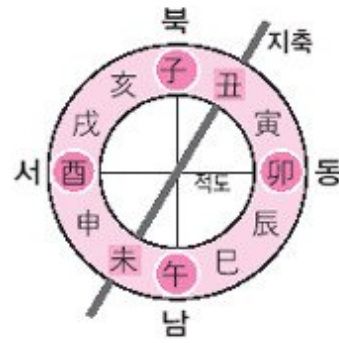
## 가을개벽(후천개벽 모습)

가을개벽의 구체적인 자연현상은 바로 동북방으로 기울어진 지구가 일시에 정립되는 지축의 이동 현상을 말한다.

지금(선천) 세상(남성중심) 우주여름철 분열생장기의 시공계도(타원계도, 지축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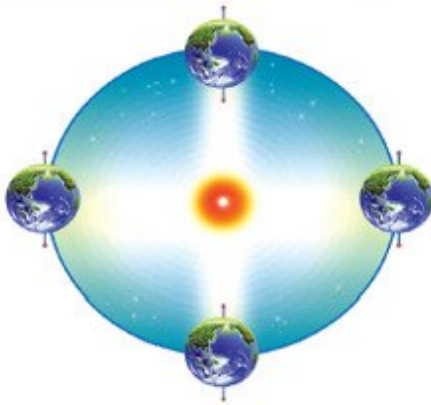


선천 타원계도: 일년 365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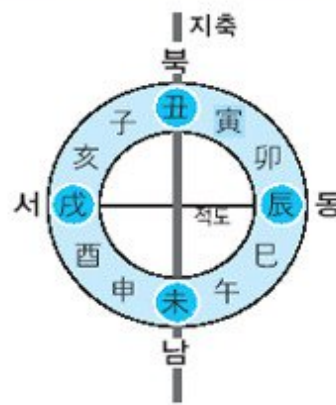


선천 지축도 (三天兩地, 三陽二陰 운동)

앞(후천) 세상(남녀동권) 우주가을철 통일성숙기의 시공계도(정원계도, 지축정립)



후천 정원계도: 일년 360일



후천 지축도 (正陰正陽 운동)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려는 대개벽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주의 일년에서도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을까?

오늘의 인류는 천지의 일년 중 봄·여름의 성장과정인 선천시대가 모두 끝나고  
통일과 결실의 후천 가을문명시대로 막 전환하려고 하는 대변국기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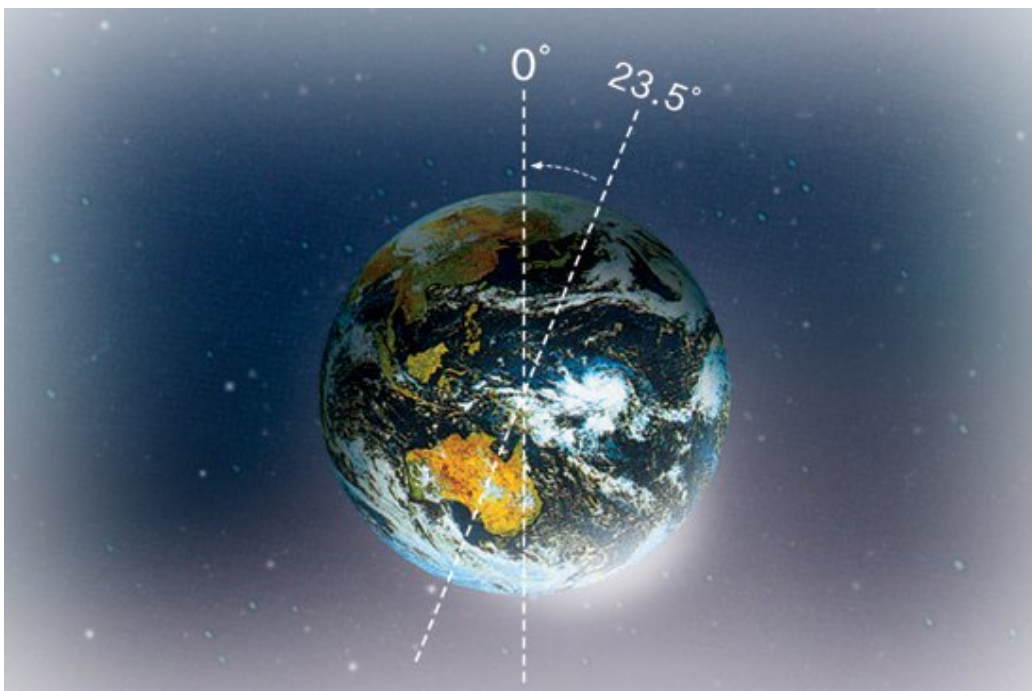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 5만 년 전인 이번 우주 일년의 봄에 최초로 생겨나 여름철의 기나긴 성장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자신의 생명을 성숙시켜야 하는 가을우주(후천)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일년의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철인과 석학들은 우리 시대를 ‘**대전환의 격변기**’ 라고 하나 같이 말하고 있다.

선천종교(기독교, 불교 등)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이번 우주년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때 일어나는 **가을 대개벽**(천지개벽)을 이야기 하는것이며 다름아닌 **지축정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축정립**은 우주가 성숙하는 진화의 과정이요 **인간이 완성되어** 후천가을 조화선경 문명세계로 진입하는 필연적인 진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01

02

03

01. 증산상제님 여진

02. 금산사 미륵전 미륵불상 약 1200여년전에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후 세웠다

03. 객망리 1871년 음력 9월19일, 증산상제님께서 이 마을에 탄강하셨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자리하고 있다

## 부금 냉금 종금하라

떠 있는 금은 차가운 금이니 이 금을 따라가라.

밑없는 시루(浮金)위에 서 계신 금미륵불(冷金)이 사람으로 강세하시니 그 분의 도를 잘 믿으라(從金)는 뜻이다.

전세계를 돌아다녀도 떠있는 금은 금산사 미륵불상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이치에 따라 토(土)의 기운으로 오는 미륵부처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엄택곡부라

문득 곡부를 집으로 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 분은 지상에서도 문득(菴) 곡부를 (전북 고부의 옛 이름, 호남지방 전라도) 집으로 해서 미륵 부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은 호남지방 전라도 곡부군 객망리에서 오셨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탄강하신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마을 뒤로 보이는 산이  
서루산이다.

## 삼인일석(三人一石)은

그분의 도에 그쳐(道下止) 이를 잘 닦으라는 소식이다.

삼인일석(三人一石은 닦을 修 자의 破字) 종합해보면 닦을 수(修)자, 주문수행(태을주 수행)을 뜻합니다



## 이재전전(利在田田)하니

이재전전(利在田田)의 "전(田)"은 새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대개벽의 새 수도(首都)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명에 밭 전(田)자 들어가는 큰 도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 도하지(道下止)하라

진리가 매듭지어지는 구원의 도가 대전(大田)에 있으니 그 도에서 머물러 구원을 받으라(道下止)는 소식이다.

『周易』, 乾卦 '見龍在田' 과 하권 3부 참고

활아자수 사답칠두락 부금 냉금 종금 엄택곡부  
活我者誰오. 寺答七斗洛에 浮金은 冷金이니 從金하라. 奄宅曲阜라.

삼인일석 이재전전 도하지  
三人一夕은 利在田田하니 道下止라. <정감록>

## 무료 서적 기증 안내

## 상제관

### 블로그

상생의 대도 相生之大道

<http://blog.daum.net/chhw9999>

### 저자

태을핵량군

### 발행일

2016.11.04 19:59:27

 블로그